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분석연구

연구책임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세원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연구지원 | 허성민 경기복지재단 연구보조원

Gyeonggi Welfare Foundation

GYEONGGI WELFARE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4-02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분석연구

발행일 2014년 4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 120-170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발 간 사

2014년은 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해이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동원 가능한 복지자원일 것이다. 주민들의 복지욕구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지역의 복지자원은 제약이 없는지, 새로운 복지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복지전략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경기도 전체의 복지자원을 공공과 민간자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재정, 인력, 프로그램 등 3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한 포괄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복지자원을 단순히 재정측면에서만 검토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인력과 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복지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조사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집중도계수나 비형평계수와 같은 분석지표를 통해 경기도 자원의 분포를 분석하고 있어 향후 지역복지전략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바쁘신시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답해준 복지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4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경기도 31개 시·군은 인구규모, 재정, 면적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들임. 이런 지역간 차이는 주민들의 복지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시·군간 복지자원의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도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첫째, 31개 시·군 복지자원을 측정하고, 지역간 복지자원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둘째, 민간복지자원 중에서 실제 민간기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직접 조사해 복지프로그램을 포함해 복지자원을 분석
- 셋째, 비형평성계수, 집중도계수(입지계수)를 활용해 자원의 집중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
- 넷째, 시·군별 차이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해 집단별 구분을 통해 시·군간 복지자원의 차이를 분석

3. 연구의 한계

- 집중적 연구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정함. 연구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을 함께 분석하지 못한 점이 한계임.

- 집중도계수는 평균을 기준으로 활용한 지표임. 때문에 적정성을 보여주진 못함. 또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음.

II. 개념 정의 및 연구방법

1. 개념정의

- 복지자원은 물적, 인적자원으로 구분됨. 물적자원을 재정과 프로그램으로 구분함. 또한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
- 민간과 공공복지자원의 구분을 서비스 생산에 집중해서 진행함.
- 복지재정 중 공공복지재정은 각 복지사업별로 측정함. 민간복지재정은 전체 민간복지 재정 중에서 공공에서 민간에서 이전되는 재정에 집중해 분석함.
- 인력 중 공공인력은 복지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임. 민간인력은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경기도 민간복지기관 실태조사에 제시된 인력으로 분석함.
- 프로그램은 공공의 경우 법정프로그램중심이기 때문에 주로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함. 민간기관은 우선 민간기관이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와 프로그램을 분석함.
- 분석지표는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함. 비형평성계수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얼마나 자원이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0에 가까울수록 형평한 것임. 집중도계수는 자원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1.25가 넘으면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2. 연구방법

1) 자료

- 복지재정 : 2012년 기준 31개 시·군 결산자료 활용
- 복지인력 : 2013년 12.31일 기준 도 내부자료. 2013년 추진된 민간복지기관자원실태조사 자료 활용
- 복지프로그램 : 민간기관 현황(도 내부자료, 시·군내부자료), 민간복지기관자원실태조사

2) 분석방법

- SPSS 프로그램 활용해 민간기관 프로그램 분석
-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활용 : 집단의 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임. Mplus를 활용 분석

Ⅲ. 복지자원 현황

- 재정이나 인력, 프로그램을 절대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자원이 풍부
- 공공지출과 민간지출을 비교해보면, 직접대상자에게 지출하는 공공부분 재정지출규모가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은 공공부분 재정지출의 13.6% 수준
- 복지재정의 내부비중을 살펴보면, 공공재정은 아동관련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노인, 저소득층 관련 지출임. 반면, 민간기관에 대한 복지지출을 살펴보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지출보다는 노인기관에 대한 지출비중이 좀더 높음. 전체적으

로는 아동관련 지출이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아동관련 지출비중이 크지만 시·군별로 살펴보면 노인관련 지출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동관련 지출 비중이 좀더 높은 지역이 있음.
- 시·군내 저소득층, 노인, 인구를 고려해 재정과 관련된 복지자원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양으로 복지자원을 판단하기 어려움.
- 인력측면에서 공공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저소득층 수를 보면, 가평, 김포,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의 경우 담당해야하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민간인력의 경우에도 부천, 안산, 구리, 의정부의 경우 민간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복지기관은 경기도 남부지역에 주로 복지기관들이 설치되어 있음. 또한 도시지역에 복지기관들이 주로 설치되어 있음.
- 인구 대비, 저소득층이나 노인, 아동인구 대비 기관비율을 살펴보면,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의 비율이 낮음.
-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포괄하는 비율이 성남의 경우에만 1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 외 종합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들이 있는 상황
- 노인기관비율을 살펴보면, 가평, 동두천시, 시흥, 포천시의 경우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반면, 부천이나 성남의 경우 노인기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복지프로그램은 문화 및 여가,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의 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권익보장 및 법률지원이 가장 비중이 낮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별로 보면, 문화 및 여가서비스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 및 여가서비스 비중이 낮고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비중이 높음.

IV. 집중도분석

1. 시·군별 집중도

〈표 1〉 복지자원 비형평성계수

	구분	공공	민간	
		재정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인구 대비
	각 분야별 지출액	저소득층 대비	3.53	12.91
		노인 대비	3.40	11.36
		아동 대비	4.16	11.33
인력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인구 대비	5.98	6.43
프로그램	시·군별 민간기관 설치	종합복지관(저소득층 대비)		26.1
		아동관련기관(7세미만 아동대비)		10.4
		노인관련기관(60세 이상 인구대비)		9.3
	시·군별 민간프로그램 운영현황	전체		8.8
		주거지원		11.7
		고용 및 직업		12.5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11.7
		권익보장 및 법률		12.3
		문화 및 여가		8.0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10.9
		보육 및 교육		7.0
		보호 및 돌봄요양		10.8
일상생활지원		16.0		

- 비형평성계수를 살펴보면 위와 같음.

- ① 공공자원보다는 민간자원에 있어 비형평성이 좀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② 민간기관에 대한 공공지원재정에 있어 비형평성이 높음.
- ③ 종합복지관, 아동관련기관의 비형평성이 높음.

④ 프로그램의 비형평성이 높음.

- 시·군별로 민간복지기관,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보다 형평성있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각 프로그램의 비형평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
-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 집중도계수를 정리해놓았음. 1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아서 경기도 평균을 1이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2~3은 집중도계수가 0.75~1.25 사이에 있는 것으로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수준의 자원분포라 할 수 있음. 4는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2. 집단별 집중도

- 잠재적 프로파일 결과 4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

- ① A집단 : 과천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과천과 의왕은 대표적으로 지역이 적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용인과 화성은 면적은 과천과 의왕보다 넓지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② B집단 :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하남시. 면적은 가장 적고, 면적당 인구는 가장 많은 지역. 서울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도시와 도농복합지역,
- ③ C집단 :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다만, 의정부시의 경우 저소득층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집중도계수를 중심으로 집단구분시 C집단에 포함되는 특징
- ④ D집단 :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동두천시는 연천군과 밀접한 위치에 있고 면적은 적지만 도농복합지역의 특성

자원		대비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공공 총지출	인구		0.79	0.95	1.32	1.86
	저소득		1.04	0.98	1.06	0.92
	아동		0.76	0.98	1.17	1.60
	노인		0.78	1.00	1.20	1.39
민간총지출	인구		0.95	0.87	1.42	3.36
	저소득		1.74	1.14	0.49	0.24
	아동		1.18	0.89	0.93	3.13
	노인		0.44	1.01	1.52	2.18
전체 재정	인구		0.81	0.94	1.33	2.04
	저소득		1.10	1.00	1.01	0.86
	아동		0.82	0.96	1.13	1.81
	노인		0.77	1.01	1.22	1.43
공인력	인구		0.99	0.86	1.45	2.85
민인력	인구		0.76	0.90	1.45	3.22
공민인력	인구		0.80	0.90	1.45	3.17
민간기관	저소득		0.54	1.33	0.28	0.00
	노인		0.69	0.95	1.23	2.14
	아동		0.55	1.06	1.16	1.98
프로그래밍	전체	저소득	1.56	0.98	0.89	0.99
	주거지원		1.79	0.91	1.05	1.04
	고용 및 직업		1.64	1.01	0.77	1.06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1.75	0.96	0.89	1.08
	권익보장 및 법률		1.39	0.99	0.69	1.93
	문화 및 여가		1.47	1.04	0.78	0.68
	정신건강		1.79	0.96	0.87	1.12
	보육 및 교육		1.57	1.05	0.75	0.65
	보호 및 돌봄요양		1.45	0.90	1.14	1.26
	일상생활지원		1.28	1.04	0.80	0.92

V. 결론

- 경기도내 복지자원의 차이가 큰 상황임.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복지자원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됨. 시·군 자체적인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 부천과 성남, 안산과 안양의 경우 시·군 자체적인 노력이 가능한 지역들임.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확대 고려 가능. 안산의 경우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자원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시·군도 다수 있음. 과천, 의왕, 용인, 화성은 집중되어 있는 자원을 부족한 부분으로 이동하는 등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
- 복지자원조정을 위해 1차적인 책임은 앞서 제시했듯이 시·군에 있음. 그러나 시·군 자체적인 노력이 어려운 지역들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기동성이 있는 방식의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지역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기관의 설치 방식과 운영방식을 제안 필요. 복지자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향후 4~5년을 기점으로 도 차원에서 복지자원의 양적 확대, 시·군간, 집단간 차이 극복을 위해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의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를 위한 재정계획 등이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이 요구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3. 연구 한계	5
II	개념정의 및 연구방법	7
	1. 개념정의 및 분석틀	9
	2. 연구방법	19
III	시·군별 복지자원 현황	27
	1. 재정	29
	2. 인력	50
	3. 프로그램	57
	4. 소결	79
IV	복지자원 집중도	83
	1. 시·군별 복지자원 집중도	85
	2. 집단별 집중도분석	112
	3. 소결	127

V 결론 131

참고문헌 139

VI 부록 141

<자원조사표> 143

Ⅰ 표 차례 Ⅰ

<표 II-1>	복지자원의 민간, 공공 구분	10
<표 II-2>	복지자원 구분표	12
<표 II-3>	자원조사를 위한 프로그램 분류	14
<표 II-4>	재정 분류 기준	20
<표 II-5>	경기도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3
<표 II-6>	분석에 활용한 자료	25
<표 III-1>	시·군 분야별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31
<표 III-2>	시·군 분야별 1인당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33
<표 III-3>	시·군 분야별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37
<표 III-4>	시·군 분야별 1인당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39
<표 III-5>	시·군 분야별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45
<표 III-6>	시·군 분야별 1인당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48
<표 III-7>	공공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현황(2013년 기준)	51
<표 III-8>	시·군 공공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인구(2013년 기준) ..	52
<표 III-9>	시·군 민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인구(2013년 기준) ..	54
<표 III-10>	시·군 전체 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인구(2013년 기준)	56
<표 III-11>	전체 민간복지기관 현황(2013년 기준)	58
<표 III-12>	시·군 복지기관 현황(2013년 기준)	58
<표 III-13>	시·군 대상자 대비 기관비율(2013년 기준)	61
<표 III-14>	시·군 민간자원조사응답기관 현황	65
<표 III-15>	기관유형별 응답기관 현황	67
<표 III-16>	기관유형별 복지프로그램	68
<표 III-17>	기관유형별 복지프로그램 비중	69
<표 III-18>	시·군 복지프로그램 현황	71
<표 III-19>	시·군 복지프로그램 구성비	73
<표 III-20>	시·군 저소득층 대비 경기도내 프로그램 비율	76
<표 III-21>	시·군 저소득층 대비 비율	77
<표 IV-1>	복지자원 비형평성계수	86
<표 IV-2>	복지자원 집중도계수 산식	88
<표 IV-3>	시·군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90
<표 IV-4>	시·군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92

<표 IV-5> 시·군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94
<표 IV-6> 시·군 공공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집중도계수	97
<표 IV-7> 시·군 민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집중도계수	99
<표 IV-8> 시·군 민간기관 집중도계수	103
<표 IV-9> 시·군 민간프로그램 집중도계수	108
<표 IV-10> 잠재계층 수에 따른 AIC와 BIC	113
<표 IV-11> 집단별 현황	115
<표 IV-12> 집단별 공공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116
<표 IV-13> 집단별 민간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119
<표 IV-14> 집단별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121
<표 IV-15> 집단별 사회복지 업무 수행인력 집중도계수	122
<표 IV-16> 집단별 민간기관 집중도계수	123
<표 IV-17> 집단별 민간프로그램 집중도계수	125
<표 V-1> 분야별 집중도계수 분포	136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Ⅲ-1]	시·군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 비중(2012년 기준)	35
[그림 Ⅲ-2]	시·군 1인당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36
[그림 Ⅲ-3]	시·군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 비중(2012년 기준)	42
[그림 Ⅲ-4]	시·군 1인당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43
[그림 Ⅲ-5]	시·군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비중(2012년 기준)	49
[그림 Ⅲ-6]	시·군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50
[그림 Ⅲ-7]	시·군 민간복지기관 분포현황(2013년 기준)	60
[그림 Ⅲ-8]	시·군 민간기관, 종합복지관 비율(2013년 기준)	63
[그림 Ⅲ-9]	시·군 아동기관, 노인기관 비율(2013년 기준)	64
[그림 Ⅳ-1]	시·군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96
[그림 Ⅳ-2]	시·군 민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집중도계수	101
[그림 Ⅳ-3]	시·군 민간기관 집중도	105
[그림 Ⅳ-4]	시·군 주거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집중도	111
[그림 Ⅳ-5]	시·군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 집중도	111
[그림 Ⅳ-6]	시·군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집중도	112
[그림 Ⅳ-7]	잠재계층 수에 따른 AIC와 BIC의 변화	113
[그림 Ⅳ-8]	집단별 분포	115
[그림 Ⅳ-9]	집단별 공공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118
[그림 Ⅳ-10]	집단별 민간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120
[그림 Ⅳ-11]	집단별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121
[그림 Ⅳ-12]	집단별 주거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집중도계수	125
[그림 Ⅳ-13]	집단별 권익보장,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관련 집중도계수 ..	126
[그림 Ⅳ-14]	집단별 보육, 보호, 일상생활지원 집중도계수	127
[그림 V-1]	시·군별 집중도계수 분포	135

I

서론

- ① 연구의 필요성
- ② 연구 목적
- ③ 연구 한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특징을 가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가평부터, 도시지역의 특징을 가진 수원, 성남까지 모두 경기도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고 빈곤층이 적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빈곤층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도 있다.

이러한 시·군의 다양한 특징은 지역의 복지상황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고,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노인보다는 아동인구가 더 많다. 때문에 농촌지역은 노인관련 복지재정이나 인력, 서비스기관이 많고, 도시지역은 노인기관보다는 아동관련기관이 더 많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단순히 시·군의 특성, 특징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지역간 차이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즉 노인인구나 저소득층이 많지만, 복지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시·군은 복지혜택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 대표적으로 과천과 같은 지역은 복지대상자수가 적고 복지자원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복지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한 복지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관련 복지서비스에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시·군간 복지자원의 차이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31개 시·군을 지원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의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복지자원의 차이를 엄밀하게 판단하고, 이에 근거해 지역간 복지자원의 차이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군은 내부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복지과제와 시·군 내의 자원배분에 대해 논의한다.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를 통해 복지자원의 차이를 확인해도 자체적인 해결대책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역시 17개 시·도의 복지자원 차이가 있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시·군 단위의 복지자원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군단위의 복지자원 관리는 31개 시·군에 대한 자원배분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복지자원의 차이를 완화하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자원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지역간 복지자원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복지자원을 생성하는 주체의 기준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복지자원의 내용을 재정, 인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복지자원 중 민간에서 생산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복지자원이다. 실제 막대한 재정이 민간에서 생산하는 복지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민간의 복지프로그램이 중요한 복지자원임에

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2009년 「민간복지자원 실태조사연구」를 제외하고 관련된 조사가 전무하다는 점, 행정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민간기관에서 이뤄지는 복지자원, 복지공급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연구가 추진되지 못했다. 때문에 민간기관의 설치여부 즉 관련 민간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만 민간자원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복지서비스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고 서비스 대상자 역시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역사회내 중요한 복지자원이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자원 분석과정에서 민간기관이 직접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역간 복지수준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복지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입지계수)를 활용한다. 비형평성계수는 제한된 자원이 얼마나 형평하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집중도계수는 지역의 특정산업, 특정서비스의 집중도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지표이다. 두 가지 지표 모두 비록 대리지표이지만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측정된다. 때문에 복지자원과 욕구의 매치과정에서 자원의 형평한 배분, 자원의 집중과 부족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해 31개 시·군을 집단별로 구분해서 특성을 보다 구체화해서 분석한다. 이는 31개 시·군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도계수와 비형평성계수를 활용하더라도 지역별 특성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요한 특징을 가진 시·군별로 묶어 집중도계수와 비형평성계수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간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3 연구 한계

첫째, 연구의 초점을 공공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자원, 민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한 복지자원에 두었다.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 복지자원이 함께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통해 양적인 복지자원의 분포를 보여줌으로써 31개 시·군의 복지자원 총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진 못한다. 또한 민간복지기관의 경우 동일한 아동기관이라 해도 역할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민간기관 설치여부와 관련된 집중도계수는 이런 민간기관의 다양성을 반영하진 못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민간기관의 속성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통해 살펴본다.

셋째, 복지자원의 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집중도계수(입지계수)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 집중도계수는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집중과 누락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즉 도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복지자원의 집중과 누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자원의 집중과 누락을 분석한다. 때문에 경기도 평균자체가 도덕적, 이념적 혹은 학술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과 누락 역시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적인 자원의 분포도를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지표도출과정에서 인구규모가 중요한 변수인데, 가평이나 연천과 같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복지자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집중도계수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복지수요자의 욕구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적절한 복지자원의 수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평균값을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III

개념정의 및 연구방법

- ① 개념정의 및 분석틀
- ② 연구방법

II

개념정의 및 연구방법

1 개념정의 및 분석틀

1) 복지자원의 정의

일반적으로 복지자원이란 사회복지대상자인 개인, 가족,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김상균 외, 2005). 사회복지자원의 특징은(김교성 외, 2006) 첫째,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가치재로 작용할 때 자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둘째, 자원은 제한되어있으며 셋째,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이다. 넷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즉 복지자원은 개인과 지역사회 등의 욕구해결을 위한 수단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런 복지자원은 사회복지사업수행을 위해 투여되는 물질,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이익섭 외, 2007: 51; 김상균 외, 2005). 이 중에서 물질 자원은 일반적으로 복지재원으로 표현되어 왔다. 때문에 복지자원과 관련된 일부 연구들은 복지자원을 공공자원, 복지재정 즉 현금에 집중해 한국과 OECD 국가간의 비교, 서울과 경기도와의 비교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물론, 복지자원의 상당부분이 공공자원이라는 점, 현재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인 현금을 통한 생계지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자원, 현금자원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공급은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자원의 상당수는 민간위탁된 각종 복지기관으로 투입되고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에서는 복지대상자에게 다양한 현물지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복지요구해결을 위한 복지자원을 단순히 현금 지원 특히, 공적인 현금지원에 국한할 경우 지역사회 내에 포진되어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복지자원을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즉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복지자원 중에서 현물서비스에 집중해 복지자원을 측정하기도 한다(김경혜, 2006; 성은미 외, 2009; 부산복지개발원, 2007).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자원을 선행연구와 같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하고 물적자원은 다시 현금과 현물 즉 재정과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2) 복지자원의 범위

앞서 제시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복지자원을 재정, 인력,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복지자원의 속성은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 II-1>에 제시되어 있듯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다양한 조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이 간단하지는 않다.

<표 II-1> 복지자원의 민간, 공공 구분

서비스 생산		복지재정	
		공	민
공	공	공공자원	공공-민간자원(후원품 제공)
	민	공공-민간자원(민간위탁)	민간자원

위 <표 II-1>에 의하면, 복지재정이 공공이고 서비스 생산도 공공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공공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복지재정이 민간에서 나오고 서비스 생산도 민간에서 진행되는 경우 순수한 민간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공공재원이지만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민간위탁방식, 재원은 민간인데 서비스 생산은 공공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이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보다는 서비스 생산부분에 집중해서 복지자원의 속성을 구분한다. 이는 복지자원을 단순히 재정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과 인력, 프로그램 등 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복지자원은 서비스 생산이 공공에서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민간복지자원은 서비스 생산이 민간에서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서비스 생산이 공공에서 직접 이뤄지는 경우는 크게 사회보험과 관련된 공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에 집중한다. 이는 첫째, 사회보험의 특성상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다고 해도 대상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둘째, 사회보험관련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단이 지역사회 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셋째,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징수, 급여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재정부분을 제외하고는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군, 읍·면·동으로 연결되는 공공행정체계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에 집중해 공공복지자원을 분석한다.

서비스 생산이 민간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다양하다¹⁾. 민간에 위탁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기관의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체를 분류한 강혜규(2009)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산업체분류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업으로 분류되고, 중분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에 기초하여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집중한다. 이는 민간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자원이 존재하긴 하지만 종교기관 등의 경우 포교를 목표로 진행하는 활동인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도 복지자원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복지자원의 범위와 속성에 따라 이를 구분하면, 아래 <표 II-2>와 같다.

<표 II-2> 복지자원 구분표

구분	재정	인력	프로그램
공공	지자체 복지부분 재정지출	지자체 복지관련 업무 수행인력	지자체 복지프로그램
민간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기관 복지지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기관 업무 수행인력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3) 복지재정 및 인력

복지재정은 공공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복지관련 지출이며, 민간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지출하는 복지관련 지출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공공 복지재정과 관련해 지자체 복지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자체별 복지관련 재정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모두 복지재정 규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이긴 하지만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예산을 복지지출로 간주할 수도 있고, 공공복지 사업별 지출로 복지재정 규모를 측정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복지관련 지출규모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공공복지 사업별 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재정 규모를 측정한다. 이는 복지사업별 지출이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복지자원으로 규정해 이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복지사업별 대상자가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어떤 분야에 좀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복지사업별로 복지재정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기관의 예산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사업비든 운영비든 공공재원을 통해 확보되는 재정, 법인을 통해 지원되는 재정, 기관 자체적인 후원 사업을 통해 동원되는 재정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민간기관의 재정 규모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파악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인이 지원하는 재정의 규모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후원 사업을 통해 동원되는 재정 규모는 공개되지 않는다. 즉 현재 수준에서 전반적인 민간기관의 복지재정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기관으로 제공되는 자원의 양에 집중해서 민간기관의 복지재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기관 운영비의 상당수가 공공지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민간기관 지원비가 민간기관 재정규모를 보여주는 대리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인력은 지자체에서 복지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자원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을 공공인력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민간인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다.

4) 복지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며 구분 역시 중요하다. 실제 민간복지기관에서 수행하는 복지관련서비스는 이름이나 그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다. 때문에 동일한 사업명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정작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반대로 동일한 사업이 다른 사업명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부산에서는 2007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및 서비스분류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부산지역 민간기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런 민간복지자원의 분류들과 관련된 연구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이하 사통망)이 보급되면서 점차 사통망 기준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09년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각종 공공급여 관리를 기초로 하여 여러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DB라 할 수 있다. 비록 민간기관이 관련자원을 등록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지만, 사통망에는 공공급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민간복지자원 역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관련기관의 존재여부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입력하기 위해 범주화된 서비스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사통망 서비스 분류체계는 총 9개의 대분류 하에 43개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분류들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이는 첫째, 주거, 교육, 건강, 보육 등 전반적인 복지프로그램 분류가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록 등록비율이 그리 높진 않지만, 민간기관들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관련 서비스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분류들이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조사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도 사통망에 제시된 서비스 분류들을 그대로 활용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초한 프로그램 분류들은 아래 <표 II-3>과 같다.

<표 II-3> 자원조사를 위한 프로그램 분류

지원 프로그램 종류	세부 지원 프로그램 종류
주거지원	임시 거처마련 및 지원, 장기 거처마련 및 지원, 주거 환경개선, 주거안정지원
고용 및 직업	자활사업,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직업상담, 직업유지지원 및 자립지원, 창업지원, 취업알선(일자리제공)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지원, 검진 진단판정 및 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 보장구지원, 의약품 외 물품지원, 재활치료
권익보장 및 법률	법률 상담 및 지원, 인권옹호 상담 및 지원
문화 및 여가	문화예술 활동지원, 체육활동, 취미여가(기타), 휴양 및 체험여행

지원 프로그램 종류	세부 지원 프로그램 종류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사회적 관계개선지원, 게임·인터넷 및 도박 중독,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 알코올 및 약물중독, 우울·자살 예방지원, 정신보건 및 치료지원
보육 및 교육	양육 및 진로상담지도, 영유아 아동 보육 및 돌봄, 유아아동 청소년 교육, 장애특수교육, 평생 교육 및 생활지식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	간병 및 돌봄, 장제서비스, 단기시설보호, 장기시설보호, 주야간 보호서비스, 폭력피해자 보호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기획사업, 긴급지원, 생필품 지원, 생활안정 및 유지지원

5) 분석지표

복지자원을 총량적으로 제시하고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복지자원의 양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를 파악하긴 어렵다. 가평에 노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100개 운영된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복지자원의 총량이 복지대상자 대비 얼마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복지수요자 대비 복지자원의 양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에는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해 이를 분석한다. 비형평성계수는 복지서비스 등 서비스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제한된 자원이 얼마나 욕구가 있는 대상자 대비 형평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즉 한정된 자원이 지역의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각 지역의 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비형평성계수는 Coulter(1980)의 비형평성 지수를 이용한다.

$$I = \frac{100 \sqrt{\sum_{i=1}^n \left(\frac{X_i}{S} - E_i\right)^2}}{\sqrt{1 + \sum_{i=1}^n E_i^2 - 2 \min E_i}}$$

$$= \frac{100 \sqrt{\sum_{i=1}^n (\text{해당지역복지서비스공급량/전체공급량} - \text{수요인구비율})^2}}{\sqrt{1 + \sum_{i=1}^n (\text{수요인구비율})^2 - 2(\text{최소수요인구비율})}}$$

Coulter(1980)의 비형평계수는 I의 값이 0인 경우 완전한 형평, 1~10인 경우 거의 형평, 11~20인 경우 약간 비형평, 21~30인 경우 상당한 비형평, 31~50인 경우 심각한 비형평, 50 이상인 경우 극심한 비형평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비형평계수를 활용해 경기도 시·군별, 지역별 자원의 양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비형평계수가 대상이 되는 지역 내의 자원 분포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단위가 커서 시·군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집중도계수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집중도계수는 과거 입지계수의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는 관심항목의 분산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지역경제와 경제학 측면에서 개발된 척도이다(남기성 외, 2008). 즉 특정 지역사회에 어떤 분야의 경제가 특화되어 있는지, 어떤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라는 것이다. 그 후 입지계수는 특정산업이나 분야의 분산정도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어오고 있다²⁾.

입지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J지역의 I산업 분산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종사자수 대비 I산업종사자 비중이 J지역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J지역의 I산업 집중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2) 이 외의 다양한 계수에 대한 설명은 남기성 외 2008년 자료를 참조하길 바란다.

즉 전국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J지역의 I산업 종사자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석해 J지역내 I산업이 얼마나 집적되었는지, 집중되었는지를 보여준다.

$$\text{입지계수}(LQ) = \frac{(\text{J지역 I산업종사자} / \text{J지역종사자수})}{(\text{I산업종사자수} / \text{전국종사자수})}$$

위의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입지계수는 집중도를 보여주는 계수이며, 그 기준은 전국 평균값이다. 즉 위 산식에 제시된 분모는 전국종사자 중에서 I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율이다. 이를 분모로 삼고 J지역의 I산업 종사자비율을 분자로 제시하여 그 비율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입지계수가 1이 나오면 전국에서 I산업에 종사하는 비율과 J지역에서 I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 즉 J지역에서 I산업종사자비율은 전국평균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예를 들어 입지계수가 2가 나온다면 그 의미는 전국 평균적으로 I산업 종사자비율보다 J지역의 I산업 종사자비율이 2배라는 것을 의미하며 J지역에 I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입지계수는 어떤 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분포, 집중정도를 살펴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인 집중정도를 살펴보는 입지계수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외에 다른 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없고 절대적인 기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임의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며, 별도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균이라 할 수 있다. 입지계수는 바로 이런 전체 혹은 경기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해당 시·군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지, 누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활용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렇게 주로 산업과 경제분야에서 활용되던 입지계수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곤 한다. 본 연구와 같이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는데, 전체 지역의 평균 등을 활용할 때 입지계수를 활용하거나

입지계수를 변형에서 활용하곤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입지계수를 활용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자원을 분석한다. 특히, 입지계수를 통해 복지자원을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계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규모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자원의 입지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 노인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변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당 시·군에 특정복지자원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누락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계수의 용어를 집중도계수로 변형해서 활용한다. 특히, ‘입지’라는 단어가 특정 산업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할 때 활용되던 단어로써 복지부분 자원의 분포를 보여줄 때 그 의미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집중도계수는 경기도 전체 관련인구에서 해당 복지자원비중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 관련인구에서 해당 시·군 지역복지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다.

$$\begin{aligned} \text{집중도계수} &= \frac{(\text{해당 시·군 지역 복지자원} / \text{해당 시·군 관련인구})}{(\text{경기도 전체 복지자원} / \text{경기도 전체 관련인구})} \\ &= \frac{\text{해당시군관련인구대비복지자원비율}}{\text{경기도전체관련인구대비복지자원비율}} \end{aligned}$$

즉 앞서 설명했듯이 경기도 전체 해당욕구가 있는 대상자 대비 관련 복지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분모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욕구가 있는 대상자 대비 경기도 평균을 분모로 하고, 해당 시·군의 대상자 대비 복지자원을 분자로 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평균을 분모 즉 기준으로 해서 해당지역의 관련 복지자원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집중도계수가 1이라면, 앞서와 동일하게 경기도내 관련 욕구가 있는 대상자 대비 복지자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시·군의 관련 복지인구 대비 관련 서비스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도계수는 별도의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기준이 없을 때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복지 자원의 집중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집중도계수가 1이면 해당 시·군에 복지자원 비율이 경기도 평균 구성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크면 경기도 평균보다 많다는 것을, 반대로 1보다 적으면 평균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도계수가 1.25를 넘을 경우를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남기성외, 2008)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문헌연구와 양적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문헌연구는 복지자원의 분류와 범주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한다. 또한 복지재정과 관련되어 이를 분석하는 과정 역시 31개 시·군 결산자료를 통해 진행한다. 또한 경기도내 민간복지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다.

1) 자료조사

(1) 재정

복지재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31개 시·군 전체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2012년 세입세출 결산서(사업별 조서)이다³⁾. 이를 수집하기 위해 1월 14일부터 1월 20일(7일간)까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결산서(사업별 조서)를 수집하되 이 방법으로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시·군의 회계과(팀)에 공문서와 전화요청을 하여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3) 2013년 결산서는 시·군 의회 승인 이전으로 공개가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결산서는 2012년 회계연도 기준임.

시·군 결산서에서 지출내역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한 기준은 <표 II-4>와 같다. 우선 공공 복지재정은 사회복지대상자 개인 혹은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 시·군에서 제 3의 기관에 예산을 위탁하여 지출하는 방법, 통계목이 일반보상금 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것을 공공 복지재정으로 하였다. 둘째, 민간 복지재정은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경비(운영비, 민간위탁금,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일체로 하였다. 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개인 혹은 가구가 아닌 각 해당 시설로 경비를 지원하지만 공공 재정에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시·군에서 지출의무를 가진 법정지출이기 때문이다.

〈표 II-4〉 재정 분류 기준

구분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범주	
공공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생계급여(일반)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집수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자활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집수리 사업	
노인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구분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범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아동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무한돌봄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자활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지원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민간	노인일자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실버인력뱅크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복지시설_생활시설	양로시설 운영		
		요양시설 운영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	노인복지시설_이용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관 운영	
			365 어르신 돌봄센터	
			홀몸노인돌봄사업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재가노인 보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운영 지원		

구분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범주	
	아동	아동복지시설_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학습활동지원
		아동복지시설_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 인력

복지자원 중 인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뉘서 자료조사가 이뤄졌다. 첫째, 공공 인력은 도내 31개 시·군 2013년 6월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과 관련된 경기도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민간의 인력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경기도내 민간기관 복지자원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3) 프로그램

공공복지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법정복지급여라는 점에서 특별히 분석을 진행하진 않는다. 반면, 민간복지프로그램은 앞서 제시했던 프로그램 분류틀에 따라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내 민간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기관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제시되어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점서 및 녹음서, 정신병원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추가 조사하였다. 대표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였고, 여성과 관련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였다.

〈표 II-5〉 경기도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종합	종합사회복지관(복지회관포함)
아동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공동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상담소, 어린이집
노인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심부름센터 , 수화통역,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한부모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적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일반지원시설(성매매), 청소년지원시설(성매매), 외국인여성지원시설(성매매), 자활지원센터(성매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
정신보건	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 생활훈련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작업훈련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식품기부	푸드뱅크, 푸드마켓
자활고용	지역자활센터
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가족여성회관) , 여성의 전화 , 여성근로자복지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법)
청소년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기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공부방
기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센터 일자리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자원봉사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밑줄 :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되지 않은 기관

* 이탤릭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되어 있으나 복지기관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제외

경기도내 총 조사대상기관수는 4,714개이며, 조사완료기관수는 3,497개이다. 총 조사대상기관수 즉 모집단은 경기도내부 자료를 통해 확보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민간기관의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일이 많아 이를 검증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주민생활지원국을 통해 모집단을 추가

하거나 혹은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 내용은 해당기관의 종류와 인력, 앞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분류들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2013년 10월 15일~2013년 12월 31일 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웹조사, FAX조사, 전화조사를 하였다.

2) 분석방법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간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현황을 분석한다. 이때 지역마다 응답률이 상이할 경우 특정지역에 관련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해 응답률이 낮은 시·군을 기준으로 랜덤하게 응답수치를 조정하여 분석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한다. 특히, 재정이나 인력, 프로그램 전체를 파악할 때에는 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해 분석한다. 이때 활용되는 인구자료는 2013년 12.31일자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다.

복지자원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정, 인력, 프로그램 측면에서 대상자별로 좀더 세분화된 자원집중도를 분석한다. 이때에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 아동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본다. 이 외에도 여성,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복지자원이 있고 이런 자원은 복지자원 총량 파악에는 포함되어 분석된다. 그러나 복지자원을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관련된 복지자원을 구분하기 어렵고 복지자원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관련된 보편적 복지 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자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자원과 중복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자원이 31개 시·군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보다는 장애인 관련

기관이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수원, 의정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집중도를 분석할 경우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체 복지자원 총량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관련 복지자원이 포함되지만 세분화한 집중도분석에서는 제외한다.

〈표 II-6〉 분석에 활용한 자료

	자료기준	모형
인구	통계청, 2013.12.31일 기준 인구	복지재정, 인력, 프로그램/인구
저소득층	2013년 6.30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기관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저소득 관련 재정, 인력, 프로그램/저소득층인구
노인	통계청, 2013.12.31일 기준 60세 이상 인구	노인관련 재정, 프로그램/노인인구
아동	1세대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 통계청, 2013.12.31일 기준 0~7세 미만 인구	아동관련 재정, 프로그램/아동

또한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어 31개 시·군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31개 시·군별 특성에 따라 복지수준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때문에 복지수준의 차이를 잘 보여주기 위해 31개 시·군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기도내 시·군을 집단별로 구분 할 때는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거나 혹은 북부지역, 남부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집단구분은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복지자원의 특성을 보여주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각 시·군별 복지재정, 인력 및 민간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하였다.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은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 내에서 관찰되지 않은 모집단의

이질성을 모델링하는 분석방법이다(Peugh & Fan, 2013). 이 분석방법은 잠재적 군집 분석의 한 종류로서, 점수들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집단을 나누고 집단의 수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이동귀·이수란·김혜영, 2009).

전통적인 군집분석과 달리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분석 이전에 최종적인 잠재적 집단의 수를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잠재적 집단의 수는 통계분석결과의 모형 적합도의 비교를 통해 결정한다.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전체 표본 내의 잠재적 집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엔트로피 값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IC와 BIC 값은 작을수록 자료에 더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며, 엔트로피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한다. 한편,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은 잠재적 유형 모델의 확률적 속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대상이 특정 잠재적 유형에 대한 소속여부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다(Vannucci et al., 2013). 즉 최종적 분석결과는 어떠한 대상이 특정한 잠재적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별 인구 및 저소득층 대비 사회복지 분야 공공 및 민간재정 총지출액, 저소득층/아동/노인 대비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저소득층/아동/노인 대비 공공인력 및 민간인력, 저소득층/아동/노인/여성인구 대비 민간기관 수, 프로그램 수, 대상자 수 등에 대한 집중도계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Mplus 5.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시·군별 복지자원 현황

- ① 재정
- ② 인력
- ③ 프로그램
- ④ 소결

Ⅲ

시·군별 복지자원 현황

1 재정

1) 공공

시·군의 사회복지분야별 공공 지출 규모(2012년 결산 기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은 수원시(248,492,102천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고양시(231,347,302천원), 성남시(210,674,641천원), 안산시(202,304,305천원), 부천시(200,401,875천원)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시·군은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이 가장 적은 시·군은 과천시(12,263,182천원), 연천군(22,799,272천원), 가평군(29,627,403천원)으로 이들 시·군은 3백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 또한 총 지출액의 평균은 99,900,265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13개)보다 그렇지 않은 시·군(18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총 지출액을 살펴보면, 첫째, 저소득층 분야 지출액 평균은 19,875,416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성남시(52,182,563천원), 수원시(45,527,488천원), 안산시(45,031,374천원), 고양시(45,005,708천원), 부천시(44,673,195천원), 의정부시(35,530,269천원), 남양주시(26,450,600천원), 평택시(26,367,796천원), 안양시(25,579,100천원), 파주시(24,002,625천원) 등 총

10개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과천시(2,453,905천원), 의왕시(4,603,976천원), 하남시(6,971,255천원), 연천군(7,306,183천원), 오산시(8,182,975천원), 가평군(8,479,413천원), 양평군(9,316,991천원), 여주시(9,710,994천원) 등 21개 시·군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분야 지출액 평균은 25,429,271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고양시(59,170,714천원), 부천시(57,053,469천원), 수원시(56,610,668천원), 성남시(55,080,589천원), 남양주시(43,655,235천원) 등 12개 시·군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과천시(3,202,593천원), 의왕시(8,357,030천원), 연천군(8,759,245천원), 하남시(9,798,522천원), 오산시(9,912,351천원) 등 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분야 지출액 평균은 48,728,845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수원시(132,138,090천원), 용인시(119,808,912천원), 고양시(112,893,409천원), 안산시(109,573,283천원), 남양주시(92,484,104천원) 등 13개 시·군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연천군(5,506,034천원), 과천시(5,931,576천원), 가평군(6,249,776천원), 양평군(8,569,745천원) 등 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분야별 지출액이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첫째, 저소득층 분야의 비중은 평균 20.8%로 연천군(32.0%), 가평군(28.6%), 포천시(27.7%), 양평군(27.4%), 안성시(25.8%), 구리시(24.9%), 성남시(24.8%), 여주시(24.1%), 동두천시·의정부시(23.9%), 김포시(23.6%), 부천시·안산시(22.3%), 평택시(22.0%) 등 총 14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으며, 그 외 17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분야의 비중은 평균 27.2%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총 9개로 가평군(43.1%)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양평군(39.2%), 연천군(38.4%), 김포시(28.6%), 안성시(36.0%), 여주시(34.3%), 동두천시(32.2%), 포천시(31.2%), 부천시(28.5%), 이천시(28.3%)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오산시(18.5%), 안산시(19.5%), 시흥시(20.3%), 용인시(22.1) 등 총 22개 시·군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분야의 비중은 평균 45.9%로 저소득층과 노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용인시(63.4%), 오산시(60.8%), 시흥시(55.1%), 남양주시(54.9%) 등 19개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총 12개로 가평군(21.1%)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연천군(24.1%), 양평군(25.2%), 여주시(33.5%), 포천시(33.9%), 안성시(3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세 분야 중 지출 비중 평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아동(45.9%)이며, 다음으로 노인(27.2%), 저소득층(20.8%)의 순이다.

둘째, 저소득층과 노인 분야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아동 분야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가평군, 동두천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는 저소득층과 노인 분야 지출 비중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아동 분야 지출 비중이 낮으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는 노인과 저소득층 분야 지출 비중은 적은 반면 아동 분야 지출 비중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Ⅲ-1〉 시·군 분야별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총 지출액				분야별 비중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가평군	29,627,403	8,479,413	12,756,775	6,249,776	27,485,964	28.6	43.1	21.1	92.8
고양시	231,347,302	45,005,708	59,170,714	112,893,409	217,069,831	19.5	25.6	48.8	93.8
과천시	12,263,182	2,453,905	3,202,593	5,931,576	11,588,074	20.0	26.1	48.4	94.5
광명시	88,434,137	16,016,644	22,452,039	44,551,342	83,020,025	18.1	25.4	50.4	93.9
광주시	77,435,902	13,341,068	17,574,931	41,507,902	72,423,901	17.2	22.7	53.6	93.5
구리시	49,809,016	12,409,973	12,078,869	21,524,775	46,013,617	24.9	24.3	43.2	92.4
군포시	65,462,616	12,173,502	15,378,554	34,476,112	62,028,168	18.6	23.5	52.7	94.8
김포시	64,626,075	15,255,732	18,510,511	26,941,325	60,707,568	23.6	28.6	41.7	93.9
남양주시	170,379,142	26,450,600	43,655,235	93,484,104	163,589,939	15.5	25.6	54.9	96.0
동두천시	43,964,525	10,518,260	14,147,982	16,932,642	41,598,884	23.9	32.2	38.5	94.6
부천시	200,401,875	44,673,195	57,053,469	86,934,363	188,661,027	22.3	28.5	43.4	94.1
성남시	210,674,641	52,182,563	55,080,589	87,196,174	194,459,326	24.8	26.1	41.4	92.3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총 지출액				분야별 비중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수원시	248,492,102	45,527,488	56,610,668	132,138,090	234,276,246	18.3	22.8	53.2	94.3
시흥시	110,215,255	19,216,376	22,396,987	60,700,802	102,314,165	17.4	20.3	55.1	92.8
안산시	202,304,305	45,031,374	39,503,583	109,573,283	194,108,240	22.3	19.5	54.2	95.9
안성시	57,078,775	14,709,697	20,557,818	20,473,568	55,741,083	25.8	36.0	35.9	97.7
안양시	131,952,277	25,579,100	34,941,217	63,809,697	124,330,014	19.4	26.5	48.4	94.2
양주시	73,165,087	13,243,234	18,548,507	37,039,461	68,831,202	18.1	25.4	50.6	94.1
양평군	34,017,826	9,316,991	13,349,644	8,569,745	31,236,380	27.4	39.2	25.2	91.8
여주시	40,297,459	9,710,994	13,839,747	13,514,129	37,064,870	24.1	34.3	33.5	92.0
연천군	22,799,272	7,306,183	8,759,245	5,506,034	21,571,462	32.0	38.4	24.2	94.6
오산시	53,565,407	8,182,975	9,912,351	32,548,470	50,643,796	15.3	18.5	60.8	94.5
용인시	188,977,781	17,509,458	41,815,269	119,808,912	179,133,639	9.3	22.1	63.4	94.8
의왕시	33,759,481	4,603,976	8,357,030	18,510,757	31,471,763	13.6	24.8	54.8	93.2
의정부시	148,776,845	35,530,269	35,336,841	66,954,264	137,821,374	23.9	23.8	45.0	92.6
이천시	60,973,064	11,369,052	17,240,831	28,656,135	57,266,018	18.6	28.3	47.0	93.9
파주시	121,835,059	24,002,625	30,905,053	62,017,179	116,924,857	19.7	25.4	50.9	96.0
평택시	119,936,861	26,367,796	30,654,694	55,552,363	112,574,853	22.0	25.6	46.3	93.9
포천시	59,428,965	16,436,719	18,564,117	20,163,139	55,163,975	27.7	31.2	33.9	92.8
하남시	37,950,440	6,971,255	9,798,522	18,345,390	35,115,167	18.4	25.8	48.3	92.5
화성시	106,956,149	16,561,774	26,153,023	58,089,274	100,804,071	15.5	24.5	54.3	94.2
평 균	99,900,265	19,875,416	25,429,271	48,728,845	94,033,532	20.8	27.2	45.9	94.0

- *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출액의 합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비중 값 : (각 사회복지대상자 지출액/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100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시·군의 분야별 1인당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첫째, 인구 1인당 지출액 평균은 286.7천원으로 평균보다 낮은 시·군이 총 19개로 높은 시·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인당 지출액이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연천군(499.9천원), 가평군(485.6천원), 동두천시(450.7천원), 포천시(379.5천원), 여주시(368.5천원), 양주

시(367.4천원) 등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과천시(173.8천원), 용인시(200.7천원), 화성시(201.7천원), 김포시(206.9천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시·군 분야별 1인당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인구 1인당 지출액	분야별 1인당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가평군	485.6	2127.3	775.9	1800.1	1150.0
고양시	233.5	3038.7	442.9	1564.3	984.2
과천시	173.8	2705.5	310.2	1249.8	725.3
광명시	250.5	2855.0	470.1	1473.6	993.0
광주시	270.1	2866.0	422.5	1633.9	1010.7
구리시	262.6	2820.4	473.4	1530.3	1046.3
군포시	228.6	2645.8	433.9	1410.7	961.9
김포시	206.9	2695.4	403.3	895.9	743.7
남양주시	275.6	3007.5	487.0	1643.9	1053.4
동두천시	450.7	2429.7	742.9	2292.5	1352.4
부천시	232.0	1895.1	510.3	1433.5	962.5
성남시	215.1	2901.0	394.0	1265.3	857.8
수원시	216.4	2784.9	441.3	1408.5	982.5
시흥시	277.8	2787.4	567.7	1840.1	1289.6
안산시	283.5	2523.6	533.2	2076.0	1341.3
안성시	313.3	2917.4	626.8	1332.9	1047.8
안양시	217.1	3053.5	431.4	1491.9	940.9
양주시	367.4	2738.5	576.5	2157.2	1270.4
양평군	328.3	2757.3	481.8	1374.7	837.0
여주시	368.5	3168.4	567.8	1829.2	1064.3
연천군	499.9	3363.8	718.0	1927.9	1252.1
오산시	260.7	2849.2	496.7	1365.6	1085.3
용인시	200.7	2639.7	322.9	1301.3	785.0
의왕시	211.3	2502.2	388.4	1412.1	863.1

구분	인구 1인당 지출액	분야별 1인당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의정부시	345.2	3127.7	522.6	2168.6	1254.6
이천시	296.7	2633.6	548.1	1584.5	1063.3
파주시	303.3	2623.8	504.2	1656.5	1083.8
평택시	271.3	2832.2	470.8	1475.5	1004.5
포천시	379.5	2991.8	612.0	2033.6	1205.9
하남시	261.6	2484.4	406.5	1764.0	941.1
화성시	201.7	3202.8	423.4	931.4	779.5
평 균	286.7	2773.2	500.2	1591.1	1030.1

- * 인구·저소득층 1인당 지출액 :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인구·저소득층
- * 저소득층·노인·아동 분야 1인당 지출액 : 저소득층·노인·아동 분야 총 지출액/저소득층·노인(60세 이상)·아동(7세 이하) 수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둘째, 저소득층 1인당 지출액 평균은 2773.2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연천군(3363.8천원), 화성시(3202.8천원), 여주시(3168.4천원), 의정부시(3127.7천원), 안양시(3053.5천원), 고양시(3038.7천원), 남양주시(3007.5천원) 등 17개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부천시(1895.1천원), 가평군(2127.3천원), 동두천시(2429.7천원), 하남시(2484.4천원), 의왕시(2502.2천원) 등 14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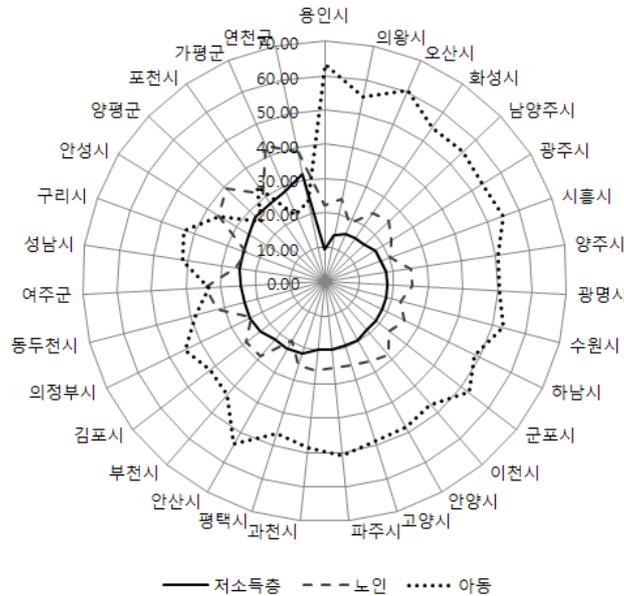
셋째, 노인 1인당 지출액 평균은 500.2천원으로 가평군(775.9천원), 동두천시(742.9천원), 연천군(718.0천원), 안성시(626.8천원), 포천시(612.0천원) 등 13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과천시(310.2천원), 용인시(322.9천원), 의왕시(388.4천원), 성남시(394.0천원), 김포시(403.3천원) 등 18개 시·군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 1인당 지출액 평균은 1591.1천원으로 동두천시(2292.5천원), 의정부시(2168.6천원), 양주시(2157.2천원), 안산시(2076.0천원), 포천

시(2033.6천원) 등 13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은 지출액을 보이는 반면 김포시(895.9천원), 화성시(931.4천원), 과천시(1249.8천원), 성남시(1265.3천원), 용인시(1301.3천원) 등 18개 시·군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2773.2천원)의 1인당 지출액 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동(1591.1천원)과 노인(500.2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 분야의 지출액 모두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과천시, 군포시, 김포시, 양평군, 용인시, 의왕시인 반면 시흥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 세 분야 모두 평균보다 적은 것은 특성을 보였다.

(단위: %)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II-1> 참조.

[그림 III-1] 시·군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 비중(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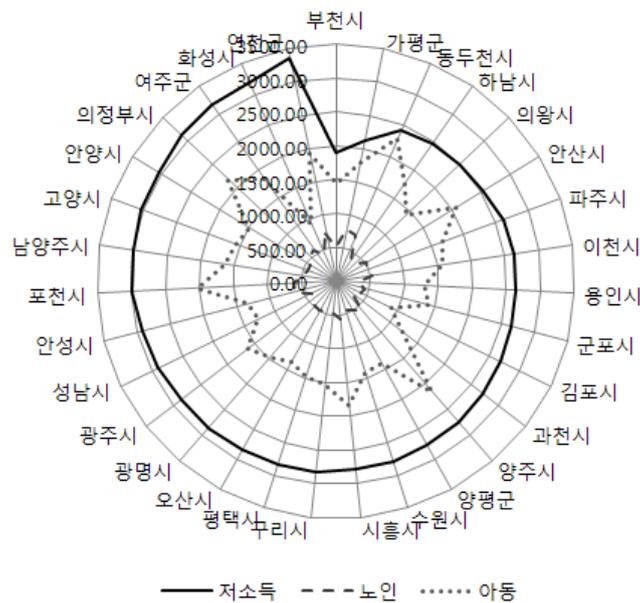
2) 민간

시·군의 사회복지분야별 민간 지출 규모(2012년 결산 기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우선 총 사회복지분야 지출액 평균은 13,629,754천

원으로 성남시(35,051,032천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원시(27,609,341천원), 용인시(24,398,011천원), 부천시(23,858,793천원), 고양시(22,858,793천원), 안산시(21,716,746천원), 남양주시(20,706,199천원) 순으로 나타나 이들 시·군은 2백억 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천군(3,734,002천원), 오산시(5,330,956천원), 하남시(5,520,950천원), 동두천시(5,613,876천원), 의왕시(6,300,910천원), 과천시(6,600,328천원) 등 17개 시·군은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총 지출액을 살펴보면, 첫째, 저소득층 분야 지출액 평균은 1,936,070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성남시(8,083,959천원), 부천시(5,335,912천원), 화성시(5,266,104천원), 고양시(4,654,582천원), 수원시(4,533,860천원), 남양주시(4,181,128천원) 등 총 10개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그 외 과천시(47,343천원), 동두천시(182,811천원), 연천군(200,369천원), 여주시(201,288천원) 등 21개 시·군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원)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Ⅲ-2> 참조.

[그림 Ⅲ-2] 시·군 1인당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둘째, 노인 분야 지출액 평균은 4,219,834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성남시(16,092,892천원), 수원시(10,589,357천원), 가평군(8,325,447천원), 용인시(8,192,051천원), 부천시(7,843,850천원), 화성시(6,252,474천원) 등 9개 시·군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오산시(1,090,783천원), 안성시(1,180,533천원), 여주시(1,485,712천원), 연천군(1,56,194천원), 구리시(1,697,069천원), 동두천시(1,732,199천원) 등 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분야 지출액 평균은 2,114,757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수원시(6,379,467천원), 평택시(5,412,119천원), 안양시(5,119,337천원), 안산시(4,157,114천원), 부천시(3,922,773천원) 등 13개 시·군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연천군(162,231천원), 양평군(251,821천원), 가평군(256,256천원), 오산시(322,098천원), 과천시(481,787천원) 등 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시·군 분야별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총 지출액				분야별 비중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가평군	14,342,307	279,136	8,325,447	256,256	8,860,839	1.9	58.0	1.8	61.8
고양시	22,802,257	4,654,582	2,169,727	3,476,350	10,300,659	20.4	9.5	15.2	45.2
과천시	6,600,328	47,343	2,986,241	481,787	3,515,371	0.7	45.2	7.3	53.3
광명시	11,942,639	2,655,117	3,946,598	1,653,578	8,255,293	22.2	33.0	13.8	69.1
광주시	13,950,301	2,881,297	3,411,805	1,595,286	7,888,388	20.7	24.5	11.4	56.5
구리시	6,908,051	562,702	1,697,069	759,487	3,019,258	8.1	24.6	11.0	43.7
군포시	8,457,513	1,312,963	3,068,356	758,101	5,139,420	15.5	36.3	9.0	60.8
김포시	8,221,408	1,628,458	2,054,851	975,221	4,658,530	19.8	25.0	11.9	56.7
남양주시	20,706,199	4,181,128	4,000,669	3,098,845	11,280,642	20.2	19.3	15.0	54.5
동두천시	5,613,876	182,811	1,732,199	1,529,411	3,444,421	3.3	30.9	27.2	61.4
부천시	23,858,793	5,335,912	7,843,850	3,922,773	17,102,535	22.4	32.9	16.4	71.7
성남시	35,051,302	8,083,959	16,092,892	2,514,252	26,691,103	23.1	45.9	7.2	76.1
수원시	27,609,341	4,533,860	10,589,357	6,379,467	21,502,684	16.4	38.4	23.1	77.9
시흥시	13,135,753	4,094,917	3,457,559	3,711,088	11,263,564	31.2	26.3	28.3	85.7
안산시	21,716,746	2,522,147	6,247,555	4,157,114	12,926,816	11.6	28.8	19.1	59.5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총 지출액				분야별 비중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안성시	8,951,635	1,138,817	1,180,553	1,367,297	3,686,667	12.7	13.2	15.3	41.2
안양시	16,650,207	1,309,771	4,648,245	5,119,337	11,077,353	7.9	27.9	30.7	66.5
양주시	7,573,353	772,385	1,890,116	2,717,578	5,380,079	10.2	25.0	35.9	71.0
양평군	12,094,593	847,348	2,079,704	251,821	3,178,873	7.0	17.2	2.1	26.3
여주시	8,872,174	201,288	1,485,712	2,058,926	3,745,926	2.3	16.7	23.2	42.2
연천군	3,734,002	200,369	1,560,194	162,231	1,922,794	5.4	41.8	4.3	51.5
오산시	5,330,956	1,432,095	1,090,783	322,098	2,844,976	26.9	20.5	6.0	53.4
용인시	24,398,011	1,064,421	8,192,051	2,218,580	11,475,052	4.4	33.6	9.1	47.0
의왕시	6,300,910	323,310	2,980,782	1,128,588	4,432,680	5.1	47.3	17.9	70.3
의정부시	12,222,035	1,018,132	4,354,965	3,273,030	8,646,127	8.3	35.6	26.8	70.7
이천시	13,916,837	245,440	4,218,326	695,431	5,159,197	1.8	30.3	5.0	37.1
파주시	15,081,172	543,048	4,200,977	2,779,457	7,523,482	3.6	27.9	18.4	49.9
평택시	13,894,236	360,469	3,826,136	5,412,119	9,598,724	2.6	27.5	39.0	69.1
포천시	8,774,054	1,294,230	2,877,605	938,656	5,110,491	14.8	32.8	10.7	58.2
하남시	5,521,950	1,044,600	2,352,061	720,586	4,117,247	18.9	42.6	13.0	74.6
화성시	18,289,444	5,266,104	6,252,474	1,122,711	12,641,289	28.8	34.2	6.1	69.1
평균	13,629,754	1,936,070	4,219,834	2,114,757	8,270,661	12.8	30.7	15.5	59.1

- *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자원봉사, 장애인 지출액의 합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비중 값 : (각 사회복지대상자 지출총액/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100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위의 각 분야별 지출액이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첫째, 저소득층 분야의 비중은 평균 12.8%로 시흥시(31.2%), 화성시(28.8%), 오산시(26.9%), 성남시(23.1%), 부천시(22.4%), 광명시(22.2), 광주시(20.7%), 고양시(20.4%) 등 총 14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으며, 그 외 과천시(0.7%), 이천시(1.8%), 가평군(1.9%), 여주시(2.3%), 평택시(2.6%) 등 17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분야의 비중은 평균 30.7%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총 14

개로 가평균(58.0%)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의왕시(47.3%), 성남시(45.9%), 과천시(45.2%), 하남시(42.6%), 연천군(41.8%)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고양시(9.5%), 안성시(13.2%), 여주시(16.7%), 양평군(17.2%), 남양주시(19.3%), 오산시(20.5%) 등 총 17개 시·군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분야의 비중은 평균 15.5%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평택시(39.0%), 양주시(35.9%), 안양시(30.7%), 시흥시(28.3%), 동두천시(27.2%) 등 12개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총 19개로 가평균(1.8%), 양평군(2.1%), 연천군(4.3%), 이천시(5.0%), 오산시(6.0%), 화성시(6.1%), 성남시(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세 분야 중 지출 비중 평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노인(30.7%)이며, 다음으로 아동(15.5%), 저소득층(12.8%)의 순이다.

〈표 Ⅲ-4〉 시·군 분야별 1인당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인구 1인당 지출액	분야별 1인당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가평균	235.1	70.0	506.4	80.4	365.5
고양시	23.0	314.3	16.2	64.5	44.2
과천시	93.5	52.2	289.3	10.0	204.6
광명시	33.8	473.3	82.6	87.8	91.9
광주시	48.7	619.0	82.0	113.4	106.9
구리시	36.4	127.9	66.5	40.0	63.5
군포시	29.5	285.4	86.6	53.7	74.0
김포시	26.3	287.7	44.8	54.2	58.1
남양주시	33.5	475.4	44.6	73.5	69.2
동두천시	57.5	42.2	91.0	24.8	107.4
부천시	27.6	226.4	70.2	88.0	82.3
성남시	35.8	449.4	115.1	117.3	111.9

구분	인구 1인당 지출액	분야별 1인당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수원시	24.0	277.3	82.5	48.3	85.3
시흥시	33.1	594.0	87.6	124.1	127.6
안산시	30.4	141.3	84.3	47.8	81.9
안성시	49.1	225.9	36.0	74.1	65.9
안양시	27.4	156.4	57.4	30.6	78.8
양주시	38.0	159.7	58.7	45.0	92.4
양평군	116.7	250.8	75.1	135.9	84.3
여주시	81.1	65.7	61.0	27.2	103.5
연천군	81.9	92.3	127.9	70.2	109.1
오산시	25.9	498.6	54.7	60.1	56.7
용인시	25.9	160.5	63.3	11.6	47.2
의왕시	39.4	175.7	138.6	24.7	118.9
의정부시	28.4	89.6	64.4	33.0	74.7
이천시	67.7	56.9	134.1	13.6	89.9
파주시	37.5	59.4	68.5	14.5	66.1
평택시	31.4	38.7	58.8	9.6	81.1
포천시	56.0	235.6	94.9	130.5	106.5
하남시	38.1	372.3	97.6	100.4	105.5
화성시	34.5	1018.4	101.2	84.4	88.6
평 균	49.9	261.0	98.1	61.1	98.2

- * 인구·저소득층 1인당 지출액 :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인구·저소득층 인구 수
- * 저소득층·노인·아동 분야 1인당 지출액 : 저소득층·노인·아동 분야 총 지출액/저소득층·노인(60세 이상)·아동(7세 이하) 수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시·군의 분야별 1인당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첫째, 인구 1인당 지출액 평균은 49.9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이 총 8개, 평균보다 낮은 시·군이 총 23개로 평균보다 낮은 시·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인당 지출액이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가평군(235.1천원), 양평군(116.3천원), 과천시(93.5천원), 연천군(81.9천원, 여주시(81.1천원), 이천시(67.7천원) 등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고양시(23.0천원), 수원시(24.0천원), 용인시·오산시(25.9천원), 김포시(26.3천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 1인당 지출액 평균은 261.0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화성시(1017.4천원), 광주시(619.0천원), 시흥시(594.0천원), 오산시(498.6천원), 남양주시(475.4천원), 광명시(473.3천원), 성남시(449.4천원) 등 11개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평택시(38.7천원), 동두천시(42.2천원), 과천시(52.2천원), 이천시(56.9천원), 파주시(59.4천원), 여주시(59.4천원), 가평군(70.0천원) 등 20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1인당 지출액 평균은 98.1천원으로 가평군(506.4천원), 과천시(289.3천원), 의왕시(138.6천원), 이천시(134.1천원), 연천군(127.9천원), 성남시(115.1천원), 화성시(101.2천원) 등 7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양시(16.2천원), 안성시(36.0천원), 남양주시(44.6천원), 김포시(44.8천원), 오산시(54.7천원), 안양시(57.4천원), 양주시(58.7천원) 등 24개 시·군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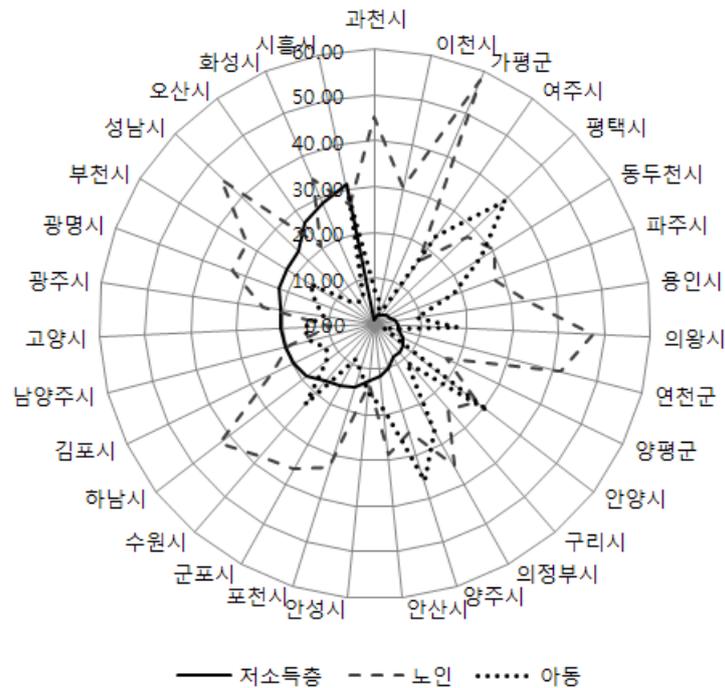
넷째, 아동 1인당 지출액 평균은 61.6천원으로 양평군(135.9천원), 포천시(130.5천원), 시흥시(124.1천원), 성남시(117.3천원), 광주시(113.4천원) 등 14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은 지출액을 보이는 반면 평택시(9.6천원), 과천시(10.0천원), 용인시(11.6천원), 이천시(13.6천원), 파주시(14.5천원), 의왕시(24.7천원) 등 17개 시·군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정리하면, 1인당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 평균은 저소득층(261.0천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98.1천원), 아동(61.1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 위에서 분석한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지출액 대비 분야별 지출액의 비중([그림 III-3]참조)과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그림 III-4]참조)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 및 특징을 살펴보면, 공공 지출액은 저소득층 분야보다 노인과 아동 분야의 지출액이 비중이 월등히 많으며, 특히 아동 분야는 용인시, 의왕시, 오산시 등을 필두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지출액은 저소득층 분야가 시흥시, 화성시에서 지출 비중이 높고 노인과 아동은 시·군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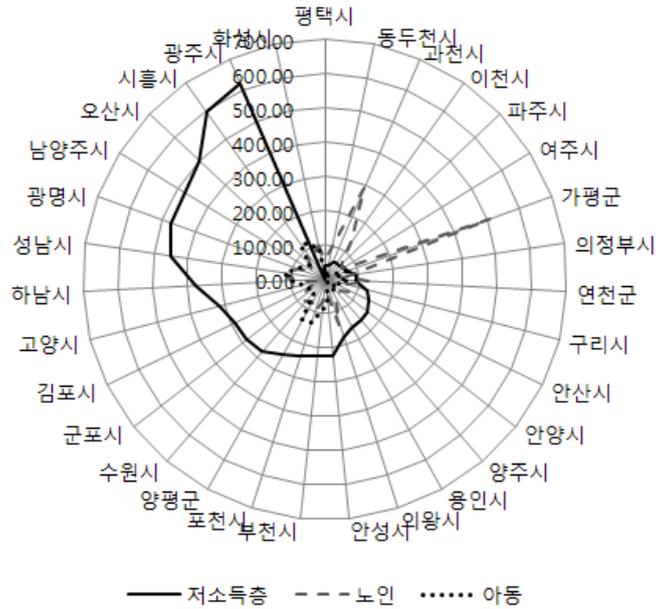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II-3> 참조.

[그림 III-3] 시·군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 비중(2012년 기준)

(단위: 천원)



* 편의상 화성시(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 지출액)를 '0'으로 기입·처리함.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II-4> 참조.

[그림 III-4] 시·군 1인당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3) 전체

시·군의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분야별 지출액을 합한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우선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이 평균 113,530,020천원으로 수원시(276,101,443천원), 고양시(254,149,559천원), 성남시(245,725,943천원), 부천시(224,260,668천원), 안산시(224,021,051천원), 용인시(213,375,792천원) 등 주로 대도시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천시(18,863,510천원), 연천군(26,533,274천원), 의왕시(40,060,391천원), 하남시(43,472,390천원), 가평군(43,969,710천원), 양평군(46,112,419천원) 등 18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공공과 민간의 지출액 합계를 살펴보면, 첫째, 저소득층 분야 지출액 평균은 21,811,486천원으로 성남시(60,266,522천원), 수원시

(50,061,348천원), 부천시(50,009,107천원), 고양시(49,660,290천원), 안산시(47,553,521천원) 등 12개 시·군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과천시(2,501,248천원), 의왕시(4,927,286천원), 연천군(7,506,552천원), 하남시(8,015,855천원), 가평군(8,758,549천원), 오산시(9,615,070천원), 여주시(9,912,282천원)는 1백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분야 지출액 평균은 29,649,105천원으로 성남시(71,173,481천원), 수원시(67,200,025천원), 부천시(64,897,319천원), 용인시(50,007,320천원)가 5백억 원을 상회하며, 그 밖에 남양주시(47,655,904천원), 안산시(45,751,138천원), 의정부시(39,691,806천원) 등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천시(6,188,834천원), 연천군(10,319,439천원), 오산시(11,003,134천원), 의왕시(11,337,812천원), 하남시(12,150,583천원) 등 19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분야 지출액 평균은 50,843,602천원으로 수원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용인시(122,027,492천원), 고양시(116,369,759천원), 안산시(113,730,397천원), 남양주시(96,582,949천원) 등 13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연천군(5,668,265천원), 과천시(6,413,363천원), 가평군(6,506,032천원), 양평군(8,821,566천원), 여주시(15,573,055천원) 등 18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각 분야별 지출액이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첫째, 저소득층 분야의 비중은 평균 19.0%로 연천군(28.3%), 포천시(26.0), 성남시(24.5%), 안성시(24.0%), 김포시(23.2%), 구리시(22.9%) 등 15개 시·군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용인시(8.7%), 의왕시(12.3%), 과천시(13.3%), 이천시(15.5%), 남양주시(16.0%), 오산시(16.3%) 등 16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분야의 비중 평균은 28.0%로 가평군(47.9%), 연천군(38.9%), 양평군(33.5%), 안성시(32.9%), 과천시(32.8%), 동두천시(32.0%) 등 13개 시·군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오산시(18.7%), 안산시(20.4%), 시흥시(21.0%), 광주시(23.0%), 용인시(23.4%), 고양시(24.1%) 등 18개 시·군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분야의 비중 평균은 42.0%로 용인시(57.2%), 오산시(55.8%), 시흥시(52.2%), 안산시(50.8%), 남양주시(50.5%), 수원시(50.2%), 양주시(49.2%) 등 18개 시·군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가평군(14.8%), 양평군(19.1%), 연천군(21.4%), 포천시(30.9%), 여주시(31.7%) 등 13개 시·군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세 분야 중 지출 비중 평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아동(42.0%)이며, 다음으로 노인(28.0%), 저소득층(19.0%)순이다.

둘째, 저소득층과 노인 분야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아동 분야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연천군, 안성시, 포천시, 부천시, 성남시는 저소득층과 노인 분야 지출 비중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아동 분야 지출 비중은 낮으며, 용인시, 오산시, 남양주시는 노인과 저소득층 분야 지출 비중은 적은 반면 아동 분야 지출 비중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Ⅲ-5〉 시·군 분야별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총 지출액				분야별 비중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가평군	43,969,710	8,758,549	21,082,222	6,506,032	36,346,803	19.9	47.9	14.8	82.7
고양시	254,149,559	49,660,290	61,340,441	116,369,759	227,370,490	19.5	24.1	45.8	89.5
과천시	18,863,510	2,501,248	6,188,834	6,413,363	15,103,445	13.3	32.8	34.0	80.1
광명시	100,376,776	18,671,761	26,398,637	46,204,920	91,275,318	18.6	26.3	46.0	90.9
광주시	91,386,203	16,222,365	20,986,736	43,103,188	80,312,289	17.8	23.0	47.2	87.9
구리시	56,717,067	12,972,675	13,775,938	22,284,262	49,032,875	22.9	24.3	39.3	86.5
군포시	73,920,129	13,486,465	18,446,910	35,234,213	67,167,588	18.2	25.0	47.7	90.9
김포시	72,847,483	16,884,190	20,565,362	27,916,546	65,366,098	23.2	28.2	38.3	89.7
남양주시	191,085,341	30,631,728	47,655,904	96,582,949	174,870,581	16.0	24.9	50.5	91.5
동두천시	49,578,401	10,701,071	15,880,181	18,462,053	45,043,305	21.6	32.0	37.2	90.9
부천시	224,260,668	50,009,107	64,897,319	90,857,136	205,763,562	22.3	28.9	40.5	91.8
성남시	245,725,943	60,266,522	71,173,481	89,710,426	221,150,429	24.5	29.0	36.5	90.0
수원시	276,101,443	50,061,348	67,200,025	138,517,557	255,778,930	18.1	24.3	50.2	92.6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총 지출액				분야별 비중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시흥시	123,351,008	23,311,293	25,854,546	64,411,890	113,577,729	18.9	21.0	52.2	92.1
안산시	224,021,051	47,553,521	45,751,138	113,730,397	207,035,056	21.2	20.4	50.8	92.4
안성시	66,030,410	15,848,514	21,738,371	21,840,865	59,427,750	24.0	32.9	33.1	90.0
안양시	148,602,484	26,888,871	39,589,462	68,929,034	135,407,367	18.1	26.6	46.4	91.1
양주시	80,738,440	14,015,619	20,438,623	39,757,039	74,211,281	17.4	25.3	49.2	91.9
양평군	46,112,419	10,164,339	15,429,348	8,821,566	34,415,253	22.0	33.5	19.1	74.6
여주시	49,169,633	9,912,282	15,325,459	15,573,055	40,810,796	20.2	31.2	31.7	83.0
연천군	26,533,274	7,506,552	10,319,439	5,668,265	23,494,256	28.3	38.9	21.4	88.5
오산시	58,896,363	9,615,070	11,003,134	32,870,568	53,488,772	16.3	18.7	55.8	90.8
용인시	213,375,792	18,573,879	50,007,320	122,027,492	190,608,691	8.7	23.4	57.2	89.3
의왕시	40,060,391	4,927,286	11,337,812	19,639,345	35,904,443	12.3	28.3	49.0	89.6
의정부시	160,998,880	36,548,401	39,691,806	70,227,294	146,467,501	22.7	24.7	43.6	91.0
이천시	74,889,901	11,614,492	21,459,157	29,351,566	62,425,215	15.5	28.7	39.2	83.4
파주시	136,916,231	24,545,673	35,106,030	64,796,636	124,448,339	17.9	25.6	47.3	90.9
평택시	133,831,097	26,728,265	34,480,830	60,964,482	122,173,577	20.0	25.8	45.6	91.3
포천시	68,203,019	17,730,949	21,441,722	21,101,795	60,274,466	26.0	31.4	30.9	88.4
하남시	43,472,390	8,015,855	12,150,583	19,065,976	39,232,414	18.4	28.0	43.9	90.2
화성시	125,245,593	21,827,878	32,405,497	59,211,985	113,445,360	17.4	25.9	47.3	90.6
평균	113,530,020	21,811,486	29,649,105	50,843,602	102,304,193	19.0	28.0	42.0	89.0

- *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자원봉사, 장애인 지출액의 합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비중 값 : (각 사회복지대상자 지출총액/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100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지출액을 합한 결과 즉, 시·군별 인구와 사회복지대상자 1인당 얼마의 재정을 지출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첫째, 인구 1인당 지출액 평균은 336.7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이 총 11개, 평균보다 낮은 시·군이 총 20개로 평균보다 낮은 시·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가평군(720.6천원), 연천군

(581.7천원), 동두천시(508.2천원), 여주시(449.7천원), 양평군(445.0천원), 포천시(435.5천원) 등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용인시(226.6천원), 김포시(233.3천원), 화성시(236.2천원), 수원시(240.5천원), 안양시(244.5천원), 의왕시(250.7천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 1인당 지출액 평균은 3034.2천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화성시(4221.2천원), 광주시(3484.9천원), 남양주시(3482.9천원), 연천군(3456.1천원), 시흥시(3381.4천원), 고양시(3352.9천원) 등 15개이며, 평균보다 낮은 시·군은 부천시(2121.5천원), 가평군(2197.3천원), 동두천시(2471.9천원), 안산시(2665.0천원), 의왕시(2677.9천원), 파주시(2683.2천원) 등 16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1인당 지출액 평균은 598.3천원으로 가평군(1282.2천원), 연천군(845.9천원), 동두천시(833.9천원), 포천시(706.8천원), 이천시(682.2천원), 안성시(662.8천원) 등 11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용인시(386.2천원), 김포시(448.1천원), 고양시(459.2천원), 안양시(488.8천원), 하남시(504.0천원), 광주시(504.5천원) 등 20개 시·군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 1인당 지출액 평균은 1671.5천원으로 동두천시(2499.6천원), 양주시(2315.5천원), 의정부시(2274.6천원), 안산시(2154.7천원), 포천시(2128.3천원), 여주시(2107.9천원) 등 13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은 지출액을 보이는 반면 김포시(928.3천원), 화성시(949.4천원), 성남시(1301.8천원), 용인시(1325.4천원), 과천시(1351.3천원), 오산시(1379.1천원) 등 18개 시·군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정리하면, 1인당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평균은 저소득층(3034.2천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동(1671.5천원), 노인(598.3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6〉 시·군 분야별 1인당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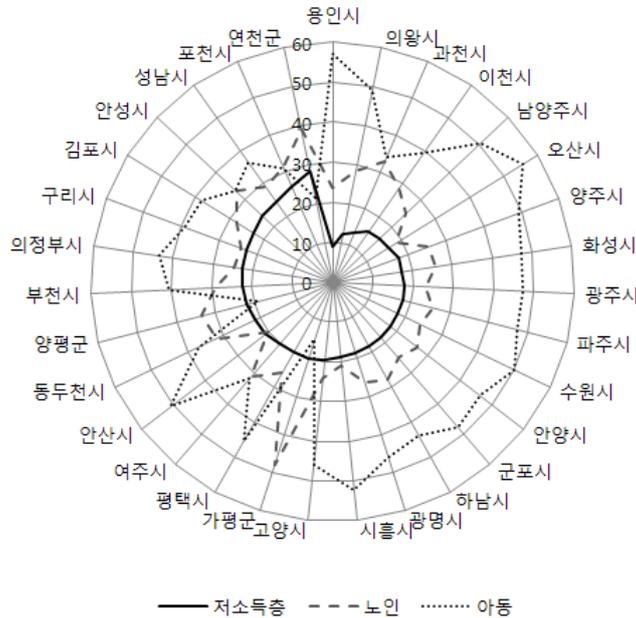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인구 1인당 지출액	분야별 1인당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가평군	720.6	2197.3	1282.2	1873.9	446.3
고양시	256.6	3352.9	459.2	1612.5	199.6
과천시	267.3	2757.7	599.5	1351.3	184.6
광명시	284.3	3328.3	552.7	1528.3	224.6
광주시	318.8	3484.9	504.5	1696.7	241.2
구리시	299.0	2948.3	540.0	1584.3	223.3
군포시	258.2	2931.2	520.4	1441.7	205.8
김포시	233.3	2983.1	448.1	928.3	179.6
남양주시	309.0	3482.9	531.7	1698.4	244.0
동두천시	508.2	2471.9	833.9	2499.6	372.5
부천시	259.6	2121.5	580.5	1498.2	206.0
성남시	250.9	3350.4	509.1	1301.8	194.4
수원시	240.5	3062.2	523.8	1476.4	197.8
시흥시	310.9	3381.4	655.3	1952.6	256.3
안산시	313.9	2665.0	617.5	2154.7	257.0
안성시	362.5	3143.3	662.8	1421.9	270.1
안양시	244.5	3209.8	488.8	1611.6	194.2
양주시	405.4	2898.2	635.2	2315.5	314.2
양평군	445.0	3008.1	556.9	1415.1	255.5
여주시	449.7	3234.0	628.8	2107.9	298.4
연천군	581.7	3456.1	845.9	1984.7	391.7
오산시	286.7	3347.9	551.3	1379.1	234.3
용인시	226.6	2800.2	386.2	1325.4	176.9
의왕시	250.7	2677.9	527.0	1498.2	196.1
의정부시	373.6	3217.3	587.0	2274.6	287.2
이천시	364.5	2690.4	682.2	1623.0	258.8
파주시	340.8	2683.2	572.7	1730.8	263.6

구분	인구 1인당 지출액	분야별 1인당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	합계
평택시	302.8	2870.9	529.6	1619.2	236.6
포천시	435.5	3227.3	706.8	2128.3	313.2
하남시	299.6	2856.7	504.0	1833.3	228.1
화성시	236.2	4221.2	524.6	949.4	190.0
평 균	336.7	3034.2	598.3	1671.5	249.7

- * 인구·저소득층 1인당 지출액 :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인구·저소득층 인구 수
- * 저소득층·노인·아동 분야 1인당 지출액 : 저소득층·노인·아동 분야 총 지출액/저소득층·노인(60세 이상)·아동(7세 이하) 수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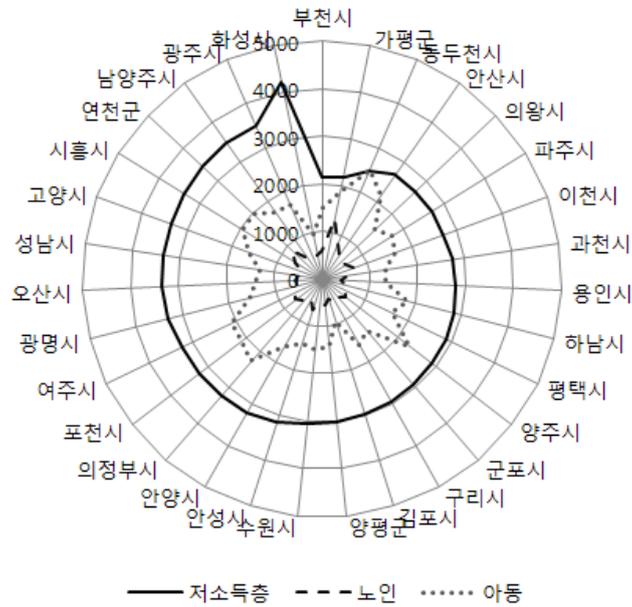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II-5> 참조

[그림 III-5] 시·군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비중(2012년 기준)

(단위: 천원)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II-6> 참조.

[그림 III-6] 시·군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2012년 기준)

2 인력

1) 공공

공공부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인력은 사회복지 직렬인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자원의 총량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전체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래 <표 III-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총 인력은 시·군·구 2,651명, 읍·면·동 1,401명으로 시·군·구가 읍·면·동의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 인력 또한 시·군·

구 20.1명, 읍·면·동 2.6명으로 시·군·구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읍·면·동보다 시·군·구에 사회복지업무 수행 인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7〉 공공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총 인력 수	평균 인력 수
시·군·구	2,651	20.1
읍·면·동	1,401	2.6

*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3.6.30 기준)

위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인구와 저소득층을 몇 명 담당하는지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8>과 같다. 첫째, 시·군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수 전체 평균은 253명이며, 성남시(283명), 고양시(262명), 부천시(258명), 수원시(246명)와 같은 대도시가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과천시(41명), 가평군(55명), 의왕시(62명), 하남시·양평군(63명), 오산시(68명), 연천군·동두천시(69명), 구리시(70명) 등 16개 시·군은 백 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평균 2,710명으로 수원시(4,667명), 용인시(4,319명), 시흥시(4,090명), 김포시(4,056명), 고양시(3,781명), 안양시(3,707명), 남양주시(3,680명) 등 12개 시·군이 3천명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 연천군(661명), 가평군(1,109명), 포천시(1,362명), 동두천시(1,414명), 여주시(1,439명), 양평군(1,645명) 등 19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저소득층은 평균 53명으로 부천시(91명), 안산시(87명), 김포시(74명), 가평군(72명), 시흥시(71명) 등 15개 시·군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화성시·과천시(22명), 의왕시·용인시(30명), 연천군(31명), 여주시(40명) 등 16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시·군 공공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인구(2013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	구분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
가평균	55	1,109	안양시	164	3,707
고양시	262	3,781	양주시	82	2,429
과천시	41	1,721	양평군	63	1,645
광명시	121	2,918	여주시	76	1,439
광주시	96	2,986	연천군	69	661
구리시	70	2,710	오산시	68	3,021
군포시	90	3,182	용인시	218	4,319
김포시	77	4,056	의왕시	62	2,577
남양주시	168	3,680	의정부시	186	2,317
동두천시	69	1,414	이천시	90	2,283
부천시	258	3,348	파주시	142	2,829
성남시	283	3,461	평택시	171	2,585
수원시	246	4,667	포천시	115	1,362
시흥시	97	4,090	하남시	63	2,303
안산시	205	3,481	화성시	239	2,219
안성시	106	1,719	평 균	253	2,710

- * 인구·저소득층 대비 복지업무 수행인력 : 인구·저소득층/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전체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 자료, 2013.12.31.일 기준;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3.10.31. 기준.

2) 민간

민간부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인력은 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이다. 여기에서는 민간 인력을 저소득층, 아동, 노인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관련한 자세한 자료

설명은 아래 프로그램부분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민간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인구와 저소득층을 각각 몇 명 담당하는지 시·군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9>와 같다. 첫째, 시·군의 민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수 전체 평균은 457명이며,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수원시(2,348명), 고양시(1,942명), 성남시(1,718명), 남양주시(1,332명), 시흥시(1,099명), 부천시(1,014명) 등 20개 시·군이며 연천군(188명), 양평군(195명), 포천시(250명), 과천시(263명) 등 11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평균 352명으로 부천시(852명), 안산시(776명), 안양시(647명), 구리시(645명) 등 19개 시·군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가평군(121명), 양평군(126명), 여주시(153명) 등 12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소득층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 평균은 765명이며 구리시(4,400명), 가평군(3,986명), 안성시(2,521명), 동두천시(2,165명) 등 10개 시·군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과천시·광주시·남양주시·여주시·연천군은 저소득층 관련 기관이 없으며 광명시(47명), 시흥시(55명), 고양시(99명) 등 16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노인 평균은 114명으로 구리시(250명), 부천시(188명), 성남시(174명), 안산시(167명) 등 11개 시·군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동두천시(40명), 시흥시(57명), 가평군(61명), 연천군(68명) 등 19개 시·군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아동수 평균은 570명으로 평택시(1,711명), 오산시(1,083명), 군포시(1,063명)는 1천명이 넘는 반면 여주시(148명), 동두천시(154명), 의왕시(185명)는 3백명 미만으로 적게 나타났다.

위 결과를 정리하면, 각 분야의 평균노인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노인(114명) 수에 비해 저소득층(765명)과 아동(570명)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대상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별 특성을 살펴보면, 평택시는 세 분야 모두 민간 인력 1인당 담당하는 대상수가 평균이상이고, 가평군, 동두천시, 여주시는 저소득층 관련 기관 직

원은 담당 저소득층이 많은 반면 노인과 아동은 매우 적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광명시는 노인과 아동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대상 수는 많으나 저소득층은 매우 적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9〉 시·군 민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인구(2013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	저소득층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수	노인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노인수	아동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아동수
가평균	505	121	3986	61	316
고양시	1,942	510	99	100	820
과천시	263	268	기관 없음	76	593
광명시	612	577	47	156	840
광주시	811	354	기관 없음	83	577
구리시	294	645	4400	250	335
군포시	499	574	256	105	1063
김포시	897	348	195	98	683
남양주시	1,332	464	기관 없음	96	490
동두천시	593	165	2165	40	154
부천시	1,014	852	714	188	343
성남시	1,718	570	103	174	570
수원시	2,348	489	188	114	536
시흥시	1,099	361	55	57	412
안산시	920	776	372	167	409
안성시	548	332	2521	110	366
안양시	782	647	182	165	737
양주시	417	284	440	103	365
양평군	195	126	1126	100	390
여주시	321	153	기관 없음	104	148
연천군	188	154	기관 없음	68	571
오산시	501	438	191	107	1083
용인시	737	630	166	161	822
의왕시	426	378	1840	132	185
의정부시	445	310	299	103	372

구분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	저소득층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저소득층수	노인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노인수	아동 관련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아동수
이천시	319	296	1439	84	786
파주시	353	353	366	86	407
평택시	624	572	1330	123	1711
포천시	250	161	162	72	310
하남시	485	355	935	116	452
화성시	718	549	144	125	832
평 균	457	352	765	114	570

* 민간 인력 1인당 담당 인구·저소득층 : 인구·저소득층/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전체
 * 저소득층·노인·아동 기관 직원 1인당 담당 노인·아동수 : 저소득층·노인·아동수/저소득층(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마켓, 지역사회활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 ·노인·아동 관련 기관 직원 수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 자료, 2013.12.31.일 기준;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3.10.31. 기준.

3) 전체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0>과 같다. 우선 시·군별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인구와 저소득층을 몇 명 담당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시·군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수 전체 평균은 936명이며, 수원시(2,594명), 고양시(2,204명), 성남시(2,001명), 남양주시(1,500명), 용인시(1,496명), 파주시(1,280명), 부천시(1,272명) 등 13개 시·군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과천시(304명), 연천군(311명), 하남시(362명), 구리시(364명), 여주시(417명), 의왕시(437명), 오산시(478명) 등 18개 시·군은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평균 386명으로 부천시(679명), 안양시(646명), 안산시(634명), 용인시(629명), 화성시(543명), 구리시(521명) 등 15개 시·군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가평군(109명), 연천군(147명), 동두천시(147명), 양평군(174명), 포천시(211명) 등 16개 시·군은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저소득층은 평균 8명으

로 부천시(19명), 안산시(16명), 구리시(12명), 평택시(11명), 의정부시(10명) 등 8개 시·군은 평균 이상이며, 그 외 시·군은 8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정리하면,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성남시, 안양시는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와 저소득층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시·군 전체 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인구(2013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구분	전체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인구수	담당 저소득층			담당 인구수	담당 저소득층
가평균	560	109	7	안양시	941	646	9
고양시	2,204	449	7	양주시	560	356	9
과천시	304	232	3	양평군	595	174	6
광명시	733	482	8	여주시	417	262	7
광주시	907	316	5	연천군	311	147	7
구리시	364	521	12	오산시	478	430	6
군포시	589	486	8	용인시	1,496	629	4
김포시	974	321	6	의왕시	437	366	4
남양주시	1,500	412	6	의정부시	1,154	373	10
동두천시	662	147	7	이천시	735	280	6
부천시	1,272	679	19	파주시	1,280	314	7
성남시	2,001	490	9	평택시	879	503	11
수원시	2,594	443	6	포천시	741	211	7
시흥시	1,196	332	6	하남시	362	401	8
안산시	1,125	634	16	화성시	977	543	5
안성시	654	279	8	평균	936	386	8

* 인구·저소득층 대비 복지업무 수행인력 : 인구·저소득층/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전체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 자료, 2013.12.31.일 기준;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3.10.31. 기준.

3 프로그램

앞에서는 복지자원의 구분 중 재정과 인력부분을 살펴보았고, 이를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우 민간자원에 집중해서 살펴본다. 이는 공공프로그램은 주로 법정급여 즉 현금지급에 집중되어 있고 저소득층의 규모, 해당지역의 복지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현황이나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다른 복지재정항목의 자원집중도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프로그램은 민간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민간프로그램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첫째, 민간복지기관의 현황이다. 이는 민간복지기관이 지역에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민간복지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민간복지기관⁴⁾

민간기관의 분류는 앞에서 제시했듯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해서 직접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기관을 그대로 분류하자면, 아동관련 기관은 12종류에 해당되며, 노인이나 장애인 역시 기관 종류가 다양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민간기관을 대상자별 즉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민간기관의 현황을 살펴본다.

아래 <표 III-11>은 전체 민간기관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노인관련기관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아동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이 뒤따르고 있다.

4) 복지자원 중 민간복지기관 현황과 관련된 장은 문진영 외(2014 발간예정), '경기도 복지실태 및 수준분석'장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표 Ⅲ-11〉 전체 민간복지기관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소수)

시·군	종합 복지관	아동 관련 기관	노인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한부모 관련 기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기관	정신 보건 관련 기관	식품 기부 관련 기관	자활 고용 관련 기관	여성 관련 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기타
합 계	86	851	2374	554	11	79	71	95	32	105	128	343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3); 31개 시·군 내부자료(2013).

시·군별로 민간 기관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Ⅲ-12>와 같다. 경기도 전체에 종합복지관 즉 종합복지관이나 복지회관은 86개 설치되어 있다. 가평이나 광주 등 경기도내 9개 지역에는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성남은 27개 설치되어 있다. 종합복지관은 5개이지만, 복지회관이 다수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동 관련 기관은 경기도 전체에 851개소 설치되어 있다.

〈표 Ⅲ-12〉 시·군 복지기관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소수)

시·군	종합 복지관	아동 관련 기관	노인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한부모 관련 기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기관	정신 보건 관련 기관	식품 기부 관련 기관	자활 고용 관련 기관	여성 관련 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기타
가평군	0	7	41	7	0	0	1	2	0	3	4	4
고양시	11	45	167	50	0	0	4	6	1	4	2	1
과천시	1	6	13	4	0	0	1	1	0	2	1	4
광명시	3	23	43	11	0	0	1	3	1	5	2	29
광주시	0	26	70	28	0	5	1	4	1	2	0	7
구리시	1	16	34	11	0	0	1	2	1	2	0	1
군포시	3	18	80	11	1	2	1	1	1	2	2	11
김포시	1	19	81	24	0	1	1	3	1	4	1	18
남양주시	0	62	199	24	0	2	2	8	1	3	4	14
동두천시	0	13	72	6	1	2	1	1	0	2	2	6
부천시	11	70	105	33	0	7	3	3	3	6	10	13
성남시	27	62	79	44	1	10	6	6	2	5	10	32
수원시	4	63	221	36	2	6	12	5	3	7	22	77
시흥시	6	49	116	4	0	2	2	5	2	5	6	21

시·군	종합 복지관	아동 관련 기관	노인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한부모 관련 기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기관	정신 보건 관련 기관	식품 기부 관련 기관	자활 고용 관련 기관	여성 관련 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기타
안산시	4	96	118	15	0	6	2	2	2	4	12	7
안성시	1	17	61	21	0	2	2	3	1	3	4	11
안양시	3	26	48	13	0	3	2	2	1	4	4	4
양주시	0	17	38	12	0	3	1	2	1	3	2	1
양평군	1	11	52	14	0	1	1	3	1	3	5	1
여주시	0	13	41	10	2	0	1	3	1	3	1	1
연천군	0	3	31	4	0	0	1	1	0	2	1	1
오산시	2	11	16	11	0	1	4	1	1	3	4	23
용인시	1	30	107	39	2	5	1	5	1	3	1	1
의왕시	0	13	24	9	0	3	1	1	0	3	5	29
의정부시	1	37	68	17	1	7	3	2	1	6	8	5
이천시	0	17	75	17	0	2	1	4	0	3	7	5
파주시	1	16	132	18	0	5	2	4	1	2	1	4
평택시	1	11	67	14	0	0	3	4	1	3	0	1
포천시	1	12	104	17	0	2	1	2	1	3	6	1
하남시	1	11	32	10	0	2	1	2	1	2	1	3
화성시	1	31	74	20	1	0	7	4	1	3	0	7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3); 31개 시·군 내부자료(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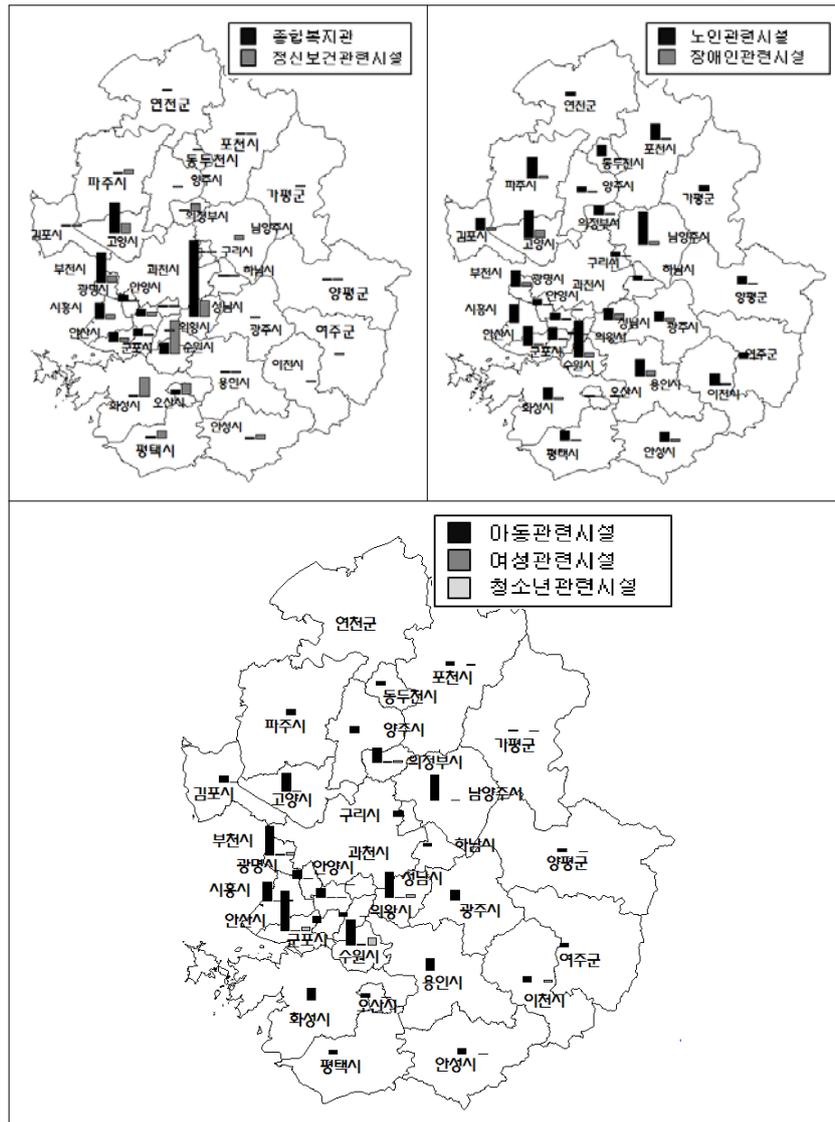
이를 지도로 표현한 것이 아래 [그림 III-7]이다. 종합복지관과 정신보건관련기관에 대한 지도를 보면 성남, 고양, 부천, 광명, 시흥, 수원 등 남부도시지역 중심으로 종합복지관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남부권역의 경우 종합복지관이 정신보건관련기관보다 많지만, 수원은 정신보건관련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지도를 보면, 노인관련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그 수가 많다. 장애인관련기관의 경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가 상대적으로 많다.

아동, 여성, 청소년관련기관에 대한 지도를 보면, 아동 관련 기관이 북부와 남부의 도시지역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청소년관련기관은 수원

시에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 외의 지역의 경우 청소년, 여성 관련 기관의 상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배치되어 있다.

(단위: 개소수)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3); 31개 시·군 내부자료(2013).

[그림 Ⅲ-7] 시·군 민간복지기관 분포현황(2013년 기준)

인구 대비 민간복지기관 비율이 아래 <표 Ⅲ-13>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첫째, 전체 인구 대비 전체 민간기관의 비율이 가평균 11.3%, 동두천시 10.9%, 연천과 포천 9.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양시 2.9%, 성남시 2.9%, 화성시 2.8%, 평택시 2.4%, 용인시 2.1%, 안양시 1.8%로 나타나고 있다. 가평균, 연천군과 같이 농촌지역이 인구 대비 민간복지기관비율이 높고, 고양시나 성남시와 같이 도시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인구 대비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저소득층인구 대비 종합복지관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평,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이천시의 경우 종합복지관이 아예 없다. 그 외의 경우 과천, 성남시가 저소득층 대비 종합복지관비율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7세 이하 아동대비 아동관련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가평이 20.2%, 안산시 18.2%, 동두천과 양평, 여주는 17.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안산시 과 동두천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아동인구가 적은 지역이 인구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평택시 2.9%, 용인시 3.3%, 파주시 4.3%, 오산시 4.6%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도시지역 중심으로 아동인구가 많다보니 아동 대비 기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60세 이상 인구대비 노인관련기관의 비율을 살펴보면, 동두천시 37.8%, 포천시 34.3%, 시흥시 29.4%, 연천군 25.4%, 가평 24.9%로 나타났다. 농촌지역과 함께 시흥시와 포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 노인 대비 노인관련기관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표 Ⅲ-13〉 시·군 대상자 대비 기관비율(2013년 기준)

(단위: %)

구분	인구대비 전체 민간복지기관 비율	저소득층 대비 종합복지관 비율	7세 이하 아동대비 아동기관 비율	60세 이상 노인대비 노인기관 비율
가평균	11.3		20.2	24.9
고양시	2.9	7.4	6.2	12.5
과천시	4.7	11.0	12.6	12.6
광명시	3.4	5.3	7.6	9.0
광주시	5.0		10.2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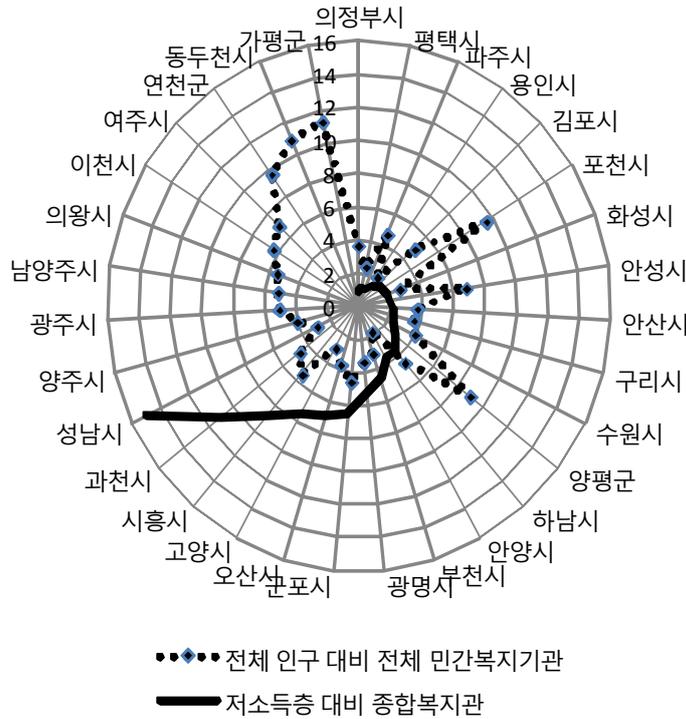
구분	인구대비 전체 민간복지기관 비율	저소득층 대비 종합복지관 비율	7세 이하 아동대비 아동기관 비율	60세 이상 노인대비 노인기관 비율
구리시	3.6	2.3	11.4	13.3
군포시	4.6	6.5	7.4	22.6
김포시	4.9	1.8	6.3	17.6
남양주시	5.2		10.9	22.2
동두천시	10.9		17.6	37.8
부천시	3.1	4.7	11.5	9.4
성남시	2.9	15.0	9.0	5.7
수원시	4.0	2.4	6.7	17.2
시흥시	5.5	8.7	14.9	29.4
안산시	3.8	2.2	18.2	15.9
안성시	6.9	2.0	11.1	18.6
안양시	1.8	3.6	6.1	5.9
양주시	4.0		9.9	11.8
양평군	9.0	3.0	17.6	18.8
여주시	7.0		17.6	16.8
연천군	9.6		10.5	25.4
오산시	3.7	7.0	4.6	8.0
용인시	2.1	1.5	3.3	8.3
의왕시	5.5		9.9	11.2
의정부시	3.6	0.9	12.0	10.1
이천시	6.4		9.4	23.8
파주시	4.6	1.1	4.3	21.5
평택시	2.4	1.1	2.9	10.3
포천시	9.6	1.8	12.1	34.3
하남시	4.5	3.6	10.6	13.3
화성시	2.8	1.9	5.0	12.0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기관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 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III-8], [그림 III-9]와 같다. 의정부시, 평택시는 전반적으로 민간복지기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포천, 안성, 양평, 군포의 경우 인구 대비 민간비율은 높지만, 저소득층 대비 복지관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남 이후 저소득층 대비 종합복지관비율은 0으로 나타났지만,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여주시의 경우 인구대비 민간복지기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동 및 노인과 관련된 기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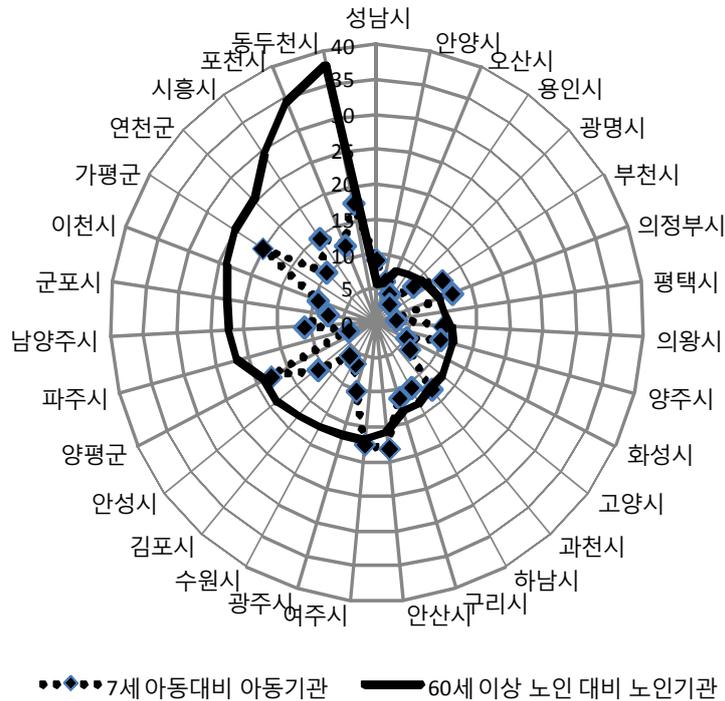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II-13> 참조.

[그림 III-8] 시·군 민간기관, 종합복지관 비율(2013년 기준)

7세 대상 아동대비 아동기관, 60세 이상 노인대비 노인기관 비율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의정부, 안산, 여주의 경우 노인관련기관비율보다 아동대상기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동두천, 포천, 시흥, 연천, 가평은 노인 대비 노인기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II-13> 참조.

[그림 III-9] 시·군 아동기관, 노인기관 비율(2013년 기준)

2) 민간프로그램

민간프로그램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시되어 있는 범주에 따라 총 대범주 9개, 중범주 43개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총 모집단 4,714개 중 3,497개 기관이 응답하여 전체 모집단 대비 응답률이 68.1%로 상당히 높

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식품기부와 관련된 기관과 기타기관의 경우 응답률이 50%가 되지 않는 등 지역에 따라 기관유형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가 있다.

이런 응답률의 차이는 집중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결과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 즉 응답률이 높은 시·군은 응답률이 낮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프로그램이 많고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양적연구 과정에서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률을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으로 응답률을 50%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실제 응답률을 우선 살펴보면, 전체 평균적으로 68.1%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률이 70%이상인 지역은 가평, 고양, 과천시, 군포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포천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파주시는 응답률이 가장 낮은 46%로 나타나고 있다. 파주시를 제외하고 타 시·군은 전체 모집단의 50%만이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조정하였다.

〈표 Ⅲ-14〉 시·군 민간자원조사응답기관 현황

	기관현황	응답한 기관		응답률 조정 사례수	
	(A)	(B)	비율(%)	(C)	비율(%)
가평군	69	49	71.0	35	50.7
고양시	291	212	72.9	146	50.2
과천시	33	28	84.8	17	51.5
광명시	121	64	52.9	61	50.4
광주시	144	94	65.3	72	50.0
구리시	69	41	59.4	35	50.7
군포시	133	130	97.7	67	50.4
김포시	154	101	65.6	77	50.0
남양주시	319	196	61.4	160	50.2

	기관현황	응답한 기관		응답률 조정 사례수	
	(A)	(B)	비율(%)	(C)	비율(%)
동두천시	106	81	76.4	53	50.0
부천시	264	166	62.9	132	50.0
성남시	284	218	76.8	142	50.0
수원시	458	300	65.5	229	50.0
시흥시	218	134	61.5	109	50.0
안산시	268	239	89.2	134	50.0
안성시	126	86	68.3	63	50.0
안양시	110	83	75.5	55	50.0
양주시	80	62	77.5	40	50.0
양평군	93	64	68.8	47	50.5
여주시	76	61	80.3	38	50.0
연천군	44	29	65.9	22	50.0
오산시	77	55	71.4	39	50.6
용인시	196	125	63.8	98	50.0
의왕시	88	48	54.5	44	50.0
의정부시	156	115	73.7	78	50.0
이천시	131	72	55.0	66	50.4
파주시	186	86	46.2	86	46.2
평택시	105	59	56.2	53	50.5
포천시	150	110	73.3	75	50.0
하남시	66	42	63.6	33	50.0
화성시	149	93	62.4	75	50.3
합 계	4764	3243	68.1	2381	50.0

또한 아래 <표 III-15>는 기관유형별로 모집단, 응답기관수와 비율, 응답률 조정된 값에 따른 사례수를 표시한 것이다. 실제 응답율을 아동관련기관이 84.3%, 장애인관련기관이 83.4%, 청소년관련기관이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식품기부와 관련된 기관의 응답률이 42.1%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응답율을 조정한 이후에는 일정정도 응답률의 차

가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응답율이 높은 것은 여전히 아동관련 기관과 청소년관련기관으로 나타났고 식품기부와 관련해서는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기관의 경우 응답율이 45%~55% 사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5〉 기관유형별 응답기관 현황

시·군	기관현황(A)	응답기관 현황(B)		응답률 조정 사례수(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종합사회복지관	86	62	72.1	47	54.7
아동 관련 기관	851	717	84.3	526	61.8
노인 관련 기관	2374	1476	62.2	1087	45.8
장애인 관련 기관	554	462	83.4	325	58.7
한부모 관련 기관	11	7	63.6	5	45.5
성매매, 성폭력, 가정	79	47	59.5	33	41.8
정신보건 관련 기관	71	48	67.6	41	57.7
식품기부 관련 기관	95	40	42.1	26	27.4
자활센터	32	21	65.6	15	46.9
여성 관련 기관	105	73	69.5	61	58.1
청소년 관련 기관	128	120	93.8	99	77.3
기 타	343	170	49.6	116	33.8
합 계	4729	3243	68.6	2381	50.3

* 음영: 응답률 높은 시·군.

아래에서는 응답률이 조정된 사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기관유형별 프로그램현황이 <표 Ⅲ-16>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률 50%로 조정된 응답값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보다는 각 기관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의하면, 첫째, 주거지원프로그램은 노인관련기관 48개, 장애인관련기관이 가장 많은 135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관련기관의 경우 주거지원관련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둘째,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노인관련기관이 53개, 장애인관련기관이 92개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관련기관도 3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의 프로그램은 아동관련기관이 가장 많은 1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관련기관이 12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권익보장 및 법률관련프로그램은 아동관련기관이 3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은 아동관련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381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역시 아동관련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수가 가장 많은 487개로 나타났다.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은 노인관련기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946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기관유형별 복지프로그램

(단위: 개수)

구분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14	14	18	8	41	22	38	8	25
아동 관련 기관	29	18	140	35	381	196	487	67	65
노인 관련 기관	48	53	122	13	135	171	25	946	177
장애인 관련 기관	135	92	78	27	134	78	85	63	35
한부모 관련 기관	5	-	-	-	-	-	-	-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5	1	1	2	1	29	1	2	1
정신보건 관련 기관	3	18	20	5	27	40	12	6	8
식품기부 관련 기관	-	-	-	-	-	1	-	-	26
자활고용 관련 기관	2	14	2	1	2	4	2	4	4
여성 관련 기관	-	32	5	9	23	32	33	1	7
청소년 관련 기관	18	13	8	5	50	30	55	7	12
기 타	10	30	24	7	30	31	54	11	16
합 계	269	285	418	112	824	634	792	1115	376

* 음영 : 프로그램별로 비중이 높은 2가지 사업임.

아래 <표 III-17>은 기관 내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첫째, 전체를 살펴보면,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이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이 17.1%,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이 16.4%로 나타났다.

둘째, 종합복지관의 경우 문화 및 여가관련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21.8%로 나타났고 그 뒤를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20.2%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관련기관은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34.3%로 나타나고 문화 및 여가가 26.9%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관련기관은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은 56%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관련기관의 경우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18.6%,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이 18.4%로 나타났다. 한부모관련기관은 주거지원프로그램을 100%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관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비중이 높은 67.4%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보건관련기관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관련 프로그램이 28.8%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식품기부 관련기관은 일상생활 지원프로그램 비중이 96.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관련기관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22.5%,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23.2%, 고용관련프로그램 22.5%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7> 기관유형별 복지프로그램 비중

(단위: %)

구분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합계
종합사회복지관	7.4	7.4	9.6	4.3	21.8	11.7	20.2	4.3	13.3	100
아동 관련 기관	2.0	1.3	9.9	2.5	26.9	13.8	34.3	4.7	4.6	100
노인 관련 기관	2.8	3.1	7.2	0.8	8.0	10.1	1.5	56.0	10.5	100
장애인 관련 기관	18.6	12.7	10.7	3.7	18.4	10.7	11.7	8.7	4.8	100

구분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합계
한부모 관련 기관	100.0	-	-	-	-	-	-	-	-	100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11.6	2.3	2.3	4.7	2.3	67.4	2.3	4.7	2.3	100
정신보건 관련 기관	2.2	12.9	14.4	3.6	19.4	28.8	8.6	4.3	5.8	100
식품기부 관련 기관	-	-	-	-	-	3.7	-	-	96.3	100
자활고용 관련 기관	5.7	40.0	5.7	2.9	5.7	11.4	5.7	11.4	11.4	100
여성 관련 기관	-	22.5	3.5	6.3	16.2	22.5	23.2	0.7	4.9	100
청소년 관련 기관	9.1	6.6	4.0	2.5	25.3	15.2	27.8	3.5	6.1	100
기 타	4.7	14.1	11.3	3.3	14.1	14.6	25.4	5.2	7.5	100
전 체	5.6	5.9	8.7	2.3	17.1	13.1	16.4	23.1	7.8	100

* 음영: 기관별로 비중이 높은 2가지 사업임.

이를 살펴보면, 종합복지관의 경우 문화 및 여가, 아동기관은 보육, 노인기관은 영양프로그램, 장애인은 주거와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기관들의 경우 중심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권익보장이나 고용,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시·군별로 프로그램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III-18>과 같다. 절대적인 프로그램수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관련 민간기관이 많을수록 프로그램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거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고양시 19개, 남양주시 21개, 성남시와 수원시가 2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수원시가 월등히 높은 47개로 나타났다.

셋째, 권익보장 및 법률프로그램 역시 수원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수원시가 가장 많은 96개로 나타났고,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은 수원시가 81개, 부천시 65개, 성남

시가 63개로 나타났다.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 역시 수원시가 가장 많고, 안산시 52개, 용인시 53개로 부천이나 성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수원시가 가장 많은 59개이며, 남양주시가 38개로 나타났다.

〈표 Ⅲ-18〉 시·군 복지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수)

프로그램수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합계
가평군	5	6	3	3	9	6	8	16	4	60
고양시	19	9	17	4	45	36	34	82	18	264
과천시	3	4	9	2	10	9	6	7	3	53
광명시	6	11	12	4	35	17	30	18	17	150
광주시	9	5	13	3	26	19	19	42	7	143
구리시	3	3	7	2	16	13	18	17	10	89
군포시	11	7	15	6	15	19	18	41	16	148
김포시	11	8	15	4	23	21	23	36	8	149
남양주시	21	11	34	4	52	28	40	91	38	319
동두천시	7	7	14	5	13	22	15	30	10	123
부천시	12	18	26	9	66	37	65	46	10	289
성남시	24	21	21	5	59	37	63	37	18	285
수원시	23	47	49	12	96	91	81	94	59	552
시흥시	3	15	16	2	39	26	41	46	26	214
안산시	6	15	15	5	53	24	67	52	10	247
안성시	9	6	11	4	13	16	11	35	8	113
안양시	9	10	6	2	17	14	21	24	10	113
양주시	4	4	7	2	12	9	12	17	4	71
양평군	7	4	3	0	8	7	6	19	3	57
여주시	4	4	4	0	11	12	9	19	4	67
연천군	1	1	4	2	4	5	1	19	2	39
오산시	6	9	10	8	18	12	24	6	8	101

프로그램수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합계
용인시	19	10	11	2	23	23	28	53	13	182
의왕시	3	8	10	4	17	20	24	11	7	104
의정부시	11	9	7	4	26	24	29	34	5	149
이천시	6	5	15	0	26	15	19	33	11	130
파주시	6	8	13	5	22	19	23	56	11	163
평택시	1	0	5	1	12	8	12	32	8	79
포천시	11	5	17	1	15	12	13	49	16	139
하남시	3	7	12	5	15	12	10	20	4	88
화성시	6	8	17	2	28	21	22	33	8	145
합 계	269	285	418	112	824	634	792	1115	376	4825

위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수만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시·군내에서 어떤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 <표 III-19>를 제시했다.

첫째,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프로그램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과천과 포천시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비중은 시·군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리시, 군포, 동두천, 시흥, 안성, 안양, 여주, 연천,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포천시의 경우에는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용인이나 의왕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은 도시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비중은 과천, 군포, 동두천, 여주, 연천, 의왕시에 높게 나타났다. 앞의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비중을 함께 검토해보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 이들 지역은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보다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넷째, 과천, 광명, 부천시, 성남시, 안산, 오산시, 의왕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 중 일정정도 이상 노인인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양, 안성, 양평, 파주, 평택, 포천의 경우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광명, 성남, 부천, 안산, 오산, 의왕시의 경우에는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보호 및 교육프로그램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노인보다는 아동 및 청소년대상의 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구리시, 안양시, 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는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 보호 및 교육프로그램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용인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빈곤층이 많은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로서 이들 지역은 노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9〉 시·군 복지프로그램 구성비

(단위: %)

프로그램수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전체
가평균	8.3	10.0	5.0	5.0	15.0	10.0	13.3	26.7	6.7	100
고양시	7.2	3.4	6.4	1.5	17.0	13.6	12.9	31.1	6.8	100
과천시	5.7	7.5	17.0	3.8	18.9	17.0	11.3	13.2	5.7	100
광명시	4.0	7.3	8.0	2.7	23.3	11.3	20.0	12.0	11.3	100
광주시	6.3	3.5	9.1	2.1	18.2	13.3	13.3	29.4	4.9	100
구리시	3.4	3.4	7.9	2.2	18.0	14.6	20.2	19.1	11.2	100
군포시	7.4	4.7	10.1	4.1	10.1	12.8	12.2	27.7	10.8	100
김포시	7.4	5.4	10.1	2.7	15.4	14.1	15.4	24.2	5.4	100
남양주시	6.6	3.4	10.7	1.3	16.3	8.8	12.5	28.5	11.9	100
동두천시	5.7	5.7	11.4	4.1	10.6	17.9	12.2	24.4	8.1	100
부천시	4.2	6.2	9.0	3.1	22.8	12.8	22.5	15.9	3.5	100

프로그램수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전체
성남시	8.4	7.4	7.4	1.8	20.7	13.0	22.1	13.0	6.3	100
수원시	4.2	8.5	8.9	2.2	17.4	16.5	14.7	17.0	10.7	100
시흥시	1.4	7.0	7.5	0.9	18.2	12.1	19.2	21.5	12.1	100
안산시	2.4	6.1	6.1	2.0	21.5	9.7	27.1	21.1	4.0	100
안성시	8.0	5.3	9.7	3.5	11.5	14.2	9.7	31.0	7.1	100
안양시	8.0	8.8	5.3	1.8	15.0	12.4	18.6	21.2	8.8	100
양주시	5.6	5.6	9.9	2.8	16.9	12.7	16.9	23.9	5.6	100
양평군	12.3	7.0	5.3	0.0	14.0	12.3	10.5	33.3	5.3	100
여주시	6.0	6.0	6.0	0.0	16.4	17.9	13.4	28.4	6.0	100
연천군	2.6	2.6	10.3	5.1	10.3	12.8	2.6	48.7	5.1	100
오산시	5.9	8.9	9.9	7.9	17.8	11.9	23.8	5.9	7.9	100
용인시	10.4	5.5	6.0	1.1	12.6	12.6	15.4	29.1	7.1	100
의왕시	2.9	7.7	9.6	3.8	16.3	19.2	23.1	10.6	6.7	100
의정부시	7.4	6.0	4.7	2.7	17.4	16.1	19.5	22.8	3.4	100
이천시	4.6	3.8	11.5	0.0	20.0	11.5	14.6	25.4	8.5	100
파주시	3.7	4.9	8.0	3.1	13.5	11.7	14.1	34.4	6.7	100
평택시	1.3	0.0	6.3	1.3	15.2	10.1	15.2	40.5	10.1	100
포천시	7.9	3.6	12.2	0.7	10.8	8.6	9.4	35.3	11.5	100
하남시	3.4	8.0	13.6	5.7	17.0	13.6	11.4	22.7	4.5	100
화성시	4.1	5.5	11.7	1.4	19.3	14.5	15.2	22.8	5.5	100
합 계	5.6	5.9	8.7	2.3	17.1	13.1	16.4	23.1	7.8	100

* 음영: 시·군별로 비중이 높은 2가지 사업임.

전반적으로 볼 때,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 비중이 대부분의 시·군에 높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 비중보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복지프로그램 비중이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빈곤층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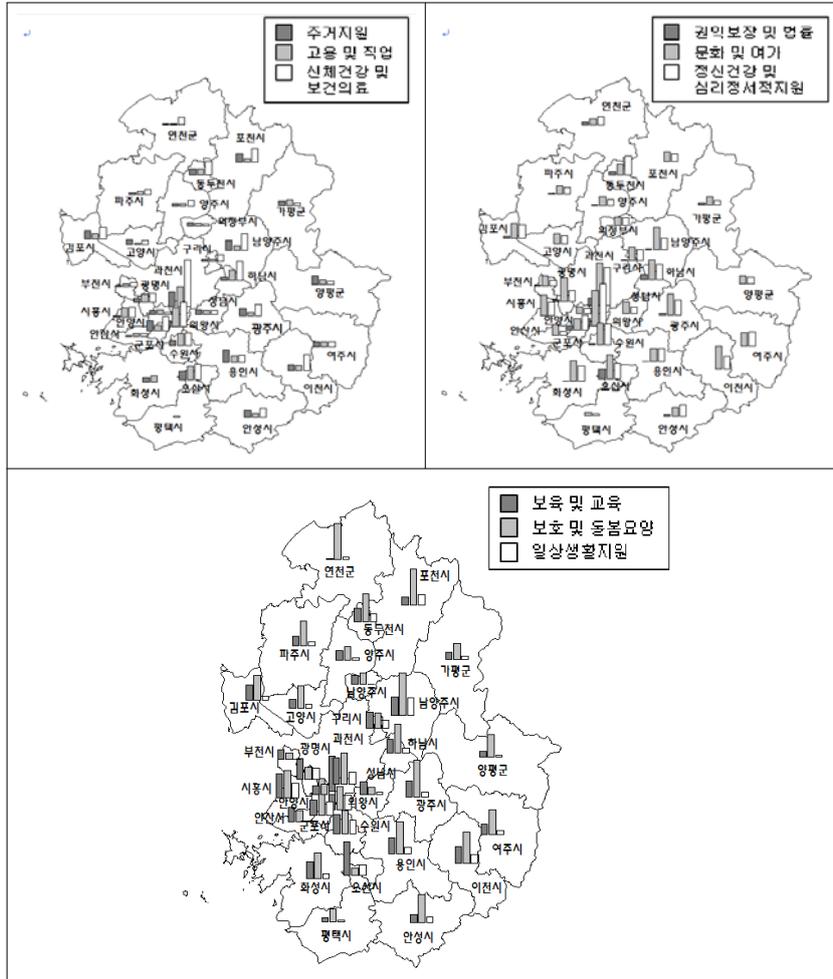
위에서는 내부적인 프로그램 비중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III-20>에서는 각 지역의 프로그램 수요자 즉 저소득층 대비 프로그램비율을 경기도 지도를 통해 제시했다. 3지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기도 남부의 도시권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거지원과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를 비교해보면,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에 대한 비율이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용인, 양평의 경우 저소득층 대비 주거지원 프로그램 비중이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프로그램 비중 보다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익보장 및 법률과 관련된 프로그램,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 역시 경기도 남부 도시지역이 저소득층 대비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 및 여가에 대한 프로그램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도를 살펴보면, 다른 지도와 달리 서울 북부지역, 도농복합지역에도 저소득층 대비 관련프로그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산이나 부천, 시흥 등 몇 개시를 제외하고는 보호 및 돌봄요양 관련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Ⅲ-20〉 시·군 저소득층 대비 경기도내 프로그램 비율

(단위: %)



아래 <표 Ⅲ-21>에서는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 의하면,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가평, 고양, 구리,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가 저소득층 대비 프로그램 비율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천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대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는 1개 정도가 평균값 보다 높고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가평 역시 주거지원, 고용직업, 권익보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보다 저소득층 대비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는 주거지원과 보호 및 돌봄요양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저소득층 대비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안산은 보호 및 교육프로그램이, 양평은 주거지원과 보호 및 돌봄요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소득층 대비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반면, 과천시에는 모든 부분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광명시는 주거지원, 보호 및 돌봄요양을 제외하고 모두 저소득층 대비 평균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포, 김포, 남양주시,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화성시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대비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들에 속한다.

〈표 Ⅲ-21〉 시·군 저소득층 대비 비율

(단위: %)

프로그램수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전체
가평균	1.3	1.5	0.8	0.8	2.3	1.5	2.0	4.0	1.0	15.1
고양시	1.3	0.6	1.1	0.3	3.0	2.4	2.3	5.5	1.2	17.8
과천시	3.3	4.4	9.9	2.2	11.0	9.9	6.6	7.7	3.3	58.4
광명시	1.1	2.0	2.1	0.7	6.2	3.0	5.3	3.2	3.0	26.7
광주시	1.9	1.1	2.8	0.6	5.6	4.1	4.1	9.0	1.5	30.7
구리시	0.7	0.7	1.6	0.5	3.6	3.0	4.1	3.9	2.3	20.2
군포시	2.4	1.5	3.3	1.3	3.3	4.1	3.9	8.9	3.5	32.2
김포시	1.9	1.4	2.7	0.7	4.1	3.7	4.1	6.4	1.4	26.3
남양주시	2.4	1.3	3.9	0.5	5.9	3.2	4.5	10.3	4.3	36.3
동두천시	1.6	1.6	3.2	1.2	3.0	5.1	3.5	6.9	2.3	28.4
부천시	0.5	0.8	1.1	0.4	2.8	1.6	2.8	2.0	0.4	12.3
성남시	1.3	1.2	1.2	0.3	3.3	2.1	3.5	2.1	1.0	15.8
수원시	1.4	2.9	3.0	0.7	5.9	5.6	5.0	5.7	3.6	33.8

프로그램수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전체
시흥시	0.4	2.2	2.3	0.3	5.7	3.8	5.9	6.7	3.8	31.0
안산시	0.3	0.8	0.8	0.3	3.0	1.3	3.8	2.9	0.6	13.8
안성시	1.8	1.2	2.2	0.8	2.6	3.2	2.2	6.9	1.6	22.4
안양시	1.1	1.2	0.7	0.2	2.0	1.7	2.5	2.9	1.2	13.5
양주시	0.8	0.8	1.4	0.4	2.5	1.9	2.5	3.5	0.8	14.7
양평군	2.1	1.2	0.9		2.4	2.1	1.8	5.6	0.9	16.9
여주시	1.3	1.3	1.3		3.6	3.9	2.9	6.2	1.3	21.9
연천군	0.5	0.5	1.8	0.9	1.8	2.3	0.5	8.7	0.9	18.0
오산시	2.1	3.1	3.5	2.8	6.3	4.2	8.4	2.1	2.8	35.2
용인시	2.9	1.5	1.7	0.3	3.5	3.5	4.2	8.0	2.0	27.4
의왕시	1.6	4.3	5.4	2.2	9.2	10.9	13.0	6.0	3.8	56.5
의정부시	1.0	0.8	0.6	0.4	2.3	2.1	2.6	3.0	0.4	13.1
이천시	1.4	1.2	3.5		6.0	3.5	4.4	7.6	2.5	30.1
파주시	0.7	0.9	1.4	0.5	2.4	2.1	2.5	6.1	1.2	17.8
평택시	0.1		0.5	0.1	1.3	0.9	1.3	3.4	0.9	8.5
포천시	2.0	0.9	3.1	0.2	2.7	2.2	2.4	8.9	2.9	25.3
하남시	1.1	2.5	4.3	1.8	5.3	4.3	3.6	7.1	1.4	31.4
화성시	1.2	1.5	3.3	0.4	5.4	4.1	4.3	6.4	1.5	28.0
합계	1.2	1.3	1.8	0.5	3.6	2.8	3.5	4.9	1.7	21.3

* 음영 : 평균보다 비율이 낮은 시·군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저소득층 대비 프로그램비율을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 빈곤층이 많은 중소도시, 대도시의 경우 저소득층 대비 프로그램 비율 역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빈곤층이 적은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은 저소득층 대비 프로그램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재정, 인력, 프로그램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현황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분야지출, 저소득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아동복지분야별 재정을 대상자 대비, 1인당 금액 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각 복지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재정이나 인력, 프로그램 모두 절대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이나 저소득층 관련 복지지출, 아동관련 복지지출, 민간복지기관, 민간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모두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복지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공공지출과 민간지출을 비교해보면, 직접대상자에게 지출하는 공공부분 재정지출규모가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은 공공부분 재정지출의 13.6%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복지재정의 내부비중을 살펴보면, 공공재정은 아동관련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노인, 저소득층 관련 지출이 잇고 있다. 반면, 민간기관에 대한 복지지출을 살펴보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지출보다는 노인기관에 대한 지출비중이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출과 민간기관에게 지출하는 금액을 통해 살펴보면, 아동관련 지출이 전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아동관련 지출비중이 크지만 시·군별로 살펴보면 노인관련 지출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동관련 지출 비중이 좀더 높은 지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연천, 양평, 가평의 경우 아동보다 노인관련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시·군내 저소득층, 노인, 인구를 고려해 재정과 관련된 복지자원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양으로 복지자원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천, 안산, 안양, 성남의 경우 인구가 많아 절대적

인 복지자원의 양은 많지만, 실제 인구 1인당, 저소득층 1인당 재정측면의 복지자원을 살펴보면 타 시·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정과 관련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들은 앞서 제시한 지역들과 농촌지역의 일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복지자원의 두 번째 요소인 인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첫째, 절대적인 인력규모는 인구가 많고 복지기관이 많은 지역에 풍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공인력과 민간인력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 저소득층이나 인구규모를 고려해보면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 실제 공공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1인당 담당 저소득층을 보면, 가평, 김포,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의 경우 담당해야하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인력의 경우에도 부천, 안산, 구리, 의정부의 경우 민간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자원의 세 번째 요소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 남부지역에 주로 복지기관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 복지기관들이 주로 설치되어 있다. 복지기관들이 많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역시 절대적인 수치는 많은 상황이다.

둘째, 인구대비, 저소득층이나 노인, 아동 대비 기관비율을 살펴보면,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경기도 남부권역에 위치한 도시지역이지만 인구나 저소득층 규모가 커서 대상자 대비 기관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포괄하는 비율이 성남의 경우에만 1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남은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대비 기관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종합복지관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저소득층 대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종합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들이 있는 상황이다.

넷째, 아동기관비율을 살펴보면 가평이나 동두천과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 외에 안산에서 아동기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평택시, 파주시, 용인시의 경우 7세 이하 아동 대비 아동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노인기관비율을 살펴보면, 가평, 동두천시, 시흥, 포천시의 경우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천이나 성남의 경우 노인기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 및 여가,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의 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권익 보장 및 법률지원이 가장 비중이 낮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원 역시 비중이 5.6%로 낮은 편이며 고용 및 직업 역시 그 비중이 5.9%에 그쳐 서비스의 전반적인 총량자체가 많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민간프로그램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둘째, 시·군별로 보면, 문화 및 여가서비스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 및 여가서비스 비중이 낮고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이 많은 지역은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농촌지역은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IV

복지자원 집중도

- ① 시·군별 복지자원 집중도
- ② 집단별 집중도분석
- ③ 소결

IV

복지자원 집중도

1 시·군별 복지자원 집중도

1) 비형평성계수

앞서 설명했듯이 비형평성계수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군별로 복지자원이 얼마나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형평한 것이며, 10이상인 경우 약간 비형평한 것으로 보고, 20이상인 경우 비형평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복지자원의 비형평계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 IV-1>과 같다. 우선, 공공의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의 경우, 인구 대비 3.56로 거의 형평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 분야별 지출액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노인, 아동 모두 거의 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의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의 경우, 공공과 마찬가지로 인구대비 6.49으로 거의 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분야별 지출액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세 분야 모두 약간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와 저소득층 대비 공공 인력의 비형평성계수는 5.98, 6.95로 거의 형평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인력 역시 인구 대비 6.43로 거의 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수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대상자 관계없이 거의 형평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시·군별 민간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60세 이상 인구대비 노인 관련기관의 경우 비형평계수가 10보다 적어서 거의 형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군별로 자원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저소득층 대비 종합복지관의 경우 비형평계수가 26.1로서 상당히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현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종합복지관이 설치조차 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비형평성을 살펴보면, 20이 넘어 심각한 자원의 비형평한 배분을 보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여가, 보육 및 교육의 경우 비형평성계수가 10보다 적어서 거의 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별로 큰 차이가 없이 저소득층 대비 서비스가 형평있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주거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으로, 권익보장 및 법률,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보호 및 돌봄요양, 일상생활지원프로그램은 비형평성계수가 10보다 높아서 약간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프로그램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타 프로그램과 달리 비형평성계수가 16이 넘고 있어서 시·군별 프로그램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복지자원 비형평성계수

		구분	공공	민간
재정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인구 대비	3.56	6.49
		저소득층 대비	3.53	12.91
	각 분야별 지출액	노인 대비	3.40	11.36
		아동 대비	4.16	11.33
인력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인구 대비	5.98	6.43

		구분	공공	민간
프로그램	시·군별 민간기관 설치	종합복지관(저소득층 대비)		26.1
		아동관련기관(7세미만 아동대비)		10.4
		노인관련기관(60세 이상 인구대비)		9.3
	시·군별 민간프로그램 운영현황	전체		8.8
		주거지원		11.7
		고용 및 직업		12.5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11.7
		권익보장 및 법률		12.3
		문화 및 여가		8.0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10.9
		보육 및 교육		7.0
		보호 및 돌봄요양		10.8
		일상생활지원		16.0

* 음영 : 비형평성계수가 10이상인 경우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복지프로그램 자료, 조사원자료 활용.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인구 대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은 공공과 민간 모두 거의 형평한 수준이나 각 분야별 지출액에서는 공공과 민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보다 민간의 각 분야별 사회복지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덜 형평한 것을 알 수 있다. 인력부분은 상대적으로 형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민간기관의 설치, 민간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비형평성계수가 10이 넘고 있어 약간 비형평한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공보다는 민간부분에 대한 자원배분 측면에서 비형평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형평성계수는 기본적으로 시·군 전체 자원배분 정도를 보여주지만 시·군의 구체적인 자원의 집중도, 차이를 보여주진 못한다. 이에 아래에서 민간기관, 민간프로그램의 집중도를 살펴보자.

2) 집중도계수

집중도계수를 통해 시·군별로 자원의 집중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집중도계수를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 복지자원 집중도계수 산식

구분		산식	
재정	사회복지분야 총지출액 대비 인구	$\frac{\text{시·군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시·군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합계}}{\text{시·군별 인구수/시·군별 인구수 합계}}$	
	분야별 지출액 대비	저소득층	$\frac{\text{시·군별 저소득층 지출액/시·군별 저소득층 지출액 합계}}{\text{시·군별 저소득층수/시·군별 저소득층수 합계}}$
		노인	$\frac{\text{시·군별 노인 지출액/시·군별 노인 지출액 합계}}{\text{시·군별 노인수/시·군별 노인수 합계}}$
		아동	$\frac{\text{시·군별 아동 지출액/시·군별 아동 지출액 합계}}{\text{시·군별 아동수/시·군별 아동수 합계}}$
인력	사회복지업무수행인력 대비 인구	$\frac{\text{시·군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수/시·군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합계}}{\text{시·군별 인구수/시·군별 인구수 합계}}$	
프로그램	민간기관설치	저소득층	$\frac{\text{시·군별 종합복지관수/시·군별 종합복지관수 합계}}{\text{시·군별 저소득층수/시·군별 저소득층수 합계}}$
		노인	$\frac{\text{시·군별 노인기관수/시·군별 노인 기관수 합계}}{\text{시·군별 노인수/시·군별 노인수 합계}}$
		아동	$\frac{\text{시·군별 아동기관수/시·군별 아동기관수 합계}}{\text{시·군별 아동수/시·군별 아동수 합계}}$
	민간기관프로그램	저소득층	$\frac{\text{시·군별 각 프로그램수/시·군별 각 프로그램수 합계}}{\text{시·군별 저소득층수/시·군별 저소득층수 합계}}$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복지프로그램 자료, 조사원자료 활용.

(1) 재정

각 시·군의 사회복지대상자별 재정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공공과 민간영역을 구분하여 집중도계수를 살펴본 후, 공공과 민간을 합한 전체 집중도계수를 살펴본다. 앞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한 재정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회색음영은 1.25보다 집중도계수가 높은 지역이며, 검은색 음영은 집중도계수가 0.75이하인 지역이다.

우선, 공공의 인구 수 대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는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양평군 총 8개 시·군이 1.25보다 높다. 반면 과천시와 인구 대비 공공 재정의 집중도가 계수가 0.75보다 낮다. 인구대비 경기도 공공복지재정비율을 1로 기준으로 삼고 볼 때, 상대적으로 연천, 가평은 인구대비 공공복지재정 지출이 집중되어 있고, 과천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인구대비 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첫째,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 지출액의 집중도계수 1.25보다 높은 시·군은 없으나 전체 시·군 중에서 연천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와 0.75보다 집중도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대비 노인 분야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를 시·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안성시, 포천시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은 반면, 과천, 용인의 집중도계수는 0.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대비 아동 분야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는 동두천시, 의정부, 양주, 안산, 포천, 연천이 1.25보다 높은 반면, 김포, 화성의 아동관련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집중도계수는 경기도 평균을 1로 설정하고 이 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시·군의 자원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거나 적은지를 분석하는 계수이다. 때문에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 상대적인 수치라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경

우 어떤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적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V-3〉 시·군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가평군	1.92	0.78	1.66	1.2
고양시	0.92	1.12	0.94	1.04
과천시	0.69	0.99	0.66	0.83
광명시	0.99	1.05	1	0.98
광주시	1.07	1.05	0.9	1.09
구리시	1.04	1.04	1.01	1.02
군포시	0.9	0.97	0.93	0.94
김포시	0.82	0.99	0.86	0.6
남양주시	1.09	1.1	1.04	1.09
동두천시	1.78	0.89	1.58	1.53
부천시	0.92	0.7	1.09	0.95
성남시	0.85	1.07	0.84	0.84
수원시	0.86	1.02	0.94	0.94
시흥시	1.1	1.02	1.21	1.22
안산시	1.12	0.93	1.14	1.38
안성시	1.24	1.07	1.34	0.89
안양시	0.86	1.12	0.92	0.99
양주시	1.45	1.01	1.23	1.44
양평군	1.3	1.01	1.03	0.92
여주시	1.46	1.16	1.21	1.22
연천군	1.97	1.24	1.53	1.28
오산시	1.03	1.05	1.06	0.91
용인시	0.79	0.97	0.69	0.87
의왕시	0.83	0.92	0.83	0.94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의정부시	1.36	1.15	1.11	1.44
이천시	1.17	0.97	1.17	1.05
파주시	1.2	0.96	1.08	1.1
평택시	1.07	1.04	1	0.98
포천시	1.5	1.1	1.31	1.35
하남시	1.03	0.91	0.87	1.17
화성시	0.8	1.18	0.9	0.62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민간재정 집중도계수 분석결과는 <표 IV-4>와 같다. 우선 인구 수 대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가평, 양평, 과천, 연천, 여주, 이천, 동두천, 포천, 안성, 광주가 1.25보다 높은 반면, 성남, 고양, 수원, 의정부의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는 화성, 광주, 시흥, 오산, 하남, 고양에 1.2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평택, 동두천, 과천, 구리 등 15개 시·군의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 대비 노인 분야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는 가평군, 과천, 의왕, 이천, 연천, 성남, 화성, 하남이 1.25이상인 반면, 고양, 안성, 남양주, 김포, 오산의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아동 대비 아동 분야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는 여주시, 동두천, 야주,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과천시, 포천시, 안성시, 의왕시, 시흥시, 의정부시, 과천시, 포천시, 안성시, 의왕시 등 11개 시·군의 경우 1.25보다 높다. 반면,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군포시 9개 시·군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다.

〈표 IV-4〉 시·군 민간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가평군	6.81	0.26	6.51	1.13
고양시	0.67	1.18	0.21	0.74
과천시	2.71	0.2	3.72	1.56
광명시	0.98	1.78	1.06	0.84
광주시	1.41	2.33	1.05	0.96
구리시	1.05	0.48	0.86	0.83
군포시	0.86	1.08	1.11	0.48
김포시	0.76	1.08	0.58	0.5
남양주시	0.97	1.79	0.57	0.84
동두천시	1.67	0.16	1.17	3.18
부천시	0.8	0.85	0.9	0.99
성남시	1.04	1.69	1.48	0.56
수원시	0.7	1.05	1.06	1.04
시흥시	0.96	2.24	1.13	1.73
안산시	0.88	0.53	1.08	1.21
안성시	1.42	0.85	0.46	1.37
안양시	0.79	0.59	0.74	1.84
양주시	1.1	0.6	0.76	2.43
양평군	3.38	0.95	0.96	0.62
여주시	2.35	0.25	0.78	4.27
연천군	2.37	0.35	1.64	0.87
오산시	0.75	1.88	0.7	0.21
용인시	0.75	0.6	0.81	0.37
의왕시	1.14	0.66	1.78	1.32
의정부시	0.82	0.34	0.83	1.63
이천시	1.96	0.21	1.72	0.59
파주시	1.09	0.22	0.88	1.14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평택시	0.91	0.15	0.76	2.2
포천시	1.62	0.89	1.22	1.45
하남시	1.1	1.4	1.25	1.06
화성시	1	3.84	1.3	0.28

* 음영 : 회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은 경우, 검은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경우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위 결과를 요약하면, 화성시, 광주시, 오산시, 남양주시, 광명시는 저소득층 대비 민간 지출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노인과 아동 대비 민간재정지출규모가 경기도 대비 보통이거나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은 노인 대비 노인분야 지출액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동두천시, 여주시, 의정부시, 안양시, 평택시, 양주시는 아동 대비 아동분야 지출액이 경기도 평균을 의미하는 집중도계수가 1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지출액을 합한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의 집중도계수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우선 인구 수 대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가평, 연천, 동두천, 여주, 양평, 포천 등 10개 시·군이 1.25보다 높게 나타났고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지역은 없다. 다만, 용인이나 김포의 집중도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 지출액의 경우 화성시만 집중도계

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천, 가평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노인 대비 노인 분야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는 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 이천이 1.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용인시가 노인수 대비 노인분야 지출액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아동 대비 아동 분야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 안산, 포천, 여주, 연천, 시흥이 1.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김포, 화성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5〉 시·군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가평군	2.51	0.74	2.35	1.2
고양시	0.89	1.12	0.84	1.03
과천시	0.93	0.92	1.1	0.86
광명시	0.99	1.11	1.01	0.98
광주시	1.11	1.17	0.92	1.08
구리시	1.04	0.99	0.99	1.01
군포시	0.9	0.98	0.95	0.92
김포시	0.81	1	0.82	0.59
남양주시	1.07	1.17	0.97	1.08
동두천시	1.77	0.83	1.53	1.59
부천시	0.9	0.71	1.06	0.96
성남시	0.87	1.12	0.93	0.83
수원시	0.84	1.02	0.96	0.94
시흥시	1.08	1.13	1.2	1.25
안산시	1.09	0.89	1.13	1.37
안성시	1.26	1.05	1.21	0.91
안양시	0.85	1.07	0.89	1.03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양주시	1.41	0.97	1.16	1.48
양평군	1.55	1.01	1.02	0.9
여주시	1.56	1.08	1.15	1.34
연천군	2.02	1.16	1.55	1.27
오산시	1	1.12	1.01	0.88
용인시	0.79	0.94	0.71	0.85
의왕시	0.87	0.9	0.96	0.96
의정부시	1.3	1.08	1.07	1.45
이천시	1.27	0.9	1.25	1.04
파주시	1.18	0.9	1.05	1.1
평택시	1.05	0.96	0.97	1.03
포천시	1.51	1.08	1.29	1.36
하남시	1.04	0.96	0.92	1.17
화성시	0.82	1.41	0.96	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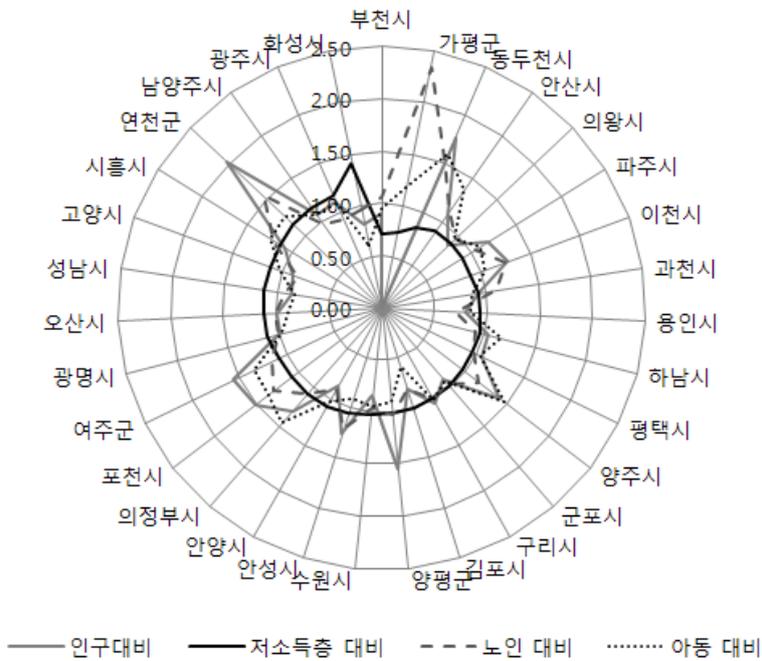
* 음영 : 회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은 경우, 검은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경우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위 결과를 요약하면,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 사회복지 지출액은 화성시의 집중도계수가 높아 경기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은 노인과 아동 대비 각 분야의 사회복지 지출액이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소득층 대비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분석한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지출액을 합한 것에 대한 집중도 계수를 [그림 IV-1]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 및 특징을 살펴보면, 공공은 저소득층, 노인, 아동의 세 분야 간 평균 차이가 거의 없으나 민간은 노인과 아동 분야에 지출액 집중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역시 인구 대비 공공지출액보다 민간 지출액의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지출액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 편의상 가평군(인구 대비 총 사회복지 지출액)을 '0'으로 기입·처리함.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5> 참조.

[그림 IV-1] 시·군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2) 인력

여기에서는 각 시·군에 사회복지업무 수행 인력을 공공과 민간영역으

로 구분해 집중도계수를 분석한다. 회색음영은 1.25보다 집중도계수가 높은 지역이며, 검은색 음영은 집중도계수가 0.75이하인 지역이다.

공공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집중도계수 분석결과는 연천, 가평, 동두천, 여주, 양평, 안성, 과천, 화성, 이천, 하남, 의정부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원, 용인, 시흥, 김포는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IV-6〉 시·군 공공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집중도계수

구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인구 대비	구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인구 대비
가평군	2.72	안양시	0.81
고양시	0.8	양주시	1.24
과천시	1.75	양평군	1.84
광명시	1.03	여주시	2.1
광주시	1.01	연천군	4.57
구리시	1.11	오산시	1
군포시	0.95	용인시	0.7
김포시	0.74	의왕시	1.17
남양주시	0.82	의정부시	1.3
동두천시	2.14	이천시	1.32
부천시	0.9	파주시	1.07
성남시	0.87	평택시	1.17
수원시	0.65	포천시	2.22
시흥시	0.74	하남시	1.31
안산시	0.87	화성시	1.36
안성시	1.76	-	-

* 음영 : 회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은 경우, 검은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경우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민간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집중도계수 분석결과는 <표 IV-7>과 같다. 첫째, 인구 대비 민간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과 관련해 가평, 동두천, 연천, 양평, 포천, 과천시 등 13개 시·군의 집중도계수는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화성 등 5개 시·군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관련 기관 인력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광명, 시흥, 고양, 성남, 화성, 포천, 용인시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연천, 여주, 남양주, 광주, 과천시, 구리, 가평, 안성 등 19개 시·군은 저소득층 대비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다.

셋째, 노인 대비 노인 관련 기관 인력을 살펴보면, 동두천, 시흥, 가평, 연천, 포천, 과천, 광주, 이천, 파주시 등 9개 시·군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다. 반면, 구리,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용인 등 7개 시·군은 노인 수 대비 노인관련기관 인력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났다.

넷째, 아동 대비 아동 관련 기관 인력의 집중도계수는 여주, 동두천, 의왕, 포천, 가평, 구리, 부천, 양주, 안성, 의정부, 양평, 파주, 안산, 시흥 등 14개 시·군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평택, 오산, 군포, 광명, 화성, 용인, 고양 등 9개 시·군은 아동대비 아동관련 기관 인력의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인력과 관련된 집중도계수는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관련된 인력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위 결과가 보여주는 시·군의 특징을 살펴보면, 포천시와 시흥시는 각 분야의 대상자 수 대비 인력과 관련된 집중도계수가 높아서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고양시는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 인력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동두천시, 가평군, 파주시는 노인과 아동 분야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소득층 분야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시·군 민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집중도계수

구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전체 인구 대비	분야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가평군	4.06	0.05	1.86	1.66
고양시	0.96	2.18	1.14	0.64
과천시	1.83	0	1.49	0.89
광명시	0.85	4.57	0.73	0.63
광주시	1.39	0	1.37	0.91
구리시	0.76	0.05	0.45	1.57
군포시	0.85	0.84	1.07	0.49
김포시	1.41	1.1	1.15	0.77
남양주시	1.06	0	1.18	1.07
동두천시	2.98	0.1	2.8	3.41
부천시	0.58	0.3	0.6	1.53
성남시	0.86	2.08	0.65	0.92
수원시	1	1.15	0.99	0.98
시흥시	1.36	3.9	1.98	1.27
안산시	0.63	0.58	0.68	1.28
안성시	1.48	0.09	1.02	1.44
안양시	0.63	1.18	0.69	0.71
양주시	1.18	0.49	1.09	1.44
양평군	2.52	0.19	1.13	1.35
여주시	1.53	0	1.09	3.55
연천군	2.6	0	1.67	0.92
오산시	0.98	1.12	1.06	0.48
용인시	0.67	1.3	0.7	0.64
의왕시	1.15	0.12	0.86	2.84
의정부시	1.1	0.72	1.09	1.41
이천시	1.54	0.15	1.35	0.67
파주시	1.39	0.59	1.31	1.29

구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전체 인구 대비	분야별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저소득층 대비	노인 대비	아동 대비
평택시	0.79	0.16	0.92	0.31
포천시	1.96	1.33	1.57	1.69
하남시	1.01	0.23	0.98	1.16
화성시	0.68	1.5	0.91	0.63

- * 음영 : 회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은 경우, 검은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경우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위에서 분석한 민간의 사회복지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집중도계수를 [그림 IV-2]와 같이 제시하였다. 저소득층 대비 화성시, 과천시, 의왕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민간인력은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왕시는 공공과 민간인력 둘 다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인력의 집중은 기본적으로 인력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각 인력이 수행하는 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해 자원의 집중도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관이 없는 지역은 집중도계수 자체가 산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용인시, 의정부, 파주시, 평택, 포천, 화성시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종합복지관의 경우 앞서 비형평성계수에서도 상당히 자원이 비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도내 자원의 형평한 배분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60세 이상 인구대비 노인기관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가평군, 군포시, 김포,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성, 양평 등 대부분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다. 동두천은 서울 북부 외곽에 있어 노인생활시설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 집중도계수가 높고, 시흥은 타 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이 낮아 집중도계수가 높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의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집중도계수가 0.75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여주시, 평택시의 경우 도시지역이 아니면서도 노인기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7세 미만 아동대비 아동기관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의 경우 자원이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중에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의 농촌지역 특징이 강한 지역은 인구가 적어 인구대비 아동기관 집중도계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고양시, 김포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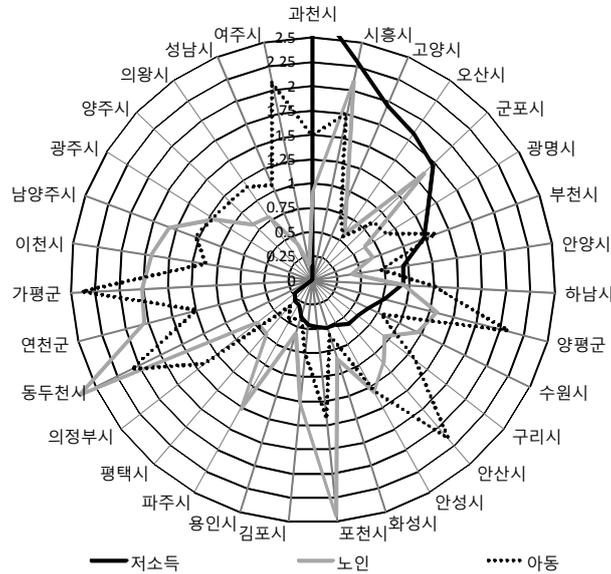
〈표 IV-8〉 시·군 민간기관 집중도계수

시·구·군	민간기관		
	저소득기관 (저소득층 대비)	노인관련기관 (60세이상 노인대비)	아동관련기관 (7세미만 아동대비)
가평군	-	1.77	2.38
고양시	1.95	0.89	0.74
과천시	2.90	0.89	1.49
광명시	1.41	0.64	0.90
광주시	-	1.19	1.21
구리시	-	0.94	1.34
군포시	1.72	1.60	0.87
김포시	0.46	1.25	0.75
남양주시	-	1.57	1.29
동두천시	-	2.68	2.08
부천시	1.23	0.67	1.36
성남시	3.95	0.40	1.06
수원시	0.64	1.22	0.79
시흥시	2.29	2.08	1.76
안산시	0.59	1.13	2.15
안성시	0.52	1.32	1.31
안양시	0.94	0.42	0.72
양주시	-	0.84	1.17
양평군	0.78	1.33	2.08
여주시	-	0.17	2.08
연천군	-	1.80	1.24
오산시	1.83	0.57	0.55
용인시	0.40	0.59	0.39
의왕시	-	0.79	1.17
의정부시	0.23	0.71	1.42
이천시	-	1.69	1.11
파주시	0.29	1.53	0.50

시·구·군	민간기관		
	저소득기관 (저소득층 대비)	노인관련기관 (60세이상 노인대비)	아동관련기관 (7세미만 아동대비)
평택시	0.28	0.73	0.35
포천시	0.48	2.43	1.43
하남시	0.94	0.94	1.25
화성시	0.51	0.85	0.59

- * 음영 : 회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은 경우, 검은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경우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이를 좀더 살펴보기 위해 아래 [그림 IV-3]를 제시했다. 저소득층 대비 종합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대상 노인기관, 아동대비 아동기관의 집중도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종합복지관 집중도계수가 1.25수준인 지역은 부천부터 광명, 군포, 오산, 고양, 시흥, 과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복지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지역은 여주, 성남, 의왕부터 양평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 중에서 노인관련 기관의 집중도계수가 높은 지역은 남양주시부터 동두천시까지인 반면, 의정부시는 집중도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포천시 역시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관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여주, 가평, 동두천, 의정부, 포천, 안산, 양평, 시흥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8> 참조.

[그림 IV-3] 시·군 민간기관 집중도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저소득층 대비 살펴본 것이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민간기관이 경기도내에 형평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 역시 집중도계수가 1.25이상이거나 0.75이하인 지역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저소득층 대비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부터 살펴보면,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화성시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천, 의왕, 오산, 화성시, 용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 자원이 풍요로운 곳에 해당된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앞서 민간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평군,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평택

시는 집중도계수가 0.75이하로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가평이나 양주의 경우 농촌지역으로서 절대적인 복지자원의 양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시의 경우 저소득층 인구가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김포시, 안성시, 양평군, 포천시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타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구리시, 시흥시, 연천군, 파주시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는 서비스 부족 현상을 보이진 않지만 주거지원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저소득층 대비 고용 및 직업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이 역시 앞서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절대적으로 복지자원의 양이 풍족하거나 저소득층이 적은 지역의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평의 경우 전체 서비스 집중도계수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및 직업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가 1이 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은 성남, 안양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에 비해 고용 및 직업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용 및 직업프로그램 경우 다른 서비스에 비해 집중도계수가 낮은 지역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 구리,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는 낮지 않지만, 고용 및 직업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가 0.75이하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고용 및 직업프로그램 비중이 낮고, 타 프로그램과 비교해볼 때에도 관련 프로그램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김포시, 포천시는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는 1.25를 넘지 않았지만, 신체건

강 및 보건의료프로그램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김포시와 포천시는 타 프로그램에 비해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프로그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고양시, 양평군, 여주시, 파주시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프로그램에 경우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서로 비교해볼 때 고양시 등의 경우에는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권익보장 및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가평군, 김포시, 안성시, 연천군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는 1.25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익보장 및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평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는 0.71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권익보장 및 법률프로그램은 서비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흥시, 용인시, 포천시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는 1.25보다 높은 지역이지만 권익보장 및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권익보장 및 법률지원프로그램은 타 시·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 분포상으로도 볼 경우에도 관련 프로그램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대비 집중도계수가 낮게 나타는 특징이 있다. 시·군의 전체 프로그램 집중도계수는 집중이나 부족현상을 보이진 않지만, 안성, 양평, 연천, 파주, 포천 모두 전체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대비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김포시, 여주시가 전체 프로그램과 비교해볼 때,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양평군, 파주시는 전체 프로그램에 비해 볼 때, 집중도계수가 낮은 특징이 있다.

여덟째,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고양, 안성, 양평, 연천, 파주, 포천의 집중도계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고양을 제

외한 시·군들은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홉째,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의 경우 광명시가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는 1.25가 넘어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오산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열번째, 일상생활지원프로그램 역시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가 유사하지만, 고양시는 집중도계수가 낮게 나타났고, 구리시는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양평군과 연천군, 파주시는 전체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서비스 부족현상이 좀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시·군 민간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프로그램 수	전체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가평균	0.71	1.05	1.19	0.41	1.52	0.62	0.54	0.57	0.81	0.60
고양시	0.84	1.08	0.48	0.62	0.55	0.83	0.87	0.66	1.12	0.73
과천시	2.74	2.78	3.50	5.37	4.45	3.03	3.54	1.89	1.57	1.99
광명시	1.25	0.90	1.56	1.16	1.44	1.71	1.08	1.53	0.65	1.82
광주시	1.44	1.63	0.85	1.51	1.30	1.53	1.46	1.17	1.83	0.90
구리시	0.95	0.57	0.54	0.86	0.92	1.00	1.05	1.17	0.78	1.37
군포시	1.51	2.01	1.21	1.76	2.63	0.90	1.47	1.12	1.81	2.09
김포시	1.23	1.63	1.12	1.43	1.43	1.12	1.32	1.16	1.29	0.85
남양주시	1.70	2.01	0.99	2.09	0.92	1.62	1.14	1.30	2.10	2.60
동두천시	1.33	1.36	1.28	1.75	2.33	0.82	1.81	0.99	1.41	1.39
부천시	0.57	0.43	0.61	0.60	0.77	0.77	0.56	0.79	0.40	0.26
성남시	0.74	1.12	0.93	0.63	0.56	0.90	0.73	1.00	0.42	0.60
수원시	1.58	1.18	2.28	1.62	1.48	1.61	1.99	1.42	1.17	2.17
시흥시	1.46	0.37	1.73	1.26	0.59	1.55	1.35	1.70	1.35	2.27
안산시	0.65	0.28	0.67	0.45	0.57	0.82	0.48	1.07	0.59	0.34
안성시	1.05	1.50	0.94	1.18	1.60	0.71	1.13	0.62	1.41	0.95

프로그램 수	전체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안양시	0.63	0.90	0.95	0.39	0.48	0.56	0.60	0.72	0.58	0.72
양주시	0.69	0.70	0.66	0.78	0.84	0.68	0.66	0.71	0.71	0.50
양평군	0.79	1.74	0.94	0.48		0.65	0.74	0.51	1.14	0.53
여주시	1.02	1.10	1.04	0.71		0.99	1.40	0.84	1.26	0.79
연천군	0.84	0.39	0.37	1.00	1.86	0.51	0.82	0.13	1.77	0.55
오산시	1.65	1.76	2.49	1.88	5.63	1.72	1.49	2.39	0.42	1.68
용인시	1.29	2.41	1.20	0.90	0.61	0.95	1.24	1.21	1.62	1.18
의왕시	2.65	1.37	3.45	2.94	4.39	2.54	3.88	3.73	1.21	2.29
의정부시	0.61	0.81	0.63	0.33	0.71	0.63	0.75	0.73	0.61	0.26
이천시	1.41	1.17	0.92	1.88		1.65	1.24	1.26	1.55	1.53
파주시	0.84	0.55	0.69	0.77	1.10	0.66	0.74	0.72	1.24	0.72
평택시	0.40	0.09		0.29	0.22	0.35	0.31	0.37	0.70	0.52
포천시	1.19	1.68	0.72	1.67	0.37	0.75	0.78	0.68	1.81	1.75
하남시	1.47	0.90	1.98	2.31	3.60	1.47	1.53	1.02	1.45	0.86
화성시	1.31	0.98	1.23	1.78	0.78	1.49	1.45	1.22	1.29	0.93

- * 음영 : 회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은 경우, 검은색음영은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경우
-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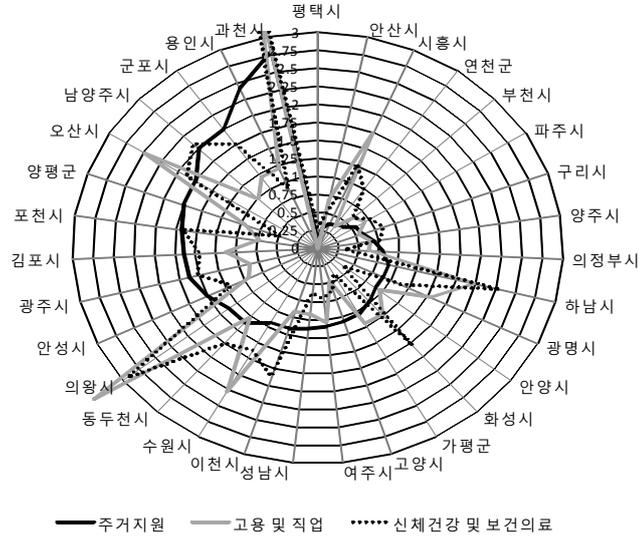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 [그림 IV-4]부터 [그림 IV-6]이다. 우선, 주거지원, 고용지원,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된 서비스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과천, 오산, 의왕, 동두천, 수원시의 경우 3가지 집중도계수가 높아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집중된 지역에 해당된다. 용인은 주거지원프로그램 집중도계수가 높고, 군포는 주거지원과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시는 주거지원,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프로그램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양평 역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남과 광명, 화성은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프로그램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평택, 안산, 연천, 부천, 파주, 구리, 양주, 의정부시의 경우 3가지 서비스 모두에서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오산, 과천, 의왕부터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양평, 여주, 평택, 포천, 안양,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부천시, 양주시, 구리시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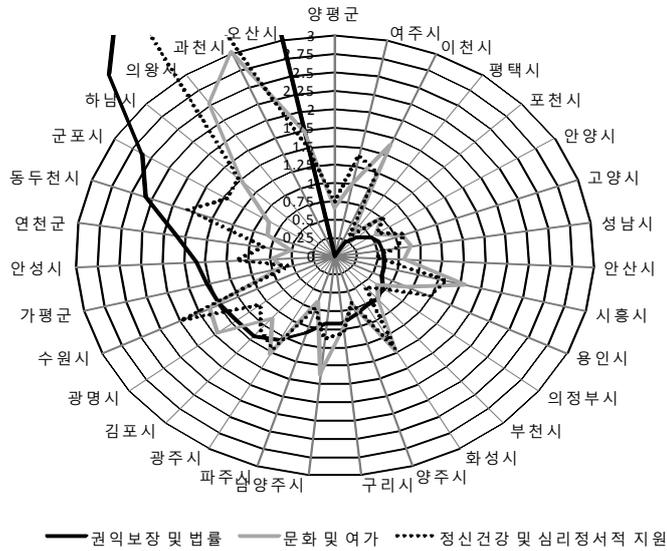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과 관련된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의왕시, 오산, 과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연천군, 평택시, 양평군, 가평군, 안성시의 경우 연천군 돌봄요양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집중도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포천이 상대적으로 보호 및 돌봄요양, 일상생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복지자원의 집중도를 시·군별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31개 시·군별로 개성이 강해 어떤 특징을 찾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31개 시·군을 다시 몇몇 집단으로 구분해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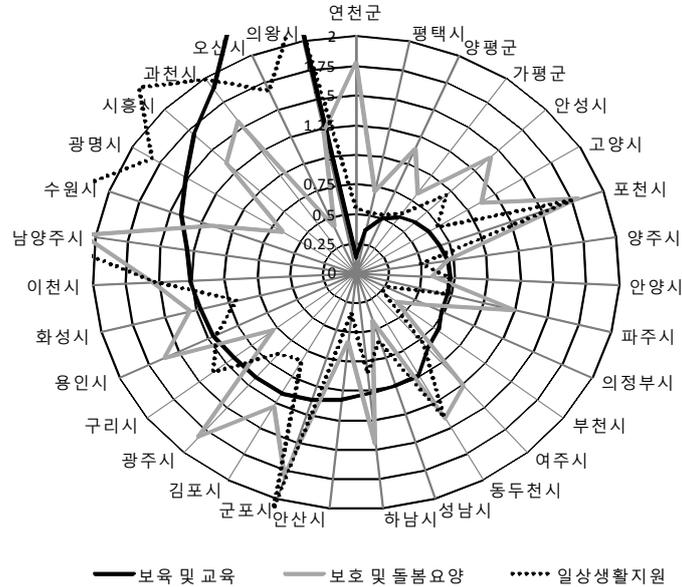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9> 참조.

[그림 IV-4] 시·군 주거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집중도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9> 참조.

[그림 IV-5] 시·군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 집중도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9> 참조.

[그림 IV-6] 시·군 보호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집중도

2 집단별 집중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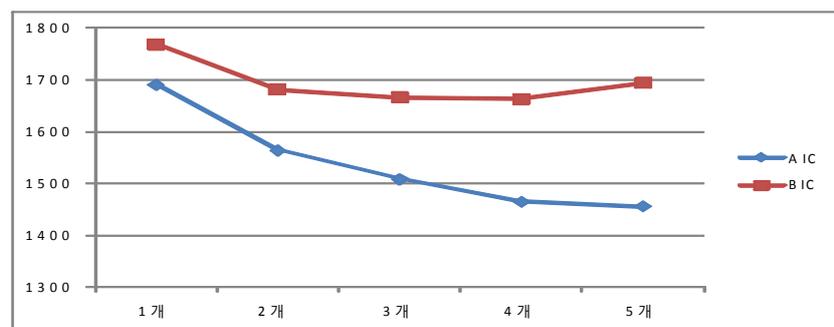
1) 집단구분

공공 및 인력의 재정과 인력, 민간기관, 프로그램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어떻게 유형화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수준 관련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켜 가며 AIC와 BIC를 비교하였다. <표 IV-10>과 [그림 IV-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각 모형별로 AIC는 잠재계층의 수를 1개씩 증가시킬 때마다 감소하나, BIC는 4개 모형까지는 감소하나 5개 모형에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AIC와 BIC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BIC가 AIC보다 더 적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홍세희·노연경, 2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군의 복지수준특성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에서 엔트로피는 0.99로 1.00에 가깝게 나타났다.

〈표 IV-10〉 잠재계층 수에 따른 AIC와 BIC

	1개	2개	3개	4개	5개
AIC	1690.289	1563.878	1508.601	1464.862	1456.177
BIC	1767.725	1681.465	1666.34	1662.752	1694.219



〔그림 IV-7〕 잠재계층 수에 따른 AIC와 BIC의 변화

최종모형으로 분석한 각 잠재계층별 시·군의 분포는 <표 IV-11>과 같다. 첫째, A집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가 해당되었다. A집단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면적은 342.68km²로 4개 집단 가운데 두 번째로 크고, 면적 당 평균 인구수는 1821.7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즉 A집단은 도시지역이면서 빈곤층이 적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천과 의왕은 대표적으로 지역이 적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용인과 화성은 면적은 과천과 의왕보다 넓지만 이 지역 역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B집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하남시가 포함되어 가장 많은 시·군이 포함된 집단이다. 평균 면적은 174.60km²로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작았다. 그러나 면적당 평균 인구수는 5474.37명으로 4개 집단 중 가장 많은 지역이다. B집단은 [그림 IV-8]에서와 같이 대체로 서울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구성되어 있어 있었다. 즉 B집단은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이 혼합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면적대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 특징을 주로 보이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B집단에 속한 도시지역은 수원, 고양, 성남, 안산, 부천, 안양 등 구가 있는 큰 도시들이며 저소득층이 상당수 존재하며 빈부격차가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B집단에 속한 도농복합 지역은 앞서 설명했듯이 도시적 특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셋째, C집단에는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등 총 8개 시가 포함되었다. C집단은 지도상에서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외곽에 있는 시가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4개 집단 가운데 평균 면적은 548.99km²로 가장 넓었고 면적당 평균 인구수는 973.28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C집단은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에 속하며,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특성이 좀더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의정부시의 경우 저소득층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집중도계수를 중심으로 집단구분시 C집단에 포함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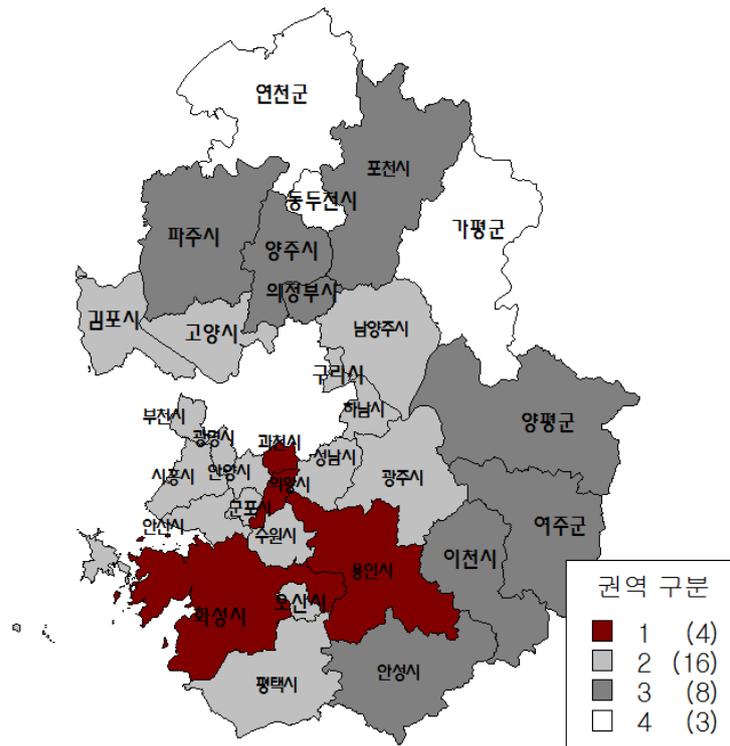
넷째, D집단은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이 해당되었다. [그림 IV-8]에서와 같이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면적은 538.16km²로 4개 집단 가운데 2번째로 컸다. 면적당 평균 인구수는 386.97명으로 거주하는 인구수는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적었다. 가평군과 연천군이 경기도내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며 동두천시는 연천군과 밀접한 위치에 있고 면적은 적지만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복지자원측면에서 보면 서울외곽에 생활시설들이 밀집되는 특징이 동두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평, 연천과 같이 인구수가 적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집중도계수를 중심으로 볼 때, 가평, 연천과 동일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표 IV-11〉 집단별 현황

구분	시·군	N(%)
A집단	과천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4(12.9)
B집단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하남시	16(51.6)
C집단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8(25.8)
D집단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3(9.7)

[그림 IV-8]은 앞서 분류된 4개 집단의 분포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8] 집단별 분포

2) 재정

(1) 공공

집단별로 공공재정의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과 분야별 지출액 집중도 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먼저, 공공재정의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인구 대비 사회복지분야 공공재정 총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본 결과, A집단은 0.79, B집단은 0.95로 나타나 집중도계수가 1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C집단과 D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1.32와 1.86으로 집중도계수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별 분야별 공공재정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 공공재정 지출액 집중도계수를 살펴본 결과, A집단과 C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1.04와 1.06, B집단, D집단은 각각 0.98과 0.92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대비 노인복지분야별 공공재정 지출액은 A집단과 B집단의 집중도계수가 각각 0.76과 0.98로 나타났고, C집단은 1.17, D집단은 1.60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대비 아동복지분야별 공공재정 지출액은 B집단과 C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1.00과 1.20, A집단의 경우 아동 대비 아동복지분야별 지출액에 대한 집중도계수는 0.78로 나타났고, D집단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1.39로 나타났다.

<표 IV-12> 집단별 공공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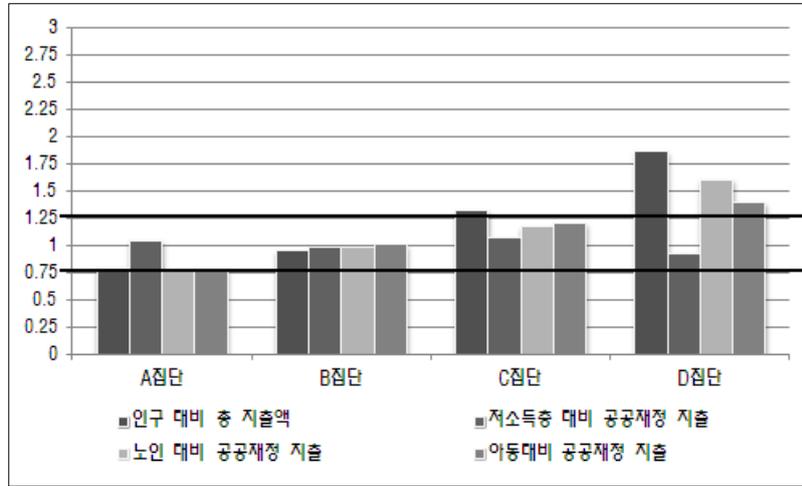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대비	아동대비
A집단	0.79	1.04	0.76	0.78
B집단	0.95	0.98	0.98	1.00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 대비	노인대비	아동대비
C집단	1.32	1.06	1.17	1.20
D집단	1.86	0.92	1.60	1.39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그림 IV-9]는 <표 IV-12>에서 계산된 집중도계수를 1.25와 0.75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9]에서와 같이 전체 인구 수 대비 사회복지분야 공공재정의 총 지출액 및 사회복지분야별 공공재정의 총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는 모두 보통 수준이었다.

D집단의 경우, 전체 인구 수 대비 사회복지 공공재정 총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사회복지분야 공공재정 자원은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D집단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이기에 때문에 인구수대비 집중도계수는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비 공공재정지출의 집중도계수가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12> 참조.

[그림 IV-9] 집단별 공공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2) 민간

집단별로 민간복지지출액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민간재정 총 지출액에 대한 분석을 보면, A집단은 집중도계수가 0.95, B집단은 0.87로 나타났다. 반면 C집단은 1.42, D집단은 3.36으로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대상자별 분야별 민간재정 지출액 집중도계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민간재정 지출액에 대한 집중도계수는 A집단이 1.74로 나타나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집중도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B집단은 1.14, C집단과 D집단은 각각 0.49와 0.2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대비 민간재정 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지출액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둘째, 노인 대비 노인복지 분야 민간재정 지출액은 A집단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1.18, B집단과 C집단은 각각 0.89와 0.93, D집단은 3.13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대비 아동복지분야별 민간재정 지출액을 살펴보면, A집단

은 집중도계수가 0.44, B집단은 1.01, C집단과 D집단은 각각 1.52와 2.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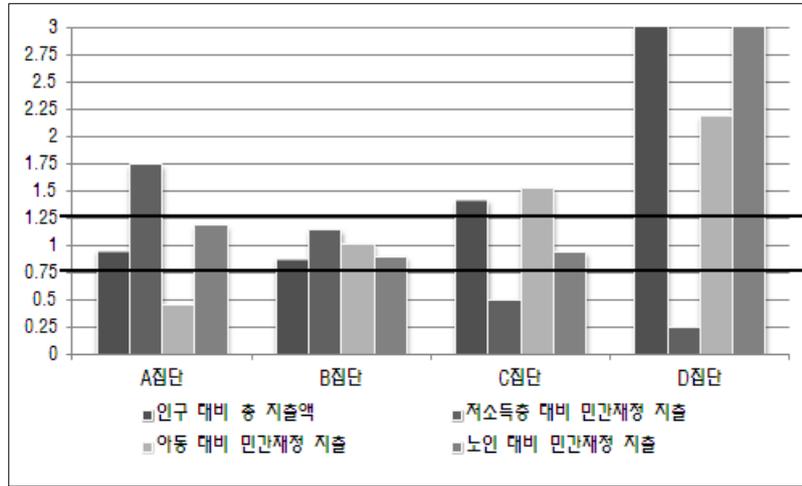
〈표 IV-13〉 집단별 민간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대비	노인대비	아동대비
A집단	0.95	1.74	1.18	0.44
B집단	0.87	1.14	0.89	1.01
C집단	1.42	0.49	0.93	1.52
D집단	3.36	0.24	3.13	2.18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그림 IV-10]은 <표 IV-13>을 요약한 것이다. A집단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 사회복지분야 민간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집중된 반면 아동 대비 민간재정 지출은 상대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B집단은 대체로 보통 수준이었다. C집단은 전체 인구 수 대비 사회복지분야 민간재정 총 지출과 아동 대비 아동복지분야 민간재정 지출 정도는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재정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D집단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타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인구소가 적어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비 민간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13> 참조.

[그림 IV-10] 집단별 민간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3) 공공과 민간

공공재정과 민간재정 사회복지 지출액을 합하여 집중도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공공 및 민간재정 총 지출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A집단과 B집단의 집중도계수가 각각 0.81과 0.94로 나타났고, C집단 1.33, D집단 2.0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별 대상자 대비 분야별 공공 및 민간의 지출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별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액 집중도계수는 A집단이 1.10, B집단이 1.00, C집단이 1.01, D집단 0.86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대비 노인복지분야 지출액의 집중도계수는 A집단이 0.82, B집단이 0.96, C집단이 1.13, D집단이 1.81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대비 아동복지분야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액에 대한 집중도계수 분석결과, A집단 0.77, B집단 1.01, C 집단 1.22, D집단 1.4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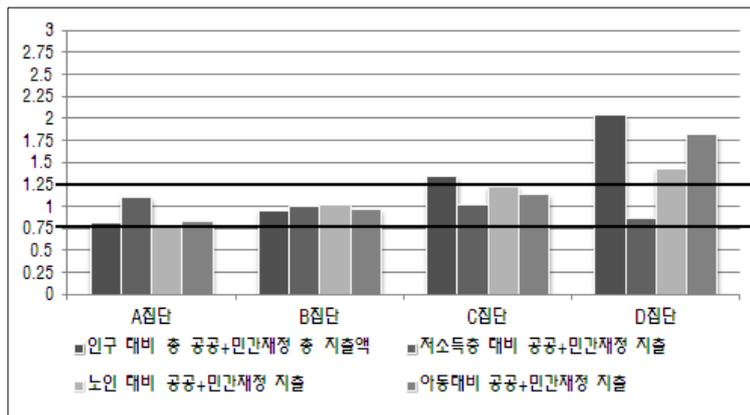
〈표 IV-14〉 집단별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집중도계수

구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	분야별 지출액		
	인구 대비	저소득층대비	노인대비	아동대비
A집단	0.81	1.10	0.82	0.77
B집단	0.94	1.00	0.96	1.01
C집단	1.33	1.01	1.13	1.22
D집단	2.04	0.86	1.81	1.43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그림 IV-11]은 앞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A집단의 경우, 전체 인구 수 대비 사회복지분야 공공 및 민간재정 총 지출 정도가 부족하였으며, 노인 및 아동 대비 사회복지분야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정도 또한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집단과 C집단은 대체로 공공 및 민간재정의 지출의 집중정도가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보통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다.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14> 참조.

〔그림 IV-11〕 집단별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지출액 집중도계수

3) 인력

집단별 공공인력의 집중도계수 분석결과는 <표 IV-15>와 같다. 첫째, 공공인력의 경우 A집단은 전체 인구 대비 공공인력 집중도계수가 0.99, B집단 0.86, C집단 1.45, D집단 2.85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인구 대비 민간복지기관 인력 집중도계수 분석결과, A집단과 B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0.76과 0.90이고, C집단 1.45, D집단 3.22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인구에 대한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수행인력 집중도계수 분석결과, A집단과 B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0.80과 0.90, C집단 1.45, D집단 3.17로 나타났다.

<표 IV-15> 집단별 사회복지 업무 수행인력 집중도계수

구분	인구대비 공공인력 집중도계수	인구대비 민간인력 집중도계수	인구대비 공공, 민간인력 집중도계수
A집단	0.99	0.76	0.80
B집단	0.86	0.90	0.90
C집단	1.45	1.45	1.45
D집단	2.85	3.22	3.17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대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4) 프로그램

(1) 민간기관 설치

집단별 해당인구 수 대비 민간복지기관의 집중도계수 분석결과는 <표 IV-16>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대비 종합복지관의 집중도계수는 A집단, C집단, D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0.54, 0.28, 0.00으로 모두 0.75보다

작았다. 특히, D집단의 경우 종합복지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집중도계수가 1.33으로,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 대비 종합복지관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60세 이상 인구 대비 노인복지기관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A집단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0.69, B집단은 0.95, C집단은 1.23, D집단은 2.14로 나타났다.

셋째, 7세 미만 아동 대비 아동복지기관 집중도계수 분석결과, A집단 0.55, B집단과 C집단은 각각 1.06, 1.16, D집단은 1.98로 나타났다.

〈표 IV-16〉 집단별 민간기관 집중도계수

지역구분	민간기관		
	저소득기관 (저소득층 대비)	노인관련기관 (60세이상 노인대비)	아동관련기관 (7세미만 아동 대비)
A집단	0.54	0.69	0.55
B집단	1.33	0.95	1.06
C집단	0.28	1.23	1.16
D집단	0.00	2.14	1.98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자활사업참여(차상위자활, 자산형성),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합.

* 자료 : 저소득층자료(성은미 외, 2013), 2013.6.30일 기준; 인구통계, 통계청, 1세단위 인구자료, 2013.12.31일 기준; 복지기관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및 시·군 내부자료, 2013.10.31일 기준.

(2) 프로그램

집단별 저소득층 대비 민간복지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계수 분석결과는 <표 IV-17>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대비 전체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분석결과, A집단 1.56, B집단과 D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0.98과 0.99, C집단의 집중도계수는 0.89로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 대비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A집단의 집중도

계수는 1.79, B집단은 0.98, C집단은 0.89, D집단은 0.99로 나타났다.

셋째, 저소득층 대비 고용 및 직업 프로그램수의 경우, A집단은 1.64, B집단은 1.01, C집단은 0.77, D집단은 1.06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소득층 대비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프로그램수에 대한 분석결과, A집단은 집중도계수가 1.75로 나타난 반면 B집단의 집중도계수는 0.96, C집단은 0.89, D집단은 1.08로 나타났다.

다섯째, 저소득층 대비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수에 대한 분석결과, A집단과 D집단은 집중도계수는 각각 1.39와 1.93로 나타났다. 반면, B집단의 집중도계수는 0.99, C집단은 0.69로 나타났다.

여섯째, 저소득층 대비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수에 대한 분석결과, A집단은 집중도계수가 1.47, B집단은 1.04, C집단은 0.78, D집단은 0.68로 나타났다.

일곱째, 저소득층 대비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수에 대한 분석결과, A집단의 집중도계수는 1.79로 집단 내에 저소득층 대비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수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B집단의 집중도계수는 0.96, C집단은 0.87, D집단은 1.12로 나타났다.

여덟째, 저소득층 대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분석결과, A집단의 집중도계수는 1.57로 저소득층 대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자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B집단의 집중도계수는 1.05, C집단과 D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0.75와 0.6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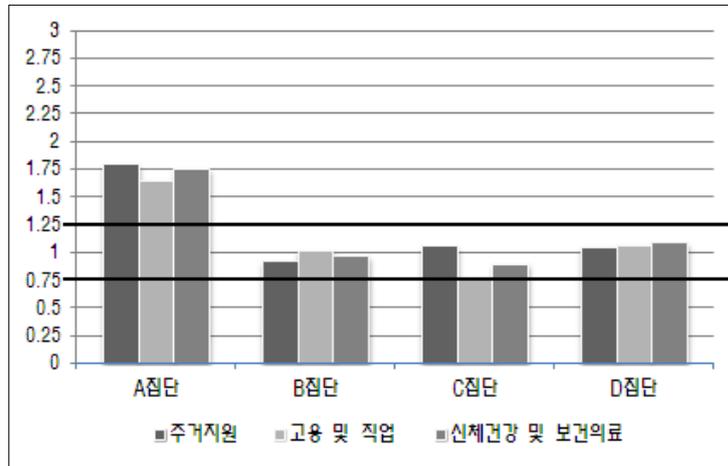
아홉째, 저소득층 대비 보호 및 돌봄요양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결과, A집단과 D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1.45와 1.26로 나타났다. B집단의 집중도계수는 0.90, C집단은 1.14로 나타났다.

열 번째, 저소득층 대비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분석결과, A집단은 집중도계수가 1.28로 나타났다. B집단은 집중도계수가 1.04, C집단과 D집단의 집중도계수는 각각 0.80과 0.92로 나타났다.

〈표 IV-17〉 집단별 민간프로그램 집중도계수

구분	전체	주거 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 건강 및 보건의료	권익 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일상 생활 지원
A집단	1.56	1.79	1.64	1.75	1.39	1.47	1.79	1.57	1.45	1.28
B집단	0.98	0.91	1.01	0.96	0.99	1.04	0.96	1.05	0.90	1.04
C집단	0.89	1.05	0.77	0.89	0.69	0.78	0.87	0.75	1.14	0.80
D집단	0.99	1.04	1.06	1.08	1.93	0.68	1.12	0.65	1.26	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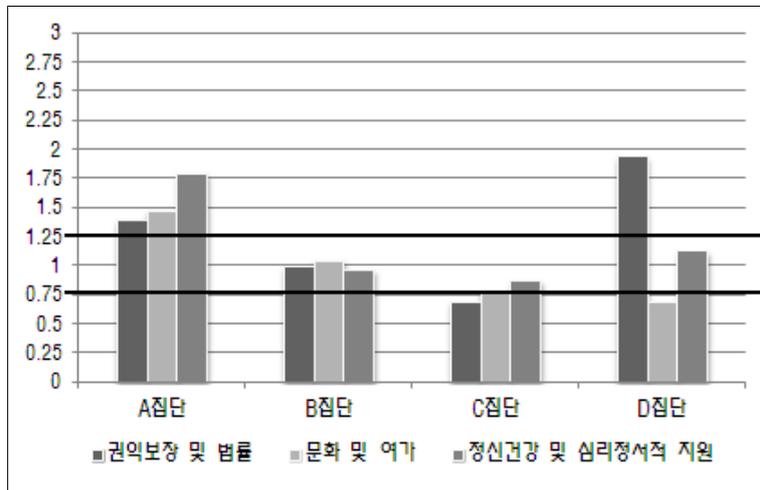
[그림 IV-12]에서는 주거지원, 고용과 직업, 신체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집중도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A집단의 경우 저소득층 대비 주거지원, 고용 및 직업 프로그램,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프로그램이 모두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B집단과 D집단은 모두 보통 수준에 가깝게 제공되고 있었다. C집단의 경우 저소득층 대비 고용 및 직업 프로그램 자원이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17> 참조.

〔그림 IV-12〕 집단별 주거지원, 고용 및 직업, 신체건강 집중도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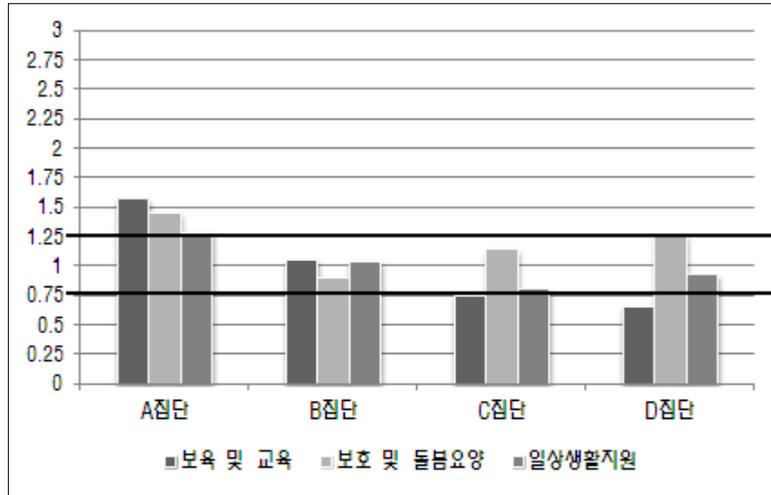
[그림 IV-13]에서와 같이 A집단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D집단 또한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은 집중된 반면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집단은 저소득층 대비 해당 프로그램이 보통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C집단의 경우 권익보장 및 법률,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모두 경기도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17> 참조.

[그림 IV-13] 집단별 권익보장,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관련 집중도계수

[그림 IV-14]에서와 같이 A집단은 저소득층 대비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이 모두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B집단은 대체로 보통 수준에 가깝게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반면 C집단과 D집단의 경우 보육 및 교육과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자료 및 계산방식 <표 IV-17> 참조.

[그림 IV-14] 집단별 보육, 보호, 일상생활지원 집중도계수

3 소결

앞에서는 경기도 그리고 각 시·군의 재정과 인력에 대한 집중도를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의 비형평성계수는 인구 수 대비 사회복지분야 총 지출액은 공공과 민간 모두 ‘거의 형평’한 수준인 1~10 사이였다. 또한 공공 재정은 저소득층, 노인, 아동 각 분야의 대상자 대비 각 분야의 지출액 역시 거의 형평한 수준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재정은 저소득층, 노인, 아동 분야 모두 ‘약간 형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 재정과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주지하였듯이 민간 재정이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로 구성되었고, 시·군마다 분야별 시설 설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즉 가평균은 노인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동두천시는 아동시설이 집중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개연성이 크다.

둘째, 인력의 비형평성계수는 공공인력의 경우 인구 수 대비 ‘거의 형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력 역시 인구 수 대비 ‘거의 형평’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업무 수행인력 수는 공공과 민간 모두 ‘거의 형평’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프로그램의 비형평계수를 살펴보면, 재정이나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비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합복지관의 경우 비형평성계수가 20이 넘어 ‘상당히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시·군별 집중도계수를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공재정의 집중도계수는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 지출액의 경우 집중된 시·군이 없으며, 노인의 경우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안성시, 포천시에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동의 경우 동두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안산시, 포천시, 연천군에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 재정이 집중된 공통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민간재정의 집중도계수는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분야 지출액의 경우 화성시, 광주시, 시흥시, 오산시, 하남시, 고양시, 김포시, 군포시, 수원시에서 높게 나타났고, 노인의 경우 가평군, 과천시, 의왕시, 이천시, 연천군, 성남시, 화성시, 하남시, 아동의 경우 여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의정부시, 과천시, 포천시, 안성시, 의왕시에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화성시, 광주시, 오산시, 남양주시, 광명시는 저소득층 대비 민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노인과 아동 대비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은 노인 대비 노인 분야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동두천시, 여주시, 의정부시, 안양시, 평택시, 양주시는 아동 대비 아동분야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과천시, 군포시, 김포시, 남

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 화성시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 평택시의 경우 저소득층 대비 전체 민간기관의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자원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관련해서 살펴보면, 고양시, 김포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0.75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민간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빈곤층비율이 적은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평군,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평택시와 같은 지역은 집중도계수가 0.75이하로 서비스의 전반적인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특정프로그램의 집중도가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 및 직업프로그램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성남, 안양시의 집중도가 높거나, 고양시, 구리,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집중도계수가 0.75이하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보기 위해 각 시·군별 복지재정, 인력 및 민간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집단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A집단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와 도농복합 4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대비 민간재정과 공공인력, 민간인력은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자 수 또한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집단은 31개 시·군 중 16개의 시·군이 속한 유형으로 면적당 평균 인구수가 4개 집단 중 가장 많았고 주로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지역 및 도농복합지역 으로 구성되었다. B집단은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재정과 인력 및 민간프로그램의 집중 정도가 모두 보통 수준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셋째, C집단은 B집단보다는 서울에서 좀 더 떨어진 8개시로 구성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균 면적이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넓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상자별 인구 대비 공공재정 지출과 공공 및 민간인력의 집중도는 보통 수준에 가까웠으나, 저소득층 대비 민간재정 지출액과 민간기관수, 대상자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구성 상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 및 직업 프로그램,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D집단은 면적당 평균 인구수가 가장 적은 북부지역으로 농촌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시·군으로 구성된 유형이었다. D집단은 상대적으로 아동과 노인 대비 공공 및 민간재정의 집중 정도가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재정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공공 및 민간인력 모두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집중도가 높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관은 하나도 없는 반면,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4개 집단 가운데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집단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 및 여가,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민간복지기관의 대상자 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노인 대비 대상자 수가 모두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노인 대상자 수의 집중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내 복지자원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경기도내 복지자원과 관련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자원을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구분하고, 복지자원의 내용을 재정, 인력,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원은 지자체 차원의 공공자원으로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즉 사회보험공단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자원의 경우 순수하게 후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제외하고 주로 지자체와 지자체에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집중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형평계수와 집중도계수를 적용해 시·군별 다양한 복지자원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군별로 살펴볼 경우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집단별로 시·군을 구분하고 자원의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개괄적으로 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남부지역에 복지자원의 절대적 양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를 인구나 저소득층 대비, 노인대비, 아동 대비로 살펴보면,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구리, 동두천 등 빈곤층이 다수 있는 지역의 경우 재정, 인력, 프로그램 측면에서 상대적인 복지자원의 양은 그리 풍부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복지자원이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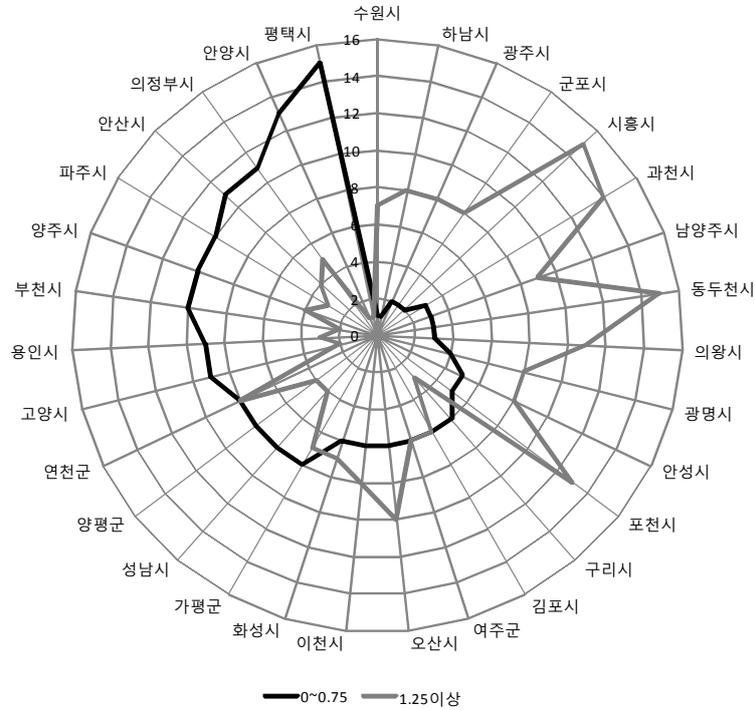
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파주와 포천의 경우 복지자원의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비형평성계수를 통해 복지자원의 분포를 보면, 첫째, 재정부분, 공공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이 형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그러나 민간부분의 자원배분과 관련되는 비형평성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민간부분 중 종합복지관의 경우 비형평성계수가 20이 넘어 상당히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집중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그림 V-1]은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관련 복지자원, 노인 대비 노인관련 복지자원, 아동 대비 아동관련 복지자원의 집중도계수이다. 이 중에서 0.75보다 낮아서 경기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항목수와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된 경우의 수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집중도계수가 1.25 이상인 항목이 많은 지역은 시흥, 동두천, 과천, 포천, 의왕, 오산, 남양주시, 하남시로 나타나고 있다. 과천이나 의왕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속한다. 동두천과 포천의 경우 아동대비, 노인대비 관련복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제시했듯이 집중도계수가 다양한 기관의 성격이나 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자원이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안양, 평택, 고양, 부천, 구리, 용인, 파주, 성남, 안산시의 경우에는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복지자원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V-1] 시·군별 집중도계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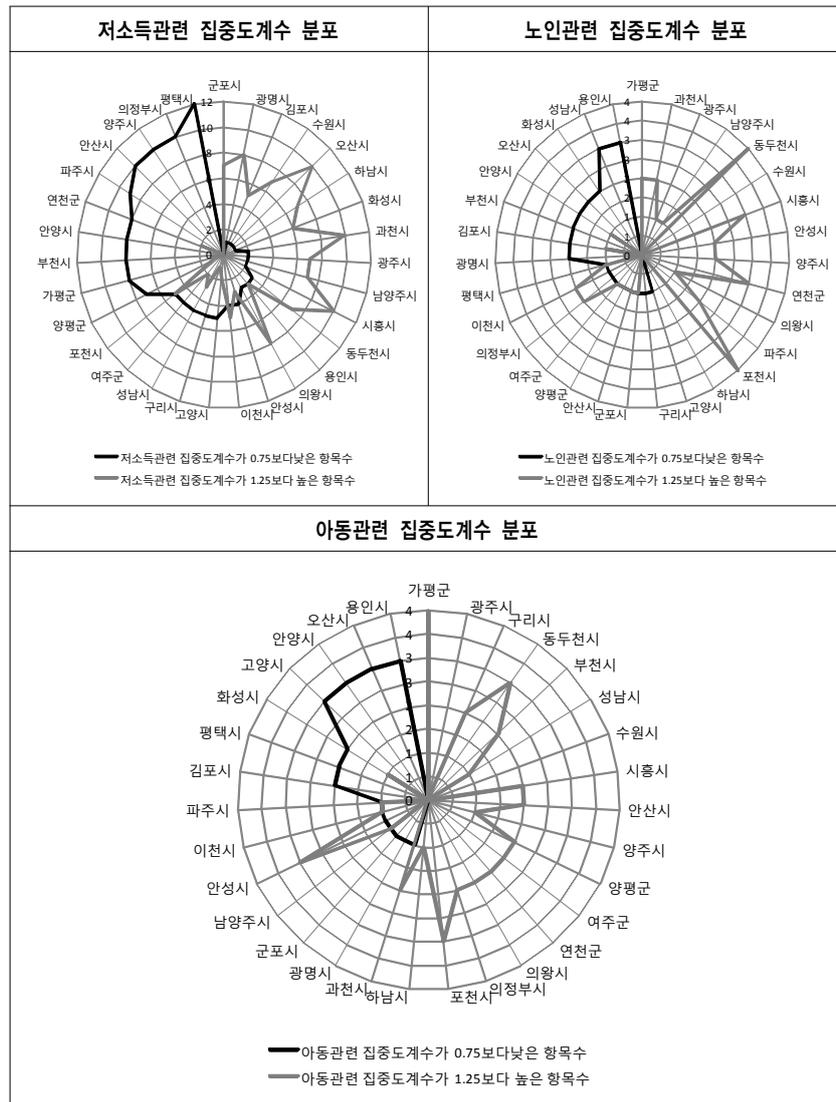
이를 좀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기 위해 분야별로 집중도계수를 살펴본 것이 아래 <표 V-1>이다. 저소득부분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평택, 의정부, 양주, 안산, 파주, 연천 등 위의 전체적인 집중도계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포천의 경우에는 저소득관련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항목과 1.25보다 높은 항목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부분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용인, 성남, 화성, 부천, 김포 등 도시지역 중심으로 노인관련 집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동두천시, 시흥, 포천시의 경우 노인관련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은 항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관련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용인, 오산, 안양 등의 지역에서 집

중도계수가 0.75보다 낮은 항목이 다수 발견되었다. 반면, 가평, 동두천, 시흥, 양평, 포천, 안성시는 아동대비 아동관련 자원의 집중도계수가 1.2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 분야별 집중도계수 분포



이와 같이 31개 시·군의 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경기도내 복지자원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자원의 차이는 집단별 분석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단순히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북부지역, 남부지역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었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복지자원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군 자체적인 노력이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천과 성남, 안산과 안양과 같은 도시지역의 경우 보다 추가적인 복지자원 확대를 위해 시·군 자체적인 노력이 가능한 지역들이다. 이미 복지관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 외에 부족한 자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복지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천의 경우 재정, 인력, 프로그램측면이나 민간, 공공, 민간과 공공 측면 모두에서 집중도계수가 낮은 상황이다. 때문에 전반적인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안산의 경우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자원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안양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과 투자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시·군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과천, 의왕, 용인, 화성의 경우 앞의 표에서 제시했듯이 집중되어 있는 자원을 부족한 자원부분으로 이동하는 등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자원조정을 위해 1차적인 책임은 앞서 제시했듯이 시·군에게 있다. 첫째,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대표적으로 가평군의 경우 군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역적 특성 즉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다는 점,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합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순 없다. 이런 지역의 경우 규모가 작고 기동성이 있는 방식의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지역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기관의 설치방식과 운영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지 않는 한 복지자원의 확대가 달성되긴 어렵다.

둘째,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자원이 집중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복지자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복지자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4~5년을 기점으로 도 차원에서 복지자원의 양적 확대, 시·군간, 집단간 차이 극복을 위해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의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를 위한 재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군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자원 확대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는 종합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그 재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일정정도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시·군에서 좀더 수월하게 복지자원 확대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복지자원을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시·군별 차이에 집중해 분석하였다. 자원의 전반적인 분포에 집중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 복지자원의 질적수준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자원이 다소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 상황이 존재하고, 이런 상황 내에서 자원의 중복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다 풍부한 자원활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자원의 누락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경혜(2006). 『복지기관 간 서비스 중복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원.
- 김교성 외(2006). 『사회복지자원 총량조사연구』. 사랑의 열매.
- 김상균 외(2006).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 남기성·오민홍·홍현균(2008). 『지역노동시장 분석시리즈 I: 새로운 상대집중계수 NOHI 제안』. 한국고용정보원.
- 부산복지개발원(2007).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및 서비스분류체계 구축 연구』. 2007.
- 성은미 외(2009). 『민간복지자원 실태조사연구』. 경기복지재단.
- 성은미 외(2013). 『지도로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경기복지재단.
- 이동귀 이수란 김혜영(2009).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애착 유형 분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55-67.
- 이익섭·김동기(2007).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자원 변화추이 및 장애인복지의 과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 16. 49~70.
- 홍세희 노언경(2013). 남자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변화형태에 대한 잠재계층 추정 및 비행형태와의 관련성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4(4), 119-148.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 535 - 569.
- Peugh, J. & Fan, X. 2013. Modeling Unobserved Heterogeneity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 Monte Carlo Simu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16-639.
- Vannucci, A., Tanofsky-Kraff, M., Crosbym R. D., Ranzenhofer, L. R., Shomaker, L. B., Field, S. E., Mooreville, M., Reina, S. A., Kozlosky, M., Yanovski, S. Z., & Yanovski, J. A. 2013. Latent Profile Analysis to Determine the Typology of Disinhibited Eating Behavio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1(3), 494-507.

VI

부 록

① 자원조사표

〈자원조사표〉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의 성은미 연구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에서 출현한 복지재단으로서 경기도 복지정책 개발, 시설평가 및 컨설팅, 복지현장지원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경기도 복지수준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중에서 경기도내 자원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조사자료는 2014년 진행될 시·군, 도 지역복지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는 기관별로 1회 진행됩니다. 기관에서 각 사업을 총괄하시는 선생님이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사된 자료는 연구 외에 목적에는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데 조사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1. 응답자 현황

- 1) 기관명
- 2) 응답자 성명 및 직위
- 3) 응답자 연락처

2. 해당기관 현황

- 1) 기관유형

종합	종합사회복지관(복지회관포함)
아동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공동시설
	지역아동센터

종합	종합사회복지관(복지회관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상담소
	위스타트(도 특화사업)
	드림스타트
노인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
	점자도서관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	종합사회복지관(복지회관포함)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한부모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적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일반지원시설(성매매)
	청소년지원시설(성매매)
	외국인여성지원시설(성매매)
	자활지원센터(성매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	
정신보건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생활훈련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작업훈련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식품기부	푸드뱅크
	푸드마켓
자활고용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전직지원센터
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가족여성회관)
	여성의 전화

종합	종합사회복지관(복지회관포함)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법)	
	새일센터	
청소년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기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공부방		
기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센터	
	일자리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보건소, 보건지소	
	소방방재청	
	자원봉사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귀 기관유형

- | | | |
|--------|---------|---------|
| ① 공공 | ② 개인사업자 | ③ 기업 |
| ④ 종교단체 | ⑤ 비영리단체 | ⑥ 비영리모임 |

3) 기관이 속한 시·군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4) 귀 기관(시설)의 직원 현황에 대해 해당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계약직	합 계
합 계	명	명	명

* 계약직은 1년 이상 본 기관에서 근무한자에 해당

5) 직원의 전문직 구성 현황 (*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중복으로 합산 가능함)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사, 교사 등)	명
---	---

3. 네트워킹현황입니다.

1) 귀 기관은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와 관련한 타 기관 연계활동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과거에 진행하였으나 중단하였다
- ③ 최근 시작하였다
- ④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및 프로그램이 얼마나 자주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1년에 2~3회 진행
- ② 분기별로 진행
- ③ 월 1회 이상 진행
- ④ 수시로 진행

3) 타기관 연계활동이 귀하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거의 도움이 도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4) 해당 시·군내에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부족한 서비스_____

중복되는 서비스_____

4. 서비스 조사입니다.

조사 항목	조사내용	프로 그램명	소득별 대상 ①일반 ②수급자 ③차상위 ④저소득	연령별 대상 ①영아 ②아동 ③청소년 ④ 청년 ⑤중장년 ⑥노인	특성별 대상 ①일반 ②여성 및 임신부 ③장애인 ④ 기타 보호대상자 ⑤실업자 ⑥한부모 ⑦다문화 ⑧조손 ⑨소년소녀가장 ⑩독거노인(중복체크가능)	정원	현원	운영횟수 (월 단위 횟수) ex. 분기 1회의 경우 0.33
주거 지원	임시 거처마련 및 지원							
	장기 거처마련 및 지원							
	주거 환경개선							
	주거안정지원							
고용 및 직업	자활사업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직업상담							
	직업유지지원 및 자립지원							
	창업지원							
신체 건강 및 보건 의료	취업알선(일자리제공)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지원							
	검진 진단판정 및 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							
	보장구지원							
권익 보장 및 법률	의약품 외 물품지원							
	재활치료							
	법률 상담 및 지원							
문화 및 여가	인권옹호 상담 및 지원							
	문화예술 활동지원							
	체육활동							
	취미여가(기타)							
정신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지원	휴양 및 체험여행							
	가족·사회적 관계개선지원							
	게임·인터넷 및 도박 중독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							
	알코올 및 약물중독							
보육 및 교육	우울·자살 예방지원							
	정신보건 및 치료지원							
	양육 및 진로상담지도							
유아아동 청소년 교육	영유아 아동 보육 및 돌봄							
	유아아동 청소년 교육							

조사 항목	조사내용	프로 그램명	소득별 대상 ①일반 ②수급자 ③차상위 ④저소득	연령별 대상 ①영아 ②아동 ③청소년 ④ 청년 ⑤중장년 ⑥노인	특성별 대상 ①일반 ②여성 및 임신부 ③장애인 ④ 기타 보호대상자 ⑤실업자 ⑥한부모 ⑦다문화 ⑧조손 ⑨소년소녀가장 ⑩독거노인(중복체크가능)	정원	현원	운영횟수 (월 단위 횟수) ex. 분기 1회의 경우 0.33
	장애특수교육							
	평생 교육 및 생활지식교육							
보호 및 돌봄 요양	간병 및 돌봄, 장제서비스							
	단기시설보호							
	장기시설보호							
	주야간 보호서비스							
	폭력피해자 보호							
일상 생활 지원	가사지원							
	기획사업							
	긴급지원							
	생필품 지원							
	생활안정 및 유지지원							
기타								

5. 마지막으로 시군구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및 복지발전 등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적어주세요.